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2025

국토교통부

제 출 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6.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심 교 언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 재 춘 연구위원
연구진	강 미 나 선임연구위원 박 미 선 연구위원 이 길 제 연구위원 황 관 석 부연구위원 윤 성 진 부연구위원 조 윤 지 전문연구원 이 건 우 연구원 정 서 윤 연구원 김 승 연 연구원 김 은 지 연구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1. 주거실태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함

2. 주거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조사로,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유사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값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3. 유사 통계자료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료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한지 각 조사의 조사기준 및 분류체계, 용어의 정의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본 보고서를 통해 작성된 결과는 2022년 및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신축아파트 정보 및 가구추계 결과 등을 활용한 모집단 정보(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대)와 부합되도록 조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5. 본 보고서 상 비율의 합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0%가 아닐 수 있음

6. 본 보고서의 주요결과는 주로 지역별, 소득별로 분석하였음
   - 분석지역은 크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하였고,
   - 소득구분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분위~4분위), 중위(5분위~8분위), 상위(9분위~10분위)로 구분함

   *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에 포함

7. 본 보고서의 원문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차 례

PART Ⅰ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3
1) 사업개요 ····· 3
2)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개요 ····· 5

2. 주요업무 내용 및 조사항목 ····· 7
1) 주요업무 내용 ····· 7
2) 조사항목 ····· 10
3) 분석범위 ····· 11
4) 자료의 한계 ····· 14

3. 표본설계 ····· 14

PART Ⅱ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1. 주택 및 주거환경 ····· 19
1) 점유형태 ····· 19
2) 주택유형 ····· 21
3) 현재주택 상태 ····· 24

2.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 25
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25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28
3)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29
4)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31
5)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32

3. 주거이동 ····· 35
1) 주거이동률 ····· 35
2) 직전주택과 현재주택 점유형태 ····· 36
3) 이사계획 ····· 37
4) 주택보유의식 ····· 40

4.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41

PART Ⅲ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시계열 추이

1.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 ····· 46
2. 평균 거주기간 ····· 48
3. 주거환경 만족도 ····· 48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49
5.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49
6.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 50
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50
8.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51
9. 주택가격 대비 주택대출금 비율(LTV) ····· 52
10.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53
11.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 53
12. 주거이동률 ····· 54

PART Ⅳ 2024년도 특성가구 주요결과 분석

1. 특성가구 조사의 분석범위 및 자료의 한계 ····· 57
   1) 분석범위 ····· 57
   2) 자료의 한계 ····· 58

2. 주거 및 주거환경 ····· 59
   1) 점유형태 ····· 59
   2) 주택유형 ····· 60
   3) 현재주택 거주기간 ····· 62
   4) 평균 주거면적 ····· 64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65

3.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 67
   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67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68
   3)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70
   4)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71

4. 주거이동 ····· 72
1) 주거이동률 ····· 72
2) 이사계획 ····· 73
3) 주택보유의식 ····· 75

5.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77

※ 참고문헌 ····· 79

부록

1. 조사표 ····· 85
2.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 119

표 차례

표 Ⅰ-1. 주거실태조사 통계작성체계 ····· 6
표 Ⅰ-2.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 10
표 Ⅰ-3. 지역구분 ····· 11
표 Ⅰ-4. 지역별 가구 비율 ····· 11
표 Ⅰ-5. 소득 구분 ····· 12
표 Ⅰ-6. 소득별 가구 비율 ····· 12
표 Ⅰ-7. 주택유형 구분 ····· 13
표 Ⅰ-8.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 13
표 Ⅱ-1. 지역별 점유형태 ····· 19
표 Ⅱ-2. 소득별 점유형태 ····· 20
표 Ⅱ-3. 지역별 주택유형 ····· 21
표 Ⅱ-4. 소득별 주택유형 ····· 23
표 Ⅱ-5. 주택유형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 24
표 Ⅱ-6. 지역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추이 ····· 25
표 Ⅱ-7. 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추이 ····· 27
표 Ⅱ-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29
표 Ⅱ-9.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30
표 Ⅱ-10.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31
표 Ⅱ-11. 지역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32
표 Ⅱ-12. 소득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34
표 Ⅱ-13. 지역별·소득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 35
표 Ⅱ-14. 지역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 36
표 Ⅱ-15. 직전주택과 현재주택 점유형태 비교 ····· 37
표 Ⅱ-16. 지역별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 38
표 Ⅱ-17. 지역별 5년 내 이사계획 이유 ····· 39
표 Ⅱ-18. 주택보유의식 ····· 40
표 Ⅱ-19.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41
표 Ⅱ-20.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42
표 Ⅲ-1. 지역별 자가보유율 ····· 46
표 Ⅲ-2. 소득별 자가보유율 ····· 46
표 Ⅲ-3. 지역별 자가점유율 ····· 47
표 Ⅲ-4. 소득별 자가점유율 ····· 47
표 Ⅲ-5. 평균 거주기간 ····· 48
표 Ⅲ-6. 점유형태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 48
표 Ⅲ-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49
표 Ⅲ-8.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49
표 Ⅲ-9.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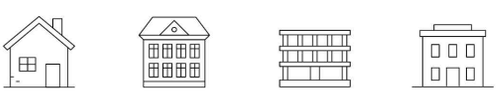
표 Ⅲ-10.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51
표 Ⅲ-11.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52
표 Ⅲ-12. 주택가격 대비 주택대출금 비율(LTV) ····· 52
표 Ⅲ-13. 지역별·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53
표 Ⅲ-14. 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 53
표 Ⅲ-15. 지역별·소득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 54
표 Ⅳ-1. 특성가구 구분 ····· 57
표 Ⅳ-2. 특성가구 지역 구분 ····· 58
표 Ⅳ-3. 주거실태조사상 특성가구의 비율 ····· 58
표 Ⅳ-4. 특성가구별 점유형태 ····· 60
표 Ⅳ-5. 특성가구별 주택유형 ····· 62
표 Ⅳ-6.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 63
표 Ⅳ-7. 특성가구별 평균 주거면적 ····· 65
표 Ⅳ-8. 특성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66
표 Ⅳ-9. 특성가구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67
표 Ⅳ-10. 특성가구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69
표 Ⅳ-11. 특성가구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70
표 Ⅳ-12. 특성가구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71
표 Ⅳ-13.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 72
표 Ⅳ-14. 특성가구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 73
표 Ⅳ-15. 특성가구별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 73
표 Ⅳ-16. 특성가구별 5년 내 이사계획 이유 ····· 75
표 Ⅳ-17. 특성가구별 주택보유의식에 따른 이유(1순위) ····· 76
표 Ⅳ-18. 특성가구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77
표 Ⅳ-19. 특성가구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78

그림 차례

그림 Ⅰ-1. 업무분담 체계 ····· 6
그림 Ⅰ-2. 의사결정 체계 ····· 6
그림 Ⅰ-3. 표본설계 및 추출 절차 ····· 8
그림 Ⅰ-4. 데이터 생산 절차 ····· 9
그림 Ⅱ-1.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28
그림 Ⅱ-2. 지역별 및 소득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29
그림 Ⅱ-3.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 40
그림 Ⅲ-1. 지역별 자가보유율 ····· 46
그림 Ⅲ-2 소득별 자가보유율 ····· 46
그림 Ⅲ-3. 지역별 자가점유율 ····· 47
그림 Ⅲ-4. 소득별 자가점유율 ····· 47
그림 Ⅲ-5.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50
그림 Ⅲ-6. 지역별 및 소득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51
그림 Ⅳ-1. 특성가구별 점유형태 ····· 59
그림 Ⅳ-2. 특성가구별 주택유형 ····· 61
그림 Ⅳ-3.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 ····· 63
그림 Ⅳ-4. 특성가구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 64
그림 Ⅳ-5. 특성가구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64
그림 Ⅳ-6. 특성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66
그림 Ⅳ-7. 특성가구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67
그림 Ⅳ-8. 특성가구별 자가가구 PIR(중위수) 및 임차가구 RIR(중위수) ····· 69
그림 Ⅳ-9. 특성가구별 주택보유의식 ····· 75
그림 Ⅳ-11. 특성가구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78
그림 Ⅳ-10. 특성가구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78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PART Ⅰ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Ⅰ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주거실태조사**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제20조 ④항, 동법 시행령 13조 ③항 1호에 따라 조사업무를 국토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 **조사체계**

○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성가구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해에, 정책조사는 홀수해에 실시하였음

- 일반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06년 이후 2024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 정책조사는 특성가구를 대상으로하는 조사로 2007년 노인가구, 2009년 장애인가구, 2011년 임대주택거주가구, 2013년 저소득가구, 2015년·2019년·2023년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노인·저소득 등의 특성가구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음

➔ **연혁**

○ 2005.5 | 부동산대책회의 주거실태조사 추진 결정

○ 2005.6 |「정기적 주거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006.4 |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07.7 |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노인가구) 시행

○ 2008.4 |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09.3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10.6 |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1.4 |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임대주택거주가구) 시행
○ 2012.6 |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3.7 |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저소득가구) 시행
○ 2014.4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5.3 |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16.4 |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7.4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8.3 |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9.3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9.5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20.5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1.6 |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2.4 |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3.5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3.8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24.4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

-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전문가 또는 각계각층의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수요에 부응함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국민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음

-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과학적인 정책수립 기반을 확립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함

○ 또한,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 운영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이 있음

- 지속적인 조사로 주거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함
-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효과 파악 및 새로운 정책방향 도출에 기여함

2)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개요

➔ 조사명

○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승인(협의)번호 제116031호)

➔ 통계의 종류

○ 조사통계(표본조사)

➔ 작성주기

○ 매년

- 2006년 이후 격년 단위로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해 왔으나, 2017년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일반가구 조사를 매년 시행

➔ 조사대상

○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이들의 거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조사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범위

○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를 포함한 전국 대상(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

➔ 표본규모

○ 목표표본수 : 총 61,000가구(일반가구)

○ 유효표본수 : 총 61,341가구(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100.6%)

➔ 조사기간

○ 조사원 교육 : 2024년 6월 11일 ~ 6월 14일, 19일, 21일

○ 본조사 : 2024년 6월 24일 ~ 2024년 12월 6일

통계작성체계

○ 국토연구원과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은 과업별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사를 수행함

- 국토연구원은 조사기획, 실사 및 조사 관리,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은 실사총괄과 통계자문을 병행하여 업무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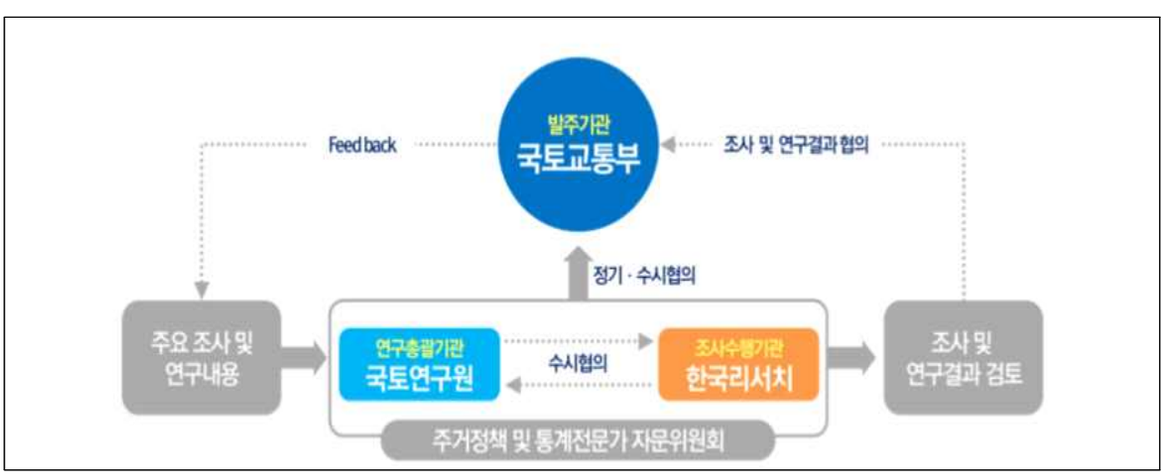
표 Ⅰ-1. 주거실태조사 통계작성체계

구 분	담 당
작성기관	국토교통부
조사기획	국토연구원
현장조사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
자료처리	국토연구원,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그림 Ⅰ-1. 업무분담 체계



그림 Ⅰ-2. 의사결정 체계



2. 주요업무 내용 및 조사항목

1) 주요업무 내용

(1) 조사기획

➔ 2024년도 조사표 작성

○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표는 주택 및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공무원의 수요조사를 수행한 후 최종 결정됨

-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의 정책수요 파악 및 신규통계 수요를 취합함

○ 이전 주거실태조사 실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진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4년도 조사표를 확정함

➔ 조사지침서 작성

○ 확정된 조사표를 토대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개념, 현장조사 요령,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조사지침서를 작성함

○ 조사항목의 구성 및 주요 용어의 정의 등은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청의 관련 조사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분류체계를 토대로 작성함

➔ 통계작성 협의 및 통계승인

○ 통계법에 따라 통계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통계승인을 획득함(승인(협의)번호 제116031호)

➔ 표본설계 및 추출

○ 표본설계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표본추출에 필요한 모집단 정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및 신축아파트, 멸실주택 리스트)를 수집함

○ 표본은 모집단 정의, 표본추출틀 정의, 표본규모 결정, 층화 및 표본배분, 표본추출의 절차를 거쳐 선정함

그림 Ⅰ-3. 표본설계 및 추출 절차



(2) 실사 및 조사관리

➔ 조사원 교육

○ 조사시 유의사항, 조사항목 작성요령 등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원의 이해도를 제고함

○ 조사시행을 위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조사원 교육, 조사홍보, 공문발송 등 사전 준비를 시행함

○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지침서에 대한 사전조사 교육 및 본조사 관련 교육을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제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교육은 한국 리서치에서 담당함

○ 실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관련 문의 및 민원에 대응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

➔ 설문조사

○ 실사는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은 표본추출 및 실사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 실사기관인 전문조사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표의 구성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효과적인 조사진행과 협조도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를 실시함

○ 조사를 위해 각종 홍보물과 조사용품을 제작하여 홍보하며, 각 지역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을 발송함

○ 설문조사 진행 중 지역별 점검을 통해 조사원의 어려움 및 조사표의 수정요청 사항을 즉시 개선·반영함

○ 조사된 자료는 입력 시 검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원시자료를 생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함

(3)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및 관리

➔ 조사결과 검증

○ 내검 및 입력 완료된 조사결과에 대해 논리적 오류 및 펀치 오류 확인, 이상값 분석, 기초통계량 확인 등 자료 검증을 실시함

○ 자료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나 이상값은 조사표 확인, 응답내용 확인, 필요시 전화검증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여 정정함

➔ 가중치 적용

○ 조사결과의 가중치는 각 표본의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를 바탕으로 사후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함

그림 Ⅰ-4. 데이터 생산 절차



(4) 공표자료 작성 및 정책지원

➔ 공표자료 작성

○ 조사의 개요 및 실사과정, 표본설계 내용, 주요 분석결과 등을 수록한 연구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

○ 주요 변수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

➔ 정책지원

○ 공표자료 이외에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가공통계 및 분석자료를 작성함

○ 기존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함

2)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크게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에 관한 사항, 배경문항, 특성가구 추가 조사항목으로 구성됨

표 Ⅰ-2.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항목
Ⅰ.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마련**	가구주가 된 연도, 현재주택 거주 연도, 점유형태 생애 최초 주택마련 경험(시기, 마련기간, 규모) 거주 외 주택 보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자가 : 주택마련시기, 주택마련방법, 주택가격, 구입자금 조달방법 차가 : 임대주택유형, 임차료, 재계약 여부, 계약변동사항 및 금액, 임차자금 마련방법,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및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임차로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 임차보증금 보호방법 주택의 임차료 및 월대출 상환 부담 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유형, 주택 위치, 주택 건축연도, 주택구조, 주택면적, 주택 내부시설 사용형태, 주택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Ⅱ.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이사경험**	이사경험여부, 이사횟수, 직전주택 지역, 직전주택 주택유형, 직전주택 점유형태, 직전주택 위치, 직전주택 구조, 직전주택 면적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이사계획, 이사 이유(현재/향후), 이사계획 중인 지역, 이사계획 중인 주택유형, 이사계획 중인 점유형태, 이사계획 중인 주택규모
	주거의식조사	주택보유의식
Ⅲ. 정책 평가 및 정책 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여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만족 및 불만족 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그 이유
Ⅳ.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가구구성(출생연도, 성별, 주민등록상 등재여부, 실제동거여부, 장애여부), 혼인 10년 이내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수급급여 종류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 월소득, 가구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동절기, 하절기, 간절기),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총자산, 부채유무 및 부채액
Ⅴ. 배경문항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여부(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특성가구 추가 조사항목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주택구입의향 및 예상 소요연수, 부모와의 동거계획 및 그 이유, 자녀 보육시설, 가족계획
	고령가구	주택개조 경험 유무 및 향후 개조 필요성, 주택개조시 어려움
	아동가구	가구구성 현황, 주 보호자와의 관계, 아동가구원 주거밀도, 위생상태
	결혼 및 출산	결혼 의향, 결혼 시 주거여건, 필요한 주거지원, 주택 적정면적, 적정 방 수,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 (추가)출산 의향, 주택 적정면적, 적정 방 수

3) 분석범위

○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지역별, 소득별로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가구주의 연령별 등의 분석을 추가함

○ 분석지역은 크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까지 충남에 포함하여 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광역시 등으로 구분함(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사용하여 세종시가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음)

표 Ⅰ-3. 지역구분

구분	지역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Ⅰ-4. 지역별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전국		100.0	
수도권	서울	18.8	49.3
	인천	5.6	
	경기	24.9	
광역시 등	부산	6.6	19.9
	대구	4.7	
	광주	2.8	
	대전	3.0	
	울산	2.1	
	세종	0.7	
도지역	강원	3.2	30.8
	충북	3.3	
	충남	4.3	
	전북	3.6	
	전남	3.6	
	경북	5.3	
	경남	6.4	
	제주	1.3	

○ 소득구분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분위~4분위), 중위(5분위~8분위), 상위(9분위~10분위)로 구분함

- 소득은 가구의 총 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이며, 근로 ·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됨

표 Ⅰ-5. 소득 구분

구분	소득 10분위	소득 범주	
하위 (1~4분위)	1분위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분위	101만원~189만원	
	3분위	190만원~250만원	
	4분위	251만원~300만원	
중위 (5~8분위)	5분위	301만원~350만원	301만원~560만원
	6분위	351만원~410만원	
	7분위	411만원~499만원	
	8분위	500만원~560만원	
상위 (9~10분위)	9분위	561만원~698만원	561만원 이상
	10분위	699만원 이상	

주: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2023년 1월~12월까지의 월평균 금액)을 조사한 결과이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표 Ⅰ-6. 소득별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하위 (1~4분위)	1분위	10.6	43.7
	2분위	9.8	
	3분위	11.7	
	4분위	11.6	
중위 (5~8분위)	5분위	8.0	36.5
	6분위	9.8	
	7분위	7.4	
	8분위	11.3	
상위 (9~10분위)	9분위	9.3	19.8
	10분위	10.5	

주: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 무응답 857가구(전수화 기준 348,552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하여 분석함

- 단독주택에는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이 포함되며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가 포함됨

표 Ⅰ-7. 주택유형 구분

구분	주택유형 구분
단독주택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상가 · 공장 · 여관 등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

표 Ⅰ-8.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주택유형	단독주택	28.4
	아파트	53.1
	연립주택	2.1
	다세대주택	9.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4
	주택이외의 거처	5.8
점유형태	자가	58.4
	임차	38.0
	무상	3.6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22.4
	40세~49세	18.8
	50세~59세	22.0
	60세 이상	36.8
가구원수	1인	35.5
	2인	28.8
	3인	19.0
	4인	13.8
	5인	2.6
	6인 이상	0.4

4) 자료의 한계

○ 주거실태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과학적인 표본설계를 통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결과에는 통계적 오차가 존재함

○ 주거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표본설계와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모집단의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둠

- 따라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인구주택총조사나 유사 표본조사의 결과에서 이미 알려진 값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3. 표본설계

➔ 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기준시점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전국의 모든 가구 및 거처

○ 조사모집단: 섬지역과 특수사회시설 등을 제외한 전국의 보통 및 아파트조사구[1]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및 가구주(단, 집단가구(비혈연)나 집단시설가구는 제외함[2])

➔ 표본추출틀[3]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 리스트

○ 2022년 11월~2024년 3월 기간 내 신축아파트 리스트

➔ 상대표준오차 분석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 하였음

○ 주택사용면적, 월 가구 총 경상소득, 월 생활비, 월 주거비 등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전국의 경우는 1.0% 이내, 시도별 추정의 경우는 약 1.4%~4.5%로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함

- 시도별 평균 주택사용(전용)면적 추정의 상대표준오차는 1.2%~2.3%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임
- 시도별 평균 가구 총 경상소득 추정의 상대표준오차는 1.4%~3.3%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임
- 시도별 평균 생활비, 주거비, 아파트 비율, 자가주택 비율 등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냄

---

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구 특성은 보통조사구,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및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 아파트조사구 등으로 구분되며, 2024년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이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에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 형태는 일반가구, 집단가구(비혈연),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등으로 구분됨.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모집단에서 집단가구(비혈연)와 집단시설가구는 제외함

3) 「2024년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시점에서는 활용 가능한 최신 정보인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하였음. 2022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고자 2022년 11월~2024년 3월 말까지의 신축아파트 현황으로 표본추출틀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에 활용함

➔ 표본규모

○ 표본크기는 전국 표본 61,000가구로 결정되었고, 표본조사구 수는 총 6,100개로 함(각 표본조사구에서 10가구를 조사함)

○ 각 시도별 표본크기는 시도별 가구수 분포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상대표준 오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정함

➔ 층화

○ 전국 17개 시도를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여 각 시도에서 세부 층화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층화한 후 조사구 특성(보통, 아파트, 신축아파트)에 따라 세부 층화

○ 수도권 이외 시도는 동부/읍면부로 층화한 후 조사구 특성(보통,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따라 세부 층화

➔ 표본배분

○ 각 시도에서 세부 지역층별 표본배분은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법 적용

○ 각 지역층에서 조사구 특성(보통, 아파트, 신축아파트) 층별로 표본배분은 조사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표본추출방법

○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함(1차추출단위: 조사구, 2차 추출단위: 가구)

- 표본조사구(PSU) 추출: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
- 표본가구(SSU) 추출: 표본조사구에서 임의의 시작가구부터 10가구를 계통추출

➔ 가중치 작성 절차

○ 조사결과의 가중치는 각 표본의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함

○ 가중치의 사후조정 과정에서는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4])를 활용하여 모집단 정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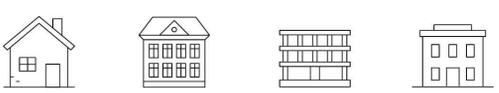
4) 표본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는 2022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2024년 조사 완료 후 가중치 작성 및 추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 정보는 2023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PART Ⅱ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Ⅱ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1. 주택 및 주거환경

1) 점유형태[5)]

○ 2024년 전국 기준 점유형태는 자가가구 58.4%, 임차가구 38.0%, 무상 가구가 3.6%로 나타남

-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는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고, 임차가구는 0.8%p 감소함
-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조사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임차 거주 가구는 조사 이후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로 점유형태를 보면 수도권(44.4%)이 임차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광역시 등(36.8%), 도지역(28.3%) 순임

- 수도권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52.7%로 가장 낮음
- 광역시 등에서는 자가거주 비율이 60.0%, 도지역에서는 66.5%로 가장 높음

표 Ⅱ-1. 지역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계
전국	2006	55.6	41.4	3.1	100.0
	2010	54.3	43.2	2.7	100.0
	2014	53.6	43.5	2.8	100.0
	2016	56.8	39.2	4.0	100.0
	2017	57.7	38.5	3.9	100.0
	2018	57.7	38.3	4.0	100.0
	2019	58.0	38.1	3.9	100.0
	2020	57.9	38.2	3.9	100.0
	2021	57.3	39.0	3.7	100.0
	2022	57.5	38.8	3.7	100.0
	2023	57.4	38.8	3.7	100.0
	2024	58.4	38.0	3.6	100.0
수도권	2006	50.2	47.7	2.0	100.0
	2010	46.6	51.5	1.8	100.0
	2014	45.9	52.1	2.0	100.0
	2016	48.9	47.3	3.7	100.0
	2017	49.7	46.6	3.7	100.0
	2018	49.9	46.5	3.7	100.0
	2019	50.0	46.4	3.7	100.0
	2020	49.8	46.6	3.7	100.0
	2021	51.3	45.7	2.9	100.0
	2022	51.9	45.2	2.9	100.0

5) 점유형태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 정보는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5년주기)가 유일하나 5년 단위로만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 중 자가점유 외 비율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므로 2021년 이후부터는 자가, 임차, 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단위: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계
	2023	51.9	45.2	2.9	100.0
	2024	52.7	44.4	2.8	100.0
광역시 등	2006	54.8	42.6	2.6	100.0
	2010	56.6	41.1	2.2	100.0
	2014	56.5	41.1	2.4	100.0
	2016	59.9	36.9	3.2	100.0
	2017	60.3	36.6	3.1	100.0
	2018	60.2	36.6	3.1	100.0
	2019	60.4	36.5	3.1	100.0
	2020	60.1	36.7	3.2	100.0
	2021	58.6	38.1	3.3	100.0
	2022	58.7	38.0	3.3	100.0
	2023	58.9	37.8	3.3	100.0
	2024	60.0	36.8	3.2	100.0
도지역	2006	63.8	31.3	4.9	100.0
	2010	64.2	31.7	4.2	100.0
	2014	63.8	31.8	4.4	100.0
	2016	66.7	28.1	5.1	100.0
	2017	68.1	27.1	4.8	100.0
	2018	68.3	26.8	4.9	100.0
	2019	68.8	26.5	4.8	100.0
	2020	69.2	26.1	4.8	100.0
	2021	65.9	28.8	5.3	100.0
	2022	65.6	29.1	5.4	100.0
	2023	65.4	29.3	5.4	100.0
	2024	66.5	28.3	5.2	100.0

주: 임차에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등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별로 임차가구 거주 비율을 보면 하위 가구가 48.0%로 가장 높고, 중위 가구 33.7%, 상위 가구 23.5% 순임

- 소득 하위 가구는 임차(48.0%)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비율(46.7%)보다 높음

표 II-2. 소득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계
하위	2006	49.7	46.2	4.1	100.0
	2010	46.9	49.5	3.7	100.0
	2014	47.5	48.2	4.2	100.0
	2016	46.2	48.2	5.6	100.0
	2017	47.5	47.3	5.1	100.0
	2018	47.2	47.3	5.4	100.0
	2019	46.4	47.6	5.9	100.0
	2020	45.4	48.5	6.0	100.0
	2021	44.8	49.5	5.7	100.0
	2022	45.8	48.5	5.7	100.0
	2023	45.5	48.5	6.0	100.0
	2024	46.7	48.0	5.3	100.0

(단위: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계
중위	2006	55.3	42.2	2.5	100.0
	2010	54.0	43.6	2.3	100.0
	2014	52.2	45.5	2.3	100.0
	2016	59.4	37.3	3.4	100.0
	2017	60.2	36.2	3.6	100.0
	2018	60.1	36.5	3.5	100.0
	2019	59.6	37.3	3.2	100.0
	2020	61.7	35.6	2.7	100.0
	2021	61.9	35.5	2.7	100.0
	2022	60.9	36.2	2.9	100.0
	2023	60.2	36.9	2.9	100.0
	2024	63.6	33.7	2.7	100.0
상위	2006	67.0	30.9	2.2	100.0
	2010	69.5	29.1	1.4	100.0
	2014	69.5	28.9	1.6	100.0
	2016	73.6	24.2	2.2	100.0
	2017	73.5	24.3	2.3	100.0
	2018	75.2	22.7	2.0	100.0
	2019	76.1	21.9	1.8	100.0
	2020	75.3	23.1	1.6	100.0
	2021	74.6	23.9	1.6	100.0
	2022	74.2	24.4	1.4	100.0
	2023	73.7	25.0	1.3	100.0
	2024	74.8	23.5	1.7	100.0

주: 임차에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등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주택유형

○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53.1%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28.4%, 다세대주택 9.1% 순임

- 주택유형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단독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0.6%p 감소했으며, 연립주택은 동일하며, 다세대주택은 0.2% 감소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비중이 53.5%, 단독주택이 20.5%, 다세대주택이 14.6% 순으로 많음

-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세대주택(14.6%)과 오피스텔(5.4%)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 광역시 등은 아파트 비율이 60.8%로 타지역에 비해 높고, 단독주택 26.3%, 다세대주택 5.8%, 오피스텔 3.2% 순임
- 도지역은 단독주택 비율이 42.4%로 타지역 대비 가장 높아 아파트(47.4%)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

표 II-3. 지역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소계	오피 스텔	기타	
전국	2006	44.5	41.8	3.3	7.4	1.8	1.3	1.0	0.3	100.0
	2010	40.4	47.1	4.5	5.6	1.0	1.3	1.1	0.3	100.0
	2014	37.5	49.6	3.4	6.2	1.0	2.2	1.9	0.3	100.0
	2016	35.3	48.1	2.2	8.9	1.7	3.7	3.1	0.6	100.0
	2017	34.3	48.6	2.2	9.2	1.6	4.0	1.9	2.1	100.0
	2018	33.3	49.2	2.2	9.3	1.7	4.4	2.2	2.2	100.0
	2019	32.1	50.1	2.2	9.4	1.6	4.6	2.3	2.3	100.0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소계	오피 스텔	기타	
	2020	31.0	51.1	2.1	9.4	1.6	4.8	2.6	2.1	100.0
	2021	30.4	51.5	2.1	9.3	1.5	5.2	3.0	2.2	100.0
	2022	29.6	51.9	2.1	9.3	1.5	5.6	3.3	2.2	100.0
	2023	29.0	52.4	2.1	9.3	1.4	5.8	3.5	2.2	100.0
	2024	28.4	53.1	2.1	9.1	1.4	5.8	3.7	2.2	100.0
수도권	2006	36.3	44.0	5.1	11.0	1.5	2.2	1.9	0.3	100.0
	2010	33.4	48.3	6.4	8.7	1.1	2.2	1.7	0.4	100.0
	2014	30.6	50.8	5.0	9.3	0.8	3.6	3.0	0.6	100.0
	2016	27.3	49.3	2.6	14.2	0.5	6.1	5.2	0.9	100.0
	2017	26.4	49.7	2.6	14.8	1.6	5.0	2.8	2.1	100.0
	2018	25.3	49.9	2.5	15.0	1.6	5.7	3.4	2.3	100.0
	2019	24.2	50.7	2.5	15.2	1.5	5.9	3.5	2.4	100.0
	2020	23.1	51.7	2.4	15.1	1.5	6.2	4.0	2.2	100.0
	2021	22.4	52.0	2.4	14.9	1.4	6.9	4.6	2.3	100.0
	2022	21.7	52.3	2.3	14.9	1.4	7.3	5.0	2.3	100.0
	2023	21.2	52.6	2.3	14.9	1.4	7.6	5.2	2.3	100.0
	2024	20.5	53.5	2.3	14.6	1.4	7.7	5.4	2.3	100.0
광역시 등	2006	43.1	45.6	1.5	7.3	1.8	0.7	0.5	0.2	100.0
	2010	37.9	53.0	2.8	4.5	1.2	0.6	0.5	0.1	100.0
	2014	35.9	55.4	2.1	4.6	1.2	0.9	0.8	0.0	100.0
	2016	33.3	54.4	1.5	6.1	2.4	2.2	1.7	0.5	100.0
	2017	32.4	55.4	1.5	6.2	1.5	3.0	1.7	1.4	100.0
	2018	31.2	56.6	1.5	6.1	1.5	3.1	1.7	1.4	100.0
	2019	30.0	57.7	1.5	6.0	1.5	3.3	1.8	1.5	100.0
	2020	29.0	58.7	1.5	5.9	1.5	3.4	2.1	1.3	100.0
	2021	28.4	59.1	1.4	5.9	1.4	3.8	2.4	1.4	100.0
	2022	27.7	59.5	1.4	5.9	1.4	4.1	2.7	1.4	100.0
	2023	26.9	60.2	1.4	5.8	1.3	4.4	3.0	1.4	100.0
	2024	26.3	60.8	1.4	5.8	1.3	4.5	3.2	1.3	100.0
도지역	2006	57.3	36.1	2.0	2.2	2.2	0.4	0.0	0.3	100.0
	2010	52.4	41.4	2.9	1.7	1.0	0.6	0.5	0.2	100.0
	2014	49.4	44.0	1.7	2.6	1.3	1.0	0.8	0.1	100.0
	2016	48.6	42.4	2.1	2.7	3.1	1.1	0.8	0.3	100.0
	2017	47.4	42.9	2.2	2.7	1.8	3.1	0.7	2.4	100.0
	2018	46.9	43.2	2.2	2.7	1.9	3.1	0.7	2.5	100.0
	2019	45.8	44.2	2.2	2.7	1.8	3.5	0.8	2.7	100.0
	2020	44.8	45.3	2.2	2.6	1.8	3.3	0.8	2.5	100.0
	2021	44.2	45.9	2.2	2.6	1.7	3.5	0.9	2.6	100.0
	2022	43.3	46.5	2.2	2.6	1.7	3.7	1.1	2.6	100.0
	2023	42.9	46.9	2.2	2.6	1.7	3.8	1.2	2.6	100.0
	2024	42.4	47.4	2.2	2.6	1.6	3.7	1.2	2.5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별 주택유형은 소득 하위 가구는 여전히 단독주택의 비율이 42.6%로 가장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은 35.7%로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기타 유형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4.3%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음

○ 소득 중·상위 가구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임

- 소득 중위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61.1%,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10.2%로 타소득계층 대비 가장 높음
- 소득 상위 가구의 76.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다른 계층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 소득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소계	오피 스텔	기타	
하위	2006	62.3	24.2	3.4	6.6	2.1	1.5	1.0	0.5	100.0
	2010	59.9	26.9	4.9	5.6	1.1	1.7	1.1	0.6	100.0
	2014	57.6	29.6	3.3	6.1	1.2	2.3	1.5	0.8	100.0
	2016	53.1	28.7	2.4	8.8	1.9	5.1	3.8	1.3	100.0
	2017	51.8	28.1	2.2	9.3	2.1	6.5	1.9	4.6	100.0
	2018	50.6	29.5	2.3	8.7	2.0	6.9	2.6	4.3	100.0
	2019	50.4	29.1	2.3	8.9	2.2	7.1	2.7	4.5	100.0
	2020	47.3	31.6	2.3	9.7	1.5	7.6	3.6	4.0	100.0
	2021	45.1	33.5	2.1	9.3	2.0	8.0	3.9	4.2	100.0
	2022	46.0	33.2	2.1	9.1	1.7	7.8	3.7	4.2	100.0
	2023	44.5	33.7	2.3	9.3	1.5	8.7	4.3	4.4	100.0
	2024	42.6	35.7	2.3	9.1	1.6	8.6	4.3	4.3	100.0
중위	2006	36.0	48.5	3.8	8.4	1.9	1.4	1.3	0.1	100.0
	2010	33.5	53.1	4.9	6.2	1.0	1.2	1.1	0.2	100.0
	2014	30.9	54.7	4.0	7.2	1.1	2.2	2.1	0.1	100.0
	2016	26.6	55.5	2.3	10.3	1.8	3.5	3.3	0.2	100.0
	2017	26.0	56.8	2.5	10.7	1.4	2.7	2.1	0.6	100.0
	2018	25.4	56.4	2.4	11.1	1.4	3.3	2.3	1.0	100.0
	2019	25.0	56.2	2.4	11.2	1.4	3.8	2.6	1.2	100.0
	2020	24.4	57.8	2.4	10.1	1.9	3.4	2.3	1.1	100.0
	2021	23.5	58.2	2.3	10.6	1.3	4.1	3.0	1.1	100.0
	2022	21.5	58.8	2.2	10.9	1.4	5.2	4.0	1.2	100.0
	2023	22.6	57.4	2.2	11.0	1.7	5.1	3.9	1.2	100.0
	2024	20.8	61.1	2.1	10.2	1.2	4.5	3.9	0.7	100.0
상위	2006	23.0	65.3	2.8	7.1	1.0	0.8	0.7	0.1	100.0
	2010	18.8	72.4	2.8	4.0	1.1	1.0	1.0	0.0	100.0
	2014	14.7	76.2	2.2	4.0	0.7	2.2	2.1	0.1	100.0
	2016	14.7	74.5	1.8	6.4	1.1	1.4	1.2	0.2	100.0
	2017	15.0	74.5	1.8	6.2	1.2	1.4	1.4	0.0	100.0
	2018	14.5	74.7	1.6	6.6	1.3	1.3	1.0	0.3	100.0
	2019	13.1	76.6	1.4	6.2	1.0	1.6	1.0	0.6	100.0
	2020	11.9	77.5	1.5	6.4	1.1	1.7	1.2	0.5	100.0
	2021	13.7	76.0	1.8	6.2	0.9	1.5	1.1	0.4	100.0
	2022	11.9	76.8	1.9	6.7	1.0	1.7	1.3	0.4	100.0
	2023	13.2	76.8	1.5	6.0	0.8	1.8	1.5	0.3	100.0
	2024	11.5	76.7	1.7	6.8	1.1	2.1	1.9	0.2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현재주택 상태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택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함

- 아파트 거주 가구는 내부 방음상태(층간소음)에 대한 평가가 2.96점으로 여전히 가장 낮음
-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모든 항목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특히 주택 외부 소음은 3점 이하임)
- 연립주택 거주 가구는 집의 구조물, 방수상태, 난방상태, 방음상태,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항목에서 3점 미만의 평가를 받음
- 다세대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는 방음상태에서만 3점 미만의 평가를 받음

표 II-5. 주택유형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방범 상태	위생 상태
								외부	내부				
주택 유형	단독 주택	2014	2.92	2.83	2.97	2.99	2.95	2.78		2.97	2.82	-	-
		2016	2.94	2.89	2.99	3.02	2.96	2.81		3.03	2.99	2.97	-
		2017	2.95	2.92	2.94	3.04	2.99	2.87		3.03	2.98	2.98	2.96
		2018	2.95	2.92	2.92	3.01	2.97	2.81		2.99	2.94	2.95	2.96
		2019	2.99	2.98	2.95	3.07	3.04	2.92	-	3.03	2.97	2.99	2.99
		2020	2.98	2.99	2.98	3.10	3.09	2.92	-	3.04	2.99	3.00	2.97
		2021	3.05	3.03	3.01	3.15	3.12	2.94	-	3.05	3.01	3.02	3.00
		2022	3.02	3.00	3.02	3.13	3.11	2.91	-	3.04	2.99	3.02	2.99
		2023	3.02	3.02	2.97	3.12	3.08	2.96	-	3.05	3.01	3.03	3.01
		2024	3.02	3.03	3.01	3.14	3.13	2.98	-	3.06	3.03	3.04	3.03
	아파트	2014	3.27	3.19	3.35	3.40	3.36	2.67		3.30	3.24	-	-
		2016	3.29	3.26	3.36	3.41	3.39	2.81		3.37	3.34	3.34	-
		2017	3.29	3.30	3.36	3.43	3.41	2.91		3.34	3.33	3.35	3.32
		2018	3.31	3.30	3.35	3.42	3.40	2.90		3.32	3.31	3.32	3.30
		2019	3.36	3.35	3.40	3.46	3.45	3.10	2.89	3.35	3.35	3.36	3.34
		2020	3.35	3.34	3.39	3.46	3.45	3.09	2.85	3.35	3.34	3.35	3.32
		2021	3.37	3.35	3.38	3.46	3.45	3.12	2.84	3.33	3.32	3.35	3.33
		2022	3.34	3.33	3.41	3.49	3.48	3.10	2.85	3.34	3.33	3.36	3.32
		2023	3.33	3.35	3.37	3.46	3.44	3.18	2.92	3.32	3.32	3.35	3.33
		2024	3.33	3.35	3.37	3.46	3.44	3.17	2.96	3.33	3.32	3.33	3.31
	연립 주택	2014	2.90	2.76	3.04	3.06	2.96	2.50		2.96	2.79	-	-
		2016	2.89	2.84	3.01	3.06	2.96	2.57		2.96	2.88	2.90	-
		2017	2.79	2.79	2.92	3.04	3.00	2.65		2.94	2.91	2.92	2.91
		2018	2.92	2.90	2.99	3.08	3.03	2.65		2.97	2.93	2.95	2.94
		2019	2.95	2.94	2.98	3.09	3.02	2.83	2.68	3.01	2.95	2.96	2.98
		2020	2.90	2.92	3.01	3.07	3.08	2.86	2.68	2.99	2.90	2.93	2.91
		2021	3.03	3.03	3.05	3.16	3.14	2.89	2.75	3.08	3.04	3.05	3.03
		2022	3.02	3.05	3.09	3.20	3.15	2.87	2.73	3.04	2.98	3.02	3.05
		2023	2.96	2.92	2.98	3.07	3.04	2.88	2.72	2.99	2.95	3.00	3.00
		2024	2.95	2.95	2.98	3.12	3.07	2.93	2.77	3.05	2.99	3.01	3.01
주택 유형	다세대 주택	2014	2.99	2.87	3.09	3.04	2.92	2.49		2.99	2.86	-	-
		2016	2.93	2.89	3.09	3.01	2.92	2.58		2.99	2.94	2.95	-
		2017	2.95	2.91	3.01	3.03	2.94	2.65		3.01	2.97	2.97	2.95

(단위: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방범 상태	위생 상태
							외부	내부				
		2018	3.02	3.01	3.06	3.08	2.98	2.72		3.05	3.01	3.00	3.02
		2019	3.14	3.11	3.18	3.16	3.04	2.87	2.78	3.12	3.08	3.10	3.10
		2020	3.11	3.06	3.15	3.17	3.07	2.84	2.70	3.14	3.08	3.08	3.08
		2021	3.08	3.08	3.12	3.16	3.06	2.85	2.68	3.03	3.01	3.04	3.04
		2022	3.12	3.14	3.20	3.21	3.10	2.88	2.79	3.10	3.06	3.11	3.09
		2023	3.06	3.10	3.09	3.12	3.03	2.86	2.70	3.04	3.01	3.01	3.02
		2024	3.11	3.16	3.15	3.18	3.15	2.93	2.84	3.08	3.05	3.08	3.1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14	3.03	3.00	3.01	3.08	3.00	2.78		3.00	2.84	-	-
		2016	2.79	2.76	2.91	3.01	3.07	2.86		3.01	2.96	2.95	-
		2017	2.93	2.92	2.92	2.95	2.90	2.69		3.05	3.01	3.02	2.93
		2018	2.87	2.84	2.85	2.86	2.85	2.68		2.90	2.89	2.91	2.84
		2019	3.00	3.03	2.93	3.02	2.94	2.58	-	3.04	2.99	2.98	3.01
		2020	3.08	3.14	3.05	3.22	3.17	2.92	-	3.08	3.09	3.05	3.07
		2021	2.94	2.97	2.93	2.94	2.86	2.73	-	2.97	2.82	2.89	2.89
		2022	2.98	3.01	2.91	2.98	3.02	2.68	-	3.00	2.88	2.94	2.92
		2023	2.98	2.94	2.92	3.01	2.98	2.69	-	3.04	3.00	3.07	3.03
		2024	2.98	2.95	2.93	3.03	2.98	2.70	-	3.01	2.90	2.95	2.97
	주택 이외의 거처	2014	3.38	3.30	3.27	3.02	3.08	2.61		3.16	3.06	-	-
		2016	3.39	3.42	3.43	3.22	3.23	2.90		3.37	3.32	3.38	-
		2017	3.00	3.06	2.96	2.81	2.80	2.57		2.90	2.88	2.92	2.88
		2018	3.07	3.06	2.99	2.82	2.80	2.55		2.91	2.86	2.90	2.96
		2019	3.19	3.22	3.14	2.89	2.83	2.74	2.84	3.04	3.00	3.07	3.10
		2020	3.17	3.18	3.10	2.95	2.89	2.83	2.80	3.08	3.01	3.05	3.05
		2021	3.22	3.19	3.13	3.04	2.99	2.86	2.88	3.07	3.05	3.08	3.10
		2022	3.26	3.26	3.22	3.07	3.00	2.86	3.01	3.15	3.10	3.15	3.15
		2023	3.29	3.32	3.23	3.08	3.01	2.99	2.96	3.17	3.15	3.17	3.18
		2024	3.22	3.25	3.21	3.09	3.05	2.93	2.97	3.15	3.08	3.14	3.16

주: 현재주택 상태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2024년 기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지역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수도권은 9.0년, 광역시 등은 7.3년, 도지역은 6.7년 순임
- 지역별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0.1년, 광역시 등은 0.1년, 도지역은 0.2년 증가했음

표 II-6. 지역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추이

(단위: %, 년)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소요연수
전국	2006	32.1	9.9	20.9	17.5	7.0	12.7	100.0	8.1
	2010	29.8	10.4	22.2	17.5	9.3	10.8	100.0	8.5
	2014	42.8	8.6	18.9	13.6	6.7	9.3	100.0	6.9
	2016	43.0	9.4	19.6	13.1	6.3	8.5	100.0	6.7
	2017	42.6	8.8	19.5	13.5	6.9	8.8	100.0	6.8
	2018	41.3	9.0	19.8	13.3	7.3	9.3	100.0	7.1
	2019	41.8	8.8	20.6	13.2	6.5	8.9	100.0	6.9
	2020	40.4	7.5	19.4	14.2	7.7	10.8	100.0	7.7
	2021	39.6	8.0	19.0	14.6	8.2	10.5	100.0	7.7
	2022	40.3	8.1	19.5	14.5	7.4	10.1	100.0	7.4
	2023	39.5	7.7	19.3	14.7	7.8	10.8	100.0	7.7
	2024	39.1	7.5	19.3	15.1	8.0	11.1	100.	7.9
수도권	2006	30.8	11.0	22.1	18.0	6.4	11.7	100.0	7.9
	2010	24.4	12.2	24.1	18.5	9.0	11.9	100.0	9.0
	2014	38.5	9.6	20.0	14.6	7.7	9.6	100.0	7.4
	2016	37.3	11.0	22.3	14.5	6.1	8.8	100.0	7.2
	2017	38.3	9.4	21.3	14.4	7.3	9.2	100.0	7.3
	2018	36.8	10.0	21.1	14.2	7.9	10.0	100.0	7.6
	2019	36.9	9.4	22.9	14.7	6.7	9.3	100.0	7.4
	2020	35.1	7.6	21.3	15.4	8.6	12.0	100.0	8.4
	2021	32.9	7.8	19.3	16.5	10.2	13.3	100.0	9.0
	2022	34.7	8.3	20.7	15.8	8.8	11.8	100.0	8.3
	2023	32.6	7.8	20.7	16.6	9.5	12.8	100.0	8.9
	2024	31.7	8.0	20.8	17.3	9.6	12.6	100.0	9.0
광역시 등	2006	27.8	9.8	22.0	19.7	7.3	13.5	100.0	8.6
	2010	25.0	10.4	24.7	19.1	9.7	11.1	100.0	8.9
	2014	40.8	9.0	20.1	13.6	7.3	9.2	100.0	7.1
	2016	39.3	8.8	21.2	13.8	7.2	9.7	100.0	7.4
	2017	39.7	9.1	20.2	14.0	7.5	9.4	100.0	7.3
	2018	38.0	9.6	22.0	14.0	7.2	9.2	100.0	7.3
	2019	40.1	9.1	21.0	13.5	7.3	9.0	100.0	7.1
	2020	37.8	7.5	18.9	15.4	8.2	12.2	100.0	8.2
	2021	40.6	8.8	19.7	15.0	6.7	9.2	100.0	7.2
	2022	41.1	8.8	20.1	14.6	6.6	8.9	100.0	7.0
	2023	40.4	8.5	20.0	14.5	7.3	9.3	100.0	7.2
	2024	40.6	7.9	20.2	14.7	6.8	9.8	100.0	7.3
도지역	2006	36.5	8.4	18.6	15.6	7.5	13.5	100.0	8.0
	2010	39.5	8.1	18.4	15.3	9.5	9.2	100.0	7.5
	2014	49.3	7.3	16.7	12.4	5.2	9.1	100.0	6.3
	2016	52.3	7.7	15.4	11.0	6.0	7.5	100.0	5.8
	2017	49.6	7.8	16.7	12.0	6.0	7.9	100.0	6.1
	2018	49.0	7.3	16.8	11.8	6.6	8.4	100.0	6.3
	2019	48.8	7.9	17.6	11.3	5.8	8.5	100.0	6.2
	2020	48.2	7.4	17.3	12.2	6.4	8.5	100.0	6.4
	2021	47.5	7.9	18.2	12.0	6.5	7.9	100.0	6.3
	2022	47.1	7.5	17.7	12.8	6.1	8.8	100.0	6.5
	2023	47.8	7.3	17.2	12.4	6.0	9.3	100.0	6.5
	2024	47.9	6.6	16.7	12.4	6.7	9.8	100.0	6.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소득 하위 가구가 8.0년으로 가장 길고, 중위 가구는 7.9년, 상위 가구는 7.7년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고가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 평균 소요연수는 유사하지만 소요연수를 기간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함

- 소득 하위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20년 이상 소요된 가구의 비율이 14.4%인 반면, 소득 상위 가구는 8.3%임

표 II-7. 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추이

(단위: %, 년)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소요연수
하위	2006	32.5	5.5	14.4	17.3	8.3	22.0	100.0	10.3
	2010	35.3	5.0	14.1	15.3	11.3	19.1	100.0	10.3
	2014	49.6	4.5	10.6	12.2	7.0	16.1	100.0	8.1
	2016	48.5	5.2	13.0	11.5	7.1	14.7	100.0	7.9
	2017	49.4	4.6	12.2	12.4	7.2	14.3	100.0	7.7
	2018	48.6	4.5	12.3	12.1	7.8	14.7	100.0	7.9
	2019	49.5	4.6	12.6	11.9	7.1	14.2	100.0	7.7
	2020	47.2	4.2	12.4	12.4	8.0	15.8	100.0	8.4
	2021	47.1	4.2	13.1	13.2	8.1	14.2	100.0	8.1
	2022	48.2	4.4	12.9	13.0	7.7	13.8	100.0	7.9
	2023	48.0	4.1	13.4	12.6	7.1	14.8	100.0	8.1
	2024	48.0	4.1	12.7	13.0	7.8	14.4	100.0	8.0
중위	2006	30.9	11.0	23.5	19.0	7.0	8.5	100.0	7.3
	2010	27.2	11.8	24.4	19.2	9.0	8.5	100.0	8.1
	2014	41.1	9.5	20.9	14.6	6.8	7.2	100.0	6.5
	2016	42.2	10.3	21.0	14.1	6.3	6.0	100.0	6.2
	2017	40.6	9.9	21.7	13.8	7.2	6.8	100.0	6.5
	2018	39.1	10.4	22.1	14.1	7.0	7.3	100.0	6.8
	2019	40.0	9.4	23.0	13.7	6.4	7.5	100.0	6.7
	2020	38.8	8.7	21.3	14.3	7.9	9.1	100.0	7.4
	2021	37.7	9.4	21.0	15.0	8.0	8.9	100.0	7.4
	2022	37.6	9.1	21.8	14.8	7.4	9.2	100.0	7.3
	2023	37.5	8.9	20.8	15.2	8.2	9.3	100.0	7.5
	2024	35.4	8.8	21.9	15.8	8.3	9.9	100.0	7.9
상위	2006	33.4	14.2	26.5	16.0	4.7	5.2	100.0	6.1
	2010	27.9	14.7	28.4	17.1	7.4	4.7	100.0	7.0
	2014	37.3	12.6	25.6	13.8	6.2	4.4	100.0	6.1
	2016	37.2	13.5	26.1	13.8	5.2	4.2	100.0	6.0
	2017	36.9	12.4	25.5	14.5	6.1	4.7	100.0	6.2
	2018	35.7	12.3	25.6	13.8	7.0	5.7	100.0	6.5
	2019	35.9	12.7	26.0	13.9	6.2	5.4	100.0	6.4
	2020	34.2	10.0	24.8	16.2	7.3	7.4	100.0	7.3
	2021	33.3	10.3	23.2	15.8	8.8	8.6	100.0	7.6
	2022	34.7	11.1	24.6	15.8	7.0	6.9	100.0	7.0
	2023	32.5	9.9	24.3	16.4	8.2	8.8	100.0	7.8
	2024	32.4	9.9	24.5	16.9	7.9	8.3	100.0	7.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6)]

○ 2024년 기준 자가가구의 PIR은 중위수 기준으로 6.3배로 전년과 동일함

- 평균 기준 자가가구 PIR은 8.1배로 2023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 중위수 기준으로 수도권과 도지역 PIR은 증가하였고, 광역시 등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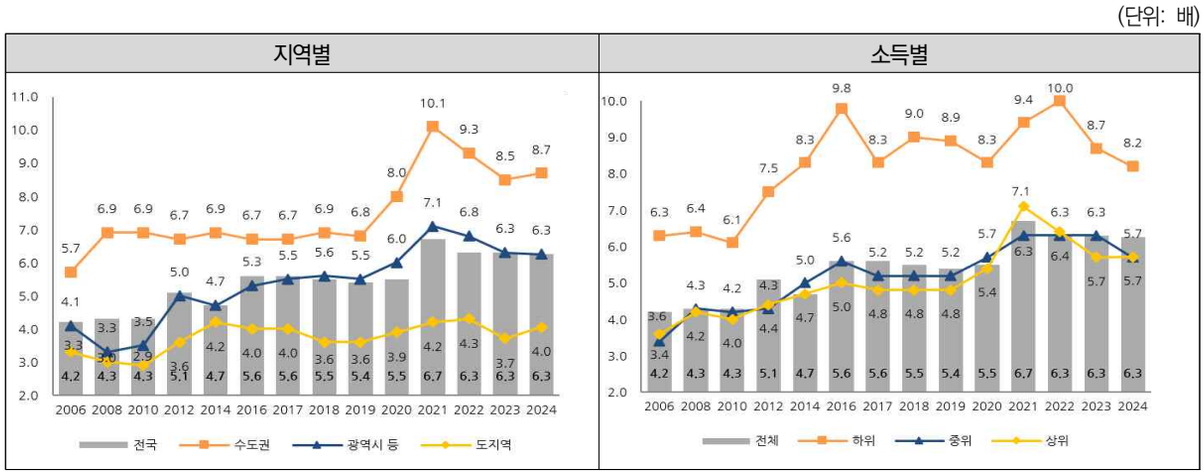
- 수도권은 8.7배로 전년 대비(8.5배) 증가하였으며, 도지역도 4.0배로 전년(3.7배) 대비 증가함

○ 소득별 중위수 PIR은 소득 하위가구와 중위 가구는 감소하였고, 상위 가구는 동일함

- 소득 하위 가구의 자가가구 PIR은 8.2배로 전년(8.7배) 대비 감소하였고, 중위 가구는 5.7배로 전년(6.3배) 대비 감소하였으며, 상위 가구는 5.7배로 전년과 동일함

그림 II-1.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단위: 배)



주: PIR 산정시 현재 주택가격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조사기준 년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6) PIR 및 RIR 산정방식

○ PIR 산정방식

$$PIR_t = \frac{median(P_{j,t})}{median(I_{j,t})} \text{ or } \frac{mean(P_{j,t})}{mean(I_{j,t})}$$

$P_{j,t}$는 t 시점, j 가구의 현재주택가격, $I_{j,t}$는 j 가구의 연소득

○ RIR 산정방식

$$RIR_t = \frac{median(R_{j,t})}{median(I_{j,t})} \text{ or } \frac{mean(R_{j,t})}{mean(I_{j,t})}$$

$R_{j,t}$는 t 시점, j 가구의 월임대료(보증금은 월세이율 적용), $I_{j,t}$는 j 가구의 월소득

○ PIR 및 RIR 산정방식의 장점

- 위의 PIR 및 RIR 산정방식은 통계적 측면에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이며, 국제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임
  - OECD, UN HABITAT, PUP(Performance Urban Planning), NUMBEO등에서 위의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가격과 소득을 하나의 표본조사를 통해 공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PIR 및 RIR 산정시 위의 방안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료: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p.97 인용

표 II-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단위: 배)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중위수	4.2	4.3	4.7	5.6	5.6	5.5	5.4	5.5	6.7	6.3	6.3	6.3
		평균	6.0	5.6	5.7	6.3	6.4	6.7	6.8	7.3	8.9	9.1	8.1	8.1
지역	수도권	중위수	5.7	6.9	6.9	6.7	6.7	6.9	6.8	8.0	10.1	9.3	8.5	8.7
		평균	8.1	7.9	7.1	7.6	7.9	8.6	9.0	9.6	11.7	12.0	10.7	10.7
	광역시 등	중위수	4.1	3.5	4.7	5.3	5.5	5.6	5.5	6.0	7.1	6.8	6.3	6.3
		평균	4.2	4.1	5.1	5.7	5.8	6.2	6.2	6.8	8.1	8.2	7.3	7.0
	도지역	중위수	3.3	2.9	4.2	4.0	4.0	3.6	3.6	3.9	4.2	4.3	3.7	4.0
		평균	3.4	3.1	4.1	4.7	4.5	4.5	4.3	4.5	5.0	5.1	4.6	4.7
소득	하위	중위수	6.3	6.1	8.3	9.8	8.3	9.0	8.9	8.3	9.4	10.0	8.7	8.2
		평균	10.9	9.2	11.2	11.6	11.1	12.0	12.3	11.7	14.1	14.9	13.2	12.2
	중위	중위수	3.4	4.2	5.0	5.6	5.2	5.2	5.2	5.7	6.3	6.3	6.3	5.7
		평균	5.4	5.7	5.8	6.2	6.2	6.4	6.5	6.7	8.4	8.6	7.7	7.6
	상위	중위수	3.6	4.0	4.7	5.0	4.8	4.8	4.8	5.4	7.1	6.4	5.7	5.7
		평균	5.3	4.7	4.5	5.0	5.3	5.7	5.8	6.6	8.1	7.9	7.2	7.3

주: PIR 산정시 현재 주택가격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조사기준 연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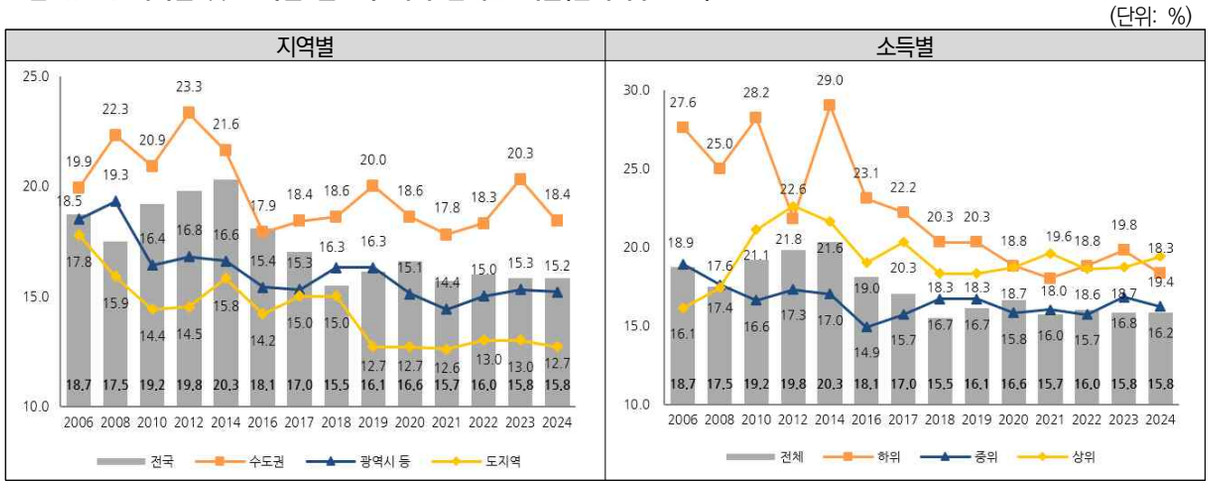
3)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2024년 전국 중위수 기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5.8%로 전년과 동일함

- 평균 기준 RIR은 21.9%로 중위수에 비해 높게 산정되었으며, 전년(22.7%) 대비 하락함

그림 II-2. 지역별 및 소득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단위: %)



주: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 11.88%에서 2010년 11.52%,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 2020년 5.70%, 2021년 5.60%, 2022년 5.80%, 2023년 6.10%, 2024년 5.90%를 적용함[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7) 연도별 월세이율(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2006.10, 2008.10, 2010.08 ;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 2012.07, 2014.08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6.08, 2017.08, 2018.09, 2019.09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09, 2021.09, 2022.09, 2023.09, 2024.09)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월세이율	연	11.88	11.76	11.52	10.44	9.36	6.70	6.40	6.20	6.10	5.70	5.60	5.80	6.10	5.90
	월	0.99	0.98	0.96	0.87	0.78	0.56	0.53	0.52	0.51	0.48	0.47	0.48	0.51	0.49

○ 지역별로 중위수 기준 RIR을 비교하면,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이 15.2%, 도지역이 12.7%로 나타남

- 수도권의 RIR은 18.4%로 전년(20.3%) 대비 1.9%p 하락했으며, 광역시 등은 2023년 15.3%에서 0.1%p 하락한 15.2%임
- 도지역의 RIR은 12.7%로 전년(13.0%) 대비 0.3%p 하락하여 중위수 RIR은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하락함

○ 지역별 평균 기준 RIR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하락, 도지역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은 24.9%로 전년(26.3%) 대비 1.4%p 하락했고, 광역시 등은 18.3%로 0.6%p 하락함
- 도지역은 15.5%로 전년도 RIR인 15.2%에 비해 0.3%p 상승함

○ 소득별 중위수 기준 RIR은 소득 상위 가구가 19.4%로 가장 높고, 하위 가구는 18.3%, 중위 가구 16.2% 순임

- 소득 하위 가구의 RIR은 전년(19.8%) 대비 1.5%p 감소했고, 중위 가구도 0.6%p 감소했지만, 상위 가구는 전년(18.7%) 대비 0.7%p 증가함

○ 소득별 평균 기준 RIR은 소득 상위 가구 24.1%, 하위 가구 22.1%, 중위 가구 20.2% 순임

- 소득 하위 가구 RIR은 2.2%p 감소했고, 중위 가구도 전년 대비 1.2%p 감소함
- 소득 상위 가구는 2023년 23.4%에서 0.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II-9.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중위수	18.7	19.2	20.3	18.1	17.0	15.5	16.1	16.6	15.7	16.0	15.8	15.8
		평균	22.9	23.1	24.2	21.4	21.8	21.1	21.3	20.9	21.5	21.8	22.7	21.9
지역	수도권	중위수	19.9	20.9	21.6	17.9	18.4	18.6	20.0	18.6	17.8	18.3	20.3	18.4
		평균	25.3	26.4	27.4	24.6	24.7	24.0	24.6	23.7	24.7	24.8	26.3	24.9
	광역시 등	중위수	18.5	16.4	16.6	15.4	15.3	16.3	16.3	15.1	14.4	15.0	15.3	15.2
		평균	20.1	19.4	20.5	16.9	17.5	17.6	17.7	17.9	18.0	18.7	18.9	18.3
	도지역	중위수	17.8	14.4	15.8	14.2	15.0	15.0	12.7	12.7	12.6	13.0	13.0	12.7
		평균	18.5	16.2	17.3	15.1	15.9	15.4	14.6	14.6	14.8	15.4	15.2	15.5
소득	하위	중위수	27.6	28.2	29.0	23.1	22.2	20.3	20.3	18.8	18.0	18.8	19.8	18.3
		평균	36.3	31.1	34.1	26.7	26.3	25.8	26.2	23.3	23.1	24.4	24.3	22.1
	중위	중위수	18.9	16.6	17.0	14.9	15.7	16.7	16.7	15.8	16.0	15.7	16.8	16.2
		평균	20.7	21.4	23.1	18.9	19.2	18.8	19.2	18.7	19.6	20.1	21.4	20.2
	상위	중위수	16.1	21.1	21.6	19.0	20.3	18.3	18.3	18.7	19.6	18.6	18.7	19.4
		평균	18.5	21.0	21.2	20.6	21.9	20.8	21.1	22.0	23.5	21.9	23.4	24.1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2024년 기준 전체가구에게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의 부담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7.3%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46.0%가 조금 부담된다고 응답함

-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전년(65.1%) 대비 1.8%p 감소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64.1%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광역시 등이 63.7%, 도지역이 61.2%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수도권은 2023년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 69.4%에 비해 5.3%p 감소했으며, 광역시 등은 0.3%p 증가했고, 도지역에서는 부담된다고 느낀 비율이 3.9%p 증가함

표 II-10.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전체		2016	25.9	40.6	13.7	1.9	18.0	100.0
		2017	24.8	41.2	12.4	2.0	19.6	100.0
		2018	25.5	45.2	10.4	1.0	17.8	100.0
		2019	19.2	45.8	15.7	1.8	17.6	100.0
		2020	19.6	44.3	15.8	1.7	18.6	100.0
		2021	17.2	44.6	16.8	1.8	19.5	100.0
		2022	18.3	46.4	14.1	1.3	19.8	100.0
		2023	18.8	46.3	13.7	1.0	20.2	100.0
		2024	17.3	46.0	15.8	1.1	19.7	100.0
지역	수도권	2016	29.4	41.6	13.0	1.0	15.0	100.0
		2017	27.2	41.0	13.1	2.0	16.6	100.0
		2018	27.4	45.0	11.6	1.0	14.9	100.0
		2019	20.2	46.3	17.1	1.8	14.6	100.0
		2020	22.8	43.7	16.6	1.9	15.1	100.0
		2021	18.7	44.4	17.8	1.6	17.5	100.0
		2022	20.1	46.5	14.2	1.4	17.8	100.0
		2023	21.8	47.6	11.7	0.6	18.3	100.0
		2024	18.3	45.8	16.5	0.9	18.5	100.0
	광역시 등	2016	25.4	36.7	14.1	3.4	20.3	100.0
		2017	24.2	40.9	10.1	2.2	22.6	100.0
		2018	25.5	44.2	8.6	1.5	20.2	100.0
		2019	17.9	44.3	14.9	2.1	20.9	100.0
		2020	15.3	45.9	15.0	1.0	22.8	100.0
		2021	16.3	45.8	14.0	2.5	21.4	100.0
		2022	16.8	46.0	13.1	1.5	22.6	100.0
		2023	17.4	46.0	13.8	0.9	21.8	100.0
		2024	15.8	47.9	13.7	1.4	21.2	100.0
	도지역	2016	19.7	41.7	14.6	2.3	21.8	100.0
		2017	20.3	41.7	12.9	1.8	23.3	100.0
		2018	21.7	46.4	9.5	0.7	21.7	100.0
		2019	18.1	46.1	13.3	1.6	20.8	100.0
		2020	16.6	44.1	14.7	2.0	22.5	100.0
		2021	14.5	44.2	17.0	1.7	22.6	100.0
		2022	15.9	46.7	14.9	0.8	21.7	100.0
		2023	13.5	43.8	17.9	2.0	22.8	100.0
		2024	16.4	44.8	16.1	1.4	21.3	100.0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소득	하위	2016	33.9	39.5	11.7	1.4	13.4	100.0
		2017	29.8	42.2	11.1	2.3	14.6	100.0
		2018	30.5	45.1	9.9	1.2	13.4	100.0
		2019	22.0	45.3	16.3	2.7	13.6	100.0
		2020	23.0	44.4	16.1	2.1	14.5	100.0
		2021	21.0	44.3	17.2	2.9	14.6	100.0
		2022	21.1	47.7	15.2	1.2	14.9	100.0
		2023	19.8	49.0	15.6	1.6	14.0	100.0
		2024	17.5	47.8	18.8	1.5	14.4	100.0
	중위	2016	23.8	41.8	14.1	2.0	18.4	100.0
		2017	23.0	42.2	12.7	1.5	20.6	100.0
		2018	23.4	47.1	10.4	0.9	18.2	100.0
		2019	18.4	47.9	15.3	1.3	17.1	100.0
		2020	18.9	45.3	15.1	1.7	19.4	100.0
		2021	15.4	46.2	16.3	1.2	20.9	100.0
		2022	17.4	46.9	13.9	1.2	20.6	100.0
		2023	18.2	47.6	13.0	0.8	20.4	100.0
		2024	17.2	46.1	13.5	0.8	22.4	100.0
	상위	2016	15.2	40.4	16.5	2.6	25.3	100.0
		2017	18.6	37.5	14.1	2.6	27.2	100.0
		2018	20.4	41.3	11.2	1.0	26.0	100.0
		2019	16.2	42.1	15.1	1.3	25.2	100.0
		2020	15.6	43.5	15.0	1.7	24.2	100.0
		2021	12.8	42.1	17.2	1.2	26.7	100.0
		2022	15.9	43.4	12.6	1.2	26.8	100.0
		2023	16.2	40.2	12.7	0.6	30.2	100.0
		2024	16.9	42.3	13.9	0.9	26.1	100.0

주1: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
주2: '해당없음'은 대출금이 없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없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주택마련 당시 대출받은 가구의 금융기관 대출금 비율은 전국 기준 37.2%로 나타났으며, 매년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보임

- 현재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은 전국 기준 27.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0.2%p)

○ 지역별로 LTV를 보면 도지역이 41.8%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 38.2%, 수도권 34.3% 순임

표 II-11. 지역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단위: %)

구분		LTV1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2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3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4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전국	2006	36.5(16.4)	37.3(18.2)	27.7(12.4)	28.3(13.4)
	2010	38.1(16.8)	39.7(19.3)	27.7(12.2)	28.9(13.9)
	2014	37.1(16.1)	37.5(16.8)	28.4(12.3)	28.6(12.7)
	2016	37.8(18.9)	38.2(19.5)	28.8(14.4)	29.1(14.8)
	2017	38.2(17.9)	38.4(18.4)	28.9(13.6)	29.1(13.9)
	2018	37.8(18.6)	38.0(18.9)	29.4(14.4)	29.5(14.6)
	2019	38.1(19.4)	38.2(19.6)	30.3(15.4)	30.4(15.6)

(단위: %)

구분		LTV1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2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3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4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2020	37.2(20.5)	37.5(20.7)	28.3(15.6)	28.5(15.8)
	2021	36.8(20.8)	36.9(21.0)	24.6(13.9)	24.7(14.0)
	2022	37.2(20.7)	37.4(20.9)	24.5(13.7)	24.7(13.8)
	2023	37.2(19.2)	37.3(19.4)	26.9(13.9)	27.0(14.0)
	2024	37.2(18.8)	37.3(19.1)	27.1(13.7)	27.2(13.1)
수도권	2006	35.7(18.5)	36.4(19.7)	26.4(13.7)	26.9(14.3)
	2010	37.4(19.2)	39.0(21.5)	24.6(12.7)	25.6(14.0)
	2014	35.8(16.8)	36.2(17.4)	28.5(13.4)	28.8(13.7)
	2016	36.9(19.7)	37.1(20.0)	28.4(15.1)	28.5(15.3)
	2017	37.1(19.5)	37.3(20.0)	28.2(14.9)	28.4(15.2)
	2018	37.0(19.9)	37.2(20.1)	28.4(15.2)	28.5(15.4)
	2019	36.5(20.6)	36.6(20.9)	28.1(15.9)	28.2(16.1)
	2020	36.1(22.6)	36.3(22.8)	25.9(16.2)	26.2(16.4)
	2021	34.9(22.2)	35.0(22.4)	21.4(13.6)	21.5(13.7)
	2022	35.8(22.4)	36.0(22.7)	21.5(13.5)	21.6(13.6)
	2023	34.8(19.7)	34.9(19.9)	23.6(13.3)	23.7(13.5)
	2024	34.3(19.3)	34.4(19.7)	22.9(12.9)	23.0(13.2)
광역시 등	2006	34.5(15.3)	35.2(17.0)	27.0(12.0)	27.5(13.0)
	2010	36.8(16.5)	38.2(19.6)	29.4(13.2)	30.6(15.6)
	2014	36.3(15.1)	36.6(15.7)	27.4(11.4)	27.6(11.8)
	2016	37.9(19.4)	38.3(20.0)	27.9(14.3)	28.3(14.7)
	2017	37.5(17.5)	37.6(17.9)	27.4(12.8)	27.5(13.0)
	2018	35.8(17.2)	35.9(17.5)	26.4(12.7)	26.5(12.9)
	2019	37.6(19.3)	37.7(19.4)	28.7(14.7)	28.8(14.8)
	2020	36.2(18.9)	36.4(19.1))	26.5(13.8)	26.5(14.0)
	2021	37.1(20.5)	37.2(20.7)	24.2(13.4)	24.3(13.5)
	2022	35.9(19.6)	36.0(19.9)	23.6(12.9)	23.7(13.6)
	2023	37.7(19.5)	37.8(19.7)	27.4(14.2)	27.5(14.3)
	2024	38.2(19.5)	38.4(19.8)	28.9(14.7)	29.1(15.0)
도지역	2006	39.3(14.3)	40.5(17.0)	30.3(11.0)	31.3(12.6)
	2010	40.2(14.3)	42.0(16.7)	31.4(11.1)	32.9(12.9)
	2014	39.6(15.9)	40.0(16.7)	28.8(11.6)	29.1(12.0)
	2016	39.2(17.4)	40.0(18.6)	30.2(13.4)	30.8(14.1)
	2017	40.5(16.1)	40.9(16.7)	31.3(12.4)	31.6(12.8)
	2018	40.6(17.8)	40.8(18.3)	33.2(14.6)	33.3(14.8)
	2019	41.1(17.9)	41.2(18.2)	35.2(15.3)	35.3(15.5)
	2020	39.9(19.0)	40.1(19.2)	33.7(16.0)	33.8(16.2)
	2021	40.1(19.1)	40.2(19.4)	30.8(14.7)	30.9(14.9)
	2022	40.7(19.1)	40.8(19.3)	30.7(14.4)	31.1(14.6)
	2023	40.9(18.3)	40.9(18.5)	32.3(14.5)	32.4(14.6)
	2024	41.8(17.6)	41.9(17.8)	33.6(14.1)	33.7(14.3)

주1: LTV1 = 금융기관대출액/주택 구입가격, LTV2 =(금융기관대출액+개인대출액)/주택 구입가격
LTV3 = 금융기관대출액/현재 주택가격, LTV4 =(금융기관대출액+개인대출액)/현재 주택가격
주2: ( ) 안은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했을 경우의 LTV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별 구입당시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소득 중위 가구의 LTV1은 37.8%로 가장 높고, 하위 가구 36.8%, 상위 가구 36.5% 순임
- 현재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3)은 중위 가구가 28.6%로 가장 높고, 상위 가구 26.7%, 하위 가구 24.1% 순임

표 II-12. 소득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단위: %)

구분		LTV1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2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3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LTV4 대출 받은 가구 (전체 가구)
하위	2006	38.1(13.1)	39.2(15.7)	27.9(9.6)	29.0(11.0)
	2010	39.1(10.5)	41.5(13.3)	26.9(7.2)	28.7(9.0)
	2014	38.2(10.6)	39.1(11.7)	25.2(7.0)	25.8(7.6)
	2016	38.5(12.8)	38.9(13.7)	26.0(8.6)	26.3(9.0)
	2017	37.7(11.8)	38.2(12.6)	25.0(7.8)	25.4(8.3)
	2018	37.2(12.1)	37.5(12.6)	25.2(8.2)	25.4(8.5)
	2019	37.5(11.9)	37.9(12.4)	25.8(8.2)	26.0(8.4)
	2020	36.5(13.1)	36.7(13.4)	25.2(9.0)	25.4(9.2)
	2021	36.5(13.7)	36.6(14.0)	23.0(8.7)	23.1(8.8)
	2022	37.2(13.3)	37.4(13.7)	22.6(8.1)	23.2(8.5)
	2023	36.4(11.5)	36.5(11.7)	23.1(7.3)	23.1(7.4)
	2024	36.8(12.3)	37.0(12.7)	24.1(8.0)	24.2(8.3)
중위	2006	36.8(19.6)	37.6(21.0)	28.8(15.3)	29.4(16.2)
	2010	38.5(19.4)	39.8(21.9)	28.4(14.3)	29.4(16.1)
	2014	37.8(18.3)	38.1(18.8)	29.5(14.3)	30.0(14.6)
	2016	38.6(21.2)	39.2(21.9)	30.4(16.7)	30.8(17.2)
	2017	38.6(19.9)	38.9(20.2)	30.0(15.4)	30.1(15.7)
	2018	38.6(20.3)	38.7(20.6)	31.1(16.4)	31.2(16.6)
	2019	38.8(21.5)	38.8(21.7)	32.0(17.8)	32.1(17.9)
	2020	37.8(22.0)	38.0(22.0)	29.9(17.7)	30.1(17.0)
	2021	37.8(23.1)	37.9(23.3)	26.2(15.9)	26.2(16.1)
	2022	37.9(22.8)	38.0(23.0)	25.9(15.5)	25.9(15.6)
	2023	37.8(20.9)	38.0(21.1)	28.5(15.8)	28.6(15.9)
	2024	37.8(20.2)	37.9(20.5)	28.6(15.3)	28.7(15.5)
상위	2006	34.3(16.1)	34.9(17.5)	25.4(11.9)	25.8(12.7)
	2010	36.8(20.1)	38.4(22.2)	27.0(14.8)	28.2(16.3)
	2014	35.2(17.7)	35.6(18.2)	28.2(14.2)	28.5(14.5)
	2016	36.3(21.4)	36.4(21.7)	28.1(16.5)	28.2(16.7)
	2017	37.7(20.9)	37.8(21.3)	29.5(16.3)	29.6(16.6)
	2018	37.1(21.6)	37.2(21.8)	29.1(16.9)	29.1(17.0)
	2019	37.2(22.1)	37.4(22.3)	29.7(17.6)	29.8(17.8)
	2020	36.8(24.1)	37.0(24.3)	27.7(18.1)	27.9(18.4)
	2021	35.1(23.6)	35.2(23.8)	22.7(15.3)	22.8(15.4)
	2022	36.2(24.3)	36.4(24.6)	23.7(15.9)	23.8(16.0)
	2023	36.8(23.2)	36.9(23.3)	26.5(16.7)	26.6(16.8)
	2024	36.5(23.2)	36.6(23.4)	26.7(16.9)	26.8(17.1)

주1: LTV1 = 금융기관대출액/주택 구입가격, LTV2 =(금융기관대출액+개인대출액)/주택 구입가격
LTV3 = 금융기관대출액/현재주택가격, LTV4 =(금융기관대출액+개인대출액)/현재주택가격
주2: ( ) 안은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했을 경우의 LTV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주거이동

1) 주거이동률

➔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 대비 1.9%p 감소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 29.4%, 도지역 26.0% 순으로 수도권의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의 주거이동률이 34.3%로 가장 높고, 중위 가구 28.5%, 상위 가구 24.6%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이동률이 낮음

표 II-13. 지역별·소득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7.5	35.2	36.6	36.9	35.9	36.4	36.4	37.2	37.2	33.7	32.2	30.3
지역별	수도권	44.4	40.1	40.3	40.9	40.0	40.6	40.3	41.9	41.0	36.8	35.5	33.4
	광역시 등	34.5	33.9	35.1	37.1	35.2	35.5	35.5	36.1	37.5	33.4	31.4	29.4
	도지역	29.4	28.8	32.0	30.8	30.3	30.6	30.9	30.5	31.0	28.9	27.4	26.0
소득별	하위	33.4	32.3	32.6	34.8	35.7	35.2	36.6	37.6	39.5	35.4	35.1	34.3
	중위	41.8	37.6	40.7	39.7	37.5	38.6	38.2	38.1	37.4	33.8	31.7	28.5
	상위	39.4	34.9	34.3	35.9	33.5	34.0	32.0	35.0	31.6	30.0	27.2	24.6

주: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경우 주거이동이 있었다고 간주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47.2%로 가장 높았으며, '직주근접'이 30.6%로 두 번째로 높음

- '교통의 편리 등' 25.5%, '이미 분양받은 주택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가 25.2%, 순으로 나타남
- 비자발적 이사 중에서는 '계약 만기(18.1%)'가 가장 높았으며, '집값 혹은 집세가 부담(8.3%)',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3.7%)'도 주된 이유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계약만기'로 이사한 비율이 2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도지역은 직주근접(33.8%), 부모·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9.0%)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임

표 II-14. 지역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이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47.2	44.8	50.5	49.4
직주근접(직장, 학교 등)·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30.6	28.7	30.9	33.8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5.5	25.0	28.1	24.8
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25.2	25.3	26.8	23.8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20.3	18.7	21.6	22.5
계약 만기로 인해서	18.1	23.1	14.0	11.9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8.3	10.7	6.2	5.5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8.1	7.3	8.6	9.0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3.7	4.1	4.2	2.6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3.3	1.6	1.4	7.7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3.0	3.1	2.9	2.8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2.9	3.6	2.1	2.1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2.5	2.8	1.7	2.6
기타	1.4	1.3	1.1	1.6
계	200.0	200.0	200.0	200.0

주1: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주2: 복수응답(2개 응답)으로 비율의 합계가 200%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2) 직전주택과 현재주택 점유형태

○ 이사를 경험한 가구에 대하여 직전주택과 현재주택의 점유형태를 비교함

- 자가에서 자가로 이동한 비율은 25.0%이며, 자가에서 전세로 이동한 비율은 2.4%, 자가에서 월세로 이동한 비율은 1.7%임
-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한 비율은 25.7%로 가장 많으며,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한 비율은 12.4%임
- 월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비율은 17.6%이며, 월세에서 자가로는 2.6%, 월세에서 전세로는 2.4% 이동함

○ 지역별로 보면 점유형태별 주거이동의 상황에 차이가 있음

- 수도권에서는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한 비율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이 17.8%, 자가에서 자가가 19.9%,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이 17.2%로 나타남
- 광역시 등에서는 자가를 유지한 비율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에서 자가로의 이동이 22.4%, 월세를 유지한 비율이 18.8% 순으로 많음
- 도지역은 자가에서 자가로 이동한 비율이 31.0%로 가장 높고,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한 가구가 22.3%, 월세에를 유지한 가구가 16.5%, 전세를 유지한 가구의 비율이 6.0% 순으로 나타남

표 II-15. 직전주택과 현재주택 점유형태 비교

(단위: %)

구분			현재주택				
			자가	전세	월세	무상	합계
직전주택	전국	자가	25.0	2.4	1.7	0.6	29.7
		전세	25.7	12.4	3.4	0.8	42.4
		월세	2.6	2.4	17.6	0.6	23.3
		무상	1.8	0.5	1.5	0.9	4.6
	수도권	자가	19.9	2.1	1.2	0.2	23.4
		전세	28.7	17.2	3.8	0.8	50.5
		월세	1.6	2.7	17.8	0.4	22.6
		무상	1.2	0.5	1.3	0.5	3.5
	광역시 등	자가	30.6	3.0	2.5	0.8	36.9
		전세	22.4	8.5	3.2	0.6	34.6
		월세	2.6	2.3	18.8	0.6	24.2
		무상	1.8	0.5	1.4	0.5	4.2
	도지역	자가	31.0	2.4	2.1	1.3	36.8
		전세	22.3	6.0	2.9	0.9	32.0
		월세	4.5	2.0	16.5	1.1	24.0
		무상	2.9	0.6	1.9	1.7	7.1

주: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3) 이사계획

➔ 이사계획

○ 향후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5.6%이며, 2년 이내에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2.7%, 2~5년 이내에 계획이 있는 가구는 2.0%임

-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거주 가구의 6.6%가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광역시 등은 4.7%, 도지역은 4.5%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2년 이내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광역시 등은 2.9%, 수도권 2.8%, 도지역 2.5%로 응답함

○ 반대로, 이사할 계획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도지역이 89.4%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 86.9%, 수도권 79.5% 순으로 높음

표 II-16. 지역별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단위: %)

구분			계획이 있음				계획이 없음	잘 모르겠음	계
				2년 미만	2~5년	5년 초과			
전체		2014	16.4	9.3	5.7	1.4	72.5	11.1	100.0
		2016	13.2	7.7	4.2	1.2	76.8	10.0	100.0
		2017	11.4	6.5	4.0	0.9	78.7	9.8	100.0
		2018	9.7	5.6	3.5	0.7	80.8	9.4	100.0
		2019	8.9	5.2	3.1	0.7	80.0	11.1	100.0
		2020	9.0	4.7	3.4	0.9	80.7	10.3	100.0
		2021	7.9	3.7	3.4	0.8	79.7	12.4	100.0
		2022	6.7	3.4	2.7	0.6	83.4	9.9	100.0
		2023	6.2	3.1	2.3	0.8	85.4	8.5	100.0
		2024	5.6	2.7	2.0	0.8	84.0	10.6	
지역	수도권	2014	20.8	11.8	7.4	1.7	63.0	16.2	100.0
		2016	16.0	9.3	5.5	1.2	70.1	13.9	100.0
		2017	15.6	8.8	5.6	1.2	72.1	12.3	100.0
		2018	13.1	7.4	4.9	0.9	75.5	11.4	100.0
		2019	11.7	6.7	4.0	0.9	75.3	13.1	100.0
		2020	11.0	5.8	4.1	1.1	75.1	13.9	100.0
		2021	10.4	4.1	4.9	1.4	72.9	16.6	100.0
		2022	8.3	4.0	3.5	0.8	78.5	13.2	100.0
		2023	7.5	3.1	3.1	1.2	81.0	11.5	100.0
		2024	6.6	2.8	2.6	1.2	79.5	13.9	100.0
	광역시 등	2014	12.1	6.7	4.2	1.2	83.6	4.3	100.0
		2016	11.2	6.8	3.1	1.3	83.3	5.5	100.0
		2017	7.7	4.9	2.4	0.5	82.7	9.5	100.0
		2018	7.3	4.2	2.6	0.5	83.3	9.5	100.0
		2019	8.3	4.9	2.7	0.7	81.2	10.5	100.0
		2020	8.7	4.1	3.9	0.7	83.3	8.0	100.0
		2021	6.4	3.6	2.5	0.2	84.1	9.5	100.0
		2022	5.8	3.0	2.4	0.5	87.0	7.2	100.0
		2023	5.4	3.4	1.6	0.3	88.4	6.1	100.0
		2024	4.7	2.9	1.4	0.5	86.9	8.3	100.0
	도지역	2014	12.4	7.2	4.1	1.1	80.0	7.6	100.0
		2016	10.2	6.0	2.9	1.3	82.8	7.1	100.0
		2017	7.5	4.1	2.7	0.7	86.3	6.2	100.0
		2018	6.0	3.6	1.8	0.6	87.5	6.5	100.0
		2019	5.2	3.0	1.7	0.4	86.5	8.3	100.0
		2020	5.9	3.3	2.0	0.6	87.9	6.3	100.0
		2021	5.0	3.0	1.7	0.3	87.5	7.5	100.0
		2022	4.8	2.9	1.6	0.4	88.9	6.3	100.0
		2023	4.6	2.9	1.4	0.4	90.3	5.0	100.0
		2024	4.5	2.5	1.5	0.5	89.4	6.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이사계획 이유

○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 중, 5년 이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를 질문함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의 편리 등(29.1%)', '직주근접(27.9%)', '내 집 마련을 위해(19.0%)' 순으로 응답함

○ 지역별 이사계획 이유를 보면 지역별 특성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에서는 '계약만기로 인해서'가 20.9%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집값 혹은 집세가 비싸서'도 8.1%로 타지역에 비해 높음
- 광역시 등은 '내 집으로 이사'가 22.3%,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하는 비율이 10.3%,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비율도 4.4%로 타지역에 비해 높음
- 도지역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의 이사가 56.0%로 상대적으로 높고, '직주근접'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는 비율도 30.7%로 타지역 대비 가장 높음
- 집값이 높은 수도권과 입지 등의 이유로 이사하는 광역시와 도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II-17. 지역별 5년 내 이사계획 이유

(단위: %)

이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53.9	53.1	53.0	56.0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9.1	29.8	30.8	26.5
직주근접(직장, 학교 등)·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27.9	26.7	27.8	30.7
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19.0	17.5	22.3	20.2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17.7	17.1	18.0	18.8
계약 만기로 인해서	17.5	20.9	11.7	14.2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8.2	8.2	7.9	8.3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6.9	8.1	4.6	6.1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6.3	5.1	10.3	6.3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4.5	5.1	3.3	3.8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2.8	2.5	4.4	2.3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2.0	2.0	2.6	1.6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1.3	1.7	0.6	1.0
기타	2.7	2.2	2.6	4.0
계	200.0	200.0	200.0	200.0

주1: 이사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5년 내에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2: 복수응답(2개 응답)으로 비율의 합계가 200%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4) 주택보유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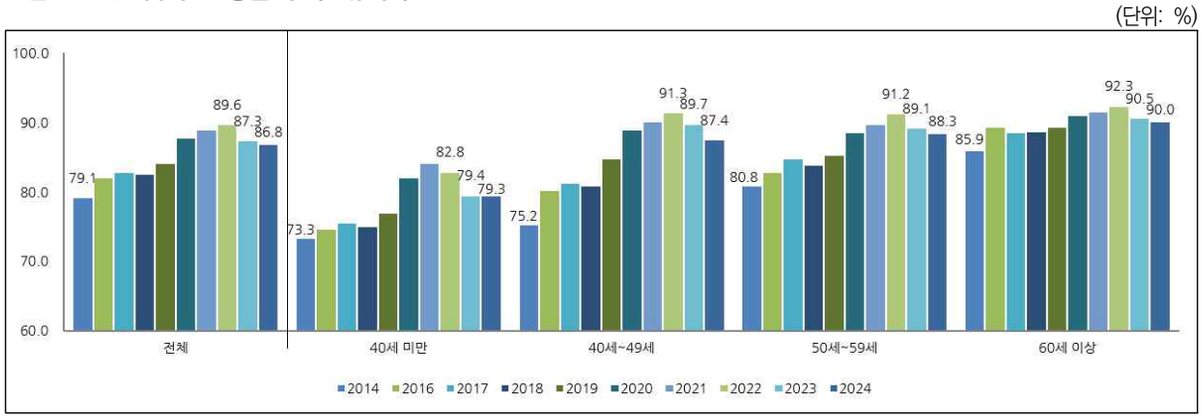
➲ 주택보유의식

○ 2024년 기준 주택을 꼭 보유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꼭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8%이며, 2022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도지역의 8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수도권 86.9%, 광역시 83.7% 순임
- 소득별로는 소득 상위 가구가 94.0%로 가장 높고, 중위 가구는 90.4%, 하위 가구는 80.4%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의 97.0%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세가구는 78.0%,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는 68.1%로 응답하여,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보유의식이 높음
- 가구주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으나,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3.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18. 주택보유의식

(단위: %)

구분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83.7	79.1	82.0	82.8	82.5	84.1	87.7	88.9	89.6	87.3	86.8
지역	수도권	81.8	73.5	76.4	79.7	81.5	82.9	87.4	87.5	89.3	86.9	86.9
	광역시 등	83.3	79.8	86.6	82.3	82.4	85.1	87.6	89.7	89.0	85.7	83.7
	도지역	86.6	87.3	87.5	87.8	84.2	85.4	88.2	90.5	90.6	89.0	88.5
소득	하위	83.9	77.9	78.1	78.5	77.2	78.2	82.3	83.1	83.8	80.0	80.4
	중위	83.4	79.1	83.6	84.7	84.3	85.9	90.1	91.8	92.7	90.4	90.4
	상위	83.8	81.7	86.9	87.7	89.5	91.4	93.7	94.5	95.2	94.1	94.0
점유형태	자가	89.6	90.4	93.6	93.7	93.8	94.7	96.2	97.1	97.9	97.6	97.0
	전세	77.2	64.0	70.1	72.0	73.4	75.8	82.0	84.1	84.4	80.7	78.0
	보증금 있는 월세	74.9	65.2	63.7	63.8	62.6	65.3	72.4	73.4	74.8	69.0	68.1
	보증금 없는 월세	78.6	74.5	61.0	66.8	61.3	60.5	67.4	68.2	67.1	59.3	64.4
	무상	81.5	80.4	74.2	74.3	69.6	74.7	78.4	83.3	81.7	77.2	79.1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79.9	73.3	74.6	75.4	75.0	76.9	82.0	84.1	82.8	79.4	79.3
	40세~49세	80.3	75.2	80.1	81.2	80.8	84.7	88.9	90.0	91.3	89.7	87.4
	50세~59세	85.1	80.8	82.7	84.7	83.8	85.2	88.5	89.6	91.2	89.1	88.3
	60세 이상	88.3	85.9	89.3	88.5	88.6	89.2	90.9	91.5	92.3	90.5	9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현재 가구의 주거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질문함

- 2024년 기준 38.2%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전년 대비 감소함

○ 소득별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각자의 주거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득 하위 가구의 38.4%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소득 중위 가구는 3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소득 상위 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가장 낮지만 37.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점유형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차가구로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이 높음

- 자가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2%로 상대적으로 낮음

-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60.1%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음

-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는 58.3%,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의 55.0%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I-19.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전체		38.2	61.8	100.0
소득	하위	38.4	61.6	100.0
	중위	38.7	61.3	100.0
	상위	37.5	62.5	100.0
점유형태	자가	25.2	74.8	100.0
	전세	60.1	39.9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58.3	41.7	100.0
	보증금 없는 월세	55.0	45.0	100.0
	무상	31.5	68.5	100.0

주: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질문함

- 전국 기준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2.0%로 가장 많이 필요로하고, 전세자금 대출지원 27.8%, 월세보조금 지원 12.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0.9% 순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순위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남

- 소득 하위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7.2%)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월세보조금 지원(21.3%),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7.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5.6%) 등 고르게 필요하다고 응답함
- 소득 중위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9.9%)이 가장 높고, 전세자금 대출지원(29.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8.9%), 월세보조금 지원(6.0%) 순임
- 소득 상위 가구의 절반이 넘는 50.2%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세자금 대출지원(27.2%), 주택개량개보수 지원(5.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4.2%), 공공분양주택 공급(4.1%) 순으로 응답함

○ 점유형태별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남

-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52.6% 필요로 하고, 주택개량·개보수 지원(16.7%)을 두 번째로 필요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지원(15.3%), 공공분양 주택공급(3.4%) 순으로 응답함
-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43.3%)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으며,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구입대출(28.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4%), 공공분양 주택공급(6.3%) 순임
-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2.3%), 월세보조금 지원(27.7%),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5.9%) 순으로 높음
-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월세 지원을 위한 월세보조금 지원(45.8%)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9.3%), 전세자금 대출지원(18.6%) 순으로 나타남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0.8%)을 가장 필요로 하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8.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I-20.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구분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상담·정보제공 등	기타	계
전체		12.2	27.8	32.0	10.9	7.2	4.0	4.6	1.4	0.0	100.0
소득	하위	21.3	27.2	17.1	15.6	9.0	3.8	4.7	1.3	0.0	100.0
	중위	6.0	29.1	39.9	8.9	5.7	4.3	4.6	1.4	0.0	100.0
	상위	3.2	27.2	50.2	4.2	5.8	3.5	4.1	1.7	-	100.0
점유형태	자가	2.1	15.3	52.6	5.2	16.7	2.6	3.4	2.2	0.0	100.0
	전세	3.8	43.3	28.2	11.4	0.9	5.1	6.3	0.9	-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27.7	32.3	12.5	15.9	0.8	4.8	5.1	0.8	-	100.0
	보증금 없는 월세	45.8	18.6	6.0	19.3	0.8	5.3	3.2	0.9	-	100.0
	무상	8.0	30.8	28.6	18.9	8.1	2.2	1.9	1.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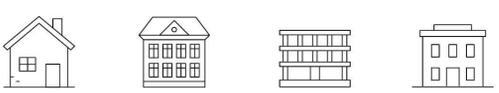
주1: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주2: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PART Ⅲ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시계열 추이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Ⅲ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시계열 추이

- 2024년도 주택정책 지표는 주택점유 안정성,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능력, 주택시장 접근성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12개 지표로 구성
  - 주택점유 안정성 지표는 자가보유율, 평균 거주기간, 주거환경 만족도 항목으로 구성
  - 주거수준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평균 주거면적,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항목으로 구성
  - 주거비 부담능력 지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주택가격 대비 주택대출금 비율(LTV) 항목으로 구성
  - 주택시장 접근성 지표는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주거이동률 항목으로 구성

2006~2010년 주택정책 지표	
양적지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질적지표	주택건축년도
	1인당 주거면적
	3인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주거 만족도
시장지표	PIR
	RIR
기타지표	평균 거주기간
	비자발적 이동 비율

⇒

2012년 주택정책 지표	
점유 안정성 지표	자가보유율
	평균 거주기간
	주거 만족도
	최초 주택마련까지의 이사횟수
주거수준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부담능력 지표	PIR
	RIR
	전세보증금 대비 전세자금 대출 비율
시장 접근성 지표	저렴주택 이용 접근성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주거이동률

⇒

2014~2024년 주택정책 지표	
점유 안정성 지표	자가보유율
	평균 거주기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수준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평균 주거면적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부담능력 지표	PIR
	RIR
	LTV
시장 접근성 지표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주거이동률

1.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

○ 2024년 전국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고, 조사 이후로 6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4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자가보유율을 보임

- 지역별 자가보유율은 도지역은 69.4%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로 나타남

- 수도권은 2014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광역시 등은 2016년부터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도지역은 2021년 감소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표 Ⅲ-1. 지역별 자가보유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61.0	60.3	58.0	59.9	61.1	61.1	61.2	60.6	60.6	61.3	60.7	61.4
수도권	56.8	54.6	51.4	52.7	54.2	54.2	54.1	53.0	54.7	55.8	55.1	55.6
광역시 등	59.3	61.2	59.9	63.1	63.1	63.0	62.8	62.2	62.0	62.8	62.3	63.5
도지역	68.1	68.3	66.8	68.9	70.3	70.3	71.2	71.4	69.0	69.1	68.6	69.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별 자가보유율은 소득 상위 가구가 79.3%, 중위 가구 67.3%, 하위 가구 48.5%로 나타남

- 소득 하위 가구는 감소 추세 이후 2024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중위 가구는 2014년 이후 증가추세, 상위 가구는 8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Ⅲ-2. 소득별 자가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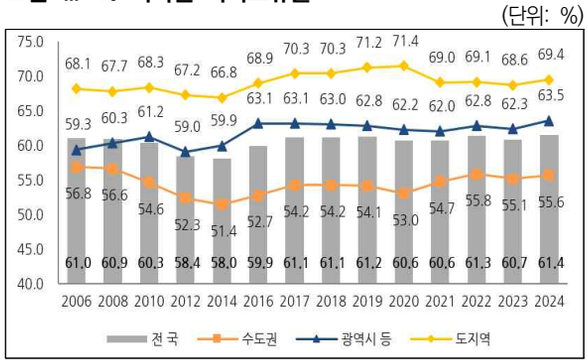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61.0	60.3	58.0	59.9	61.1	61.1	61.2	60.6	60.6	61.3	60.7	61.4
하위	52.6	49.4	50.0	48.5	49.3	48.8	48.2	46.9	46.8	47.8	47.3	48.5
중위	61.0	60.8	56.4	62.2	63.8	63.6	62.9	64.5	65.8	65.5	64.0	67.3
상위	76.8	80.8	77.7	79.3	79.9	81.5	81.9	80.2	79.3	80.5	78.3	79.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1. 지역별 자가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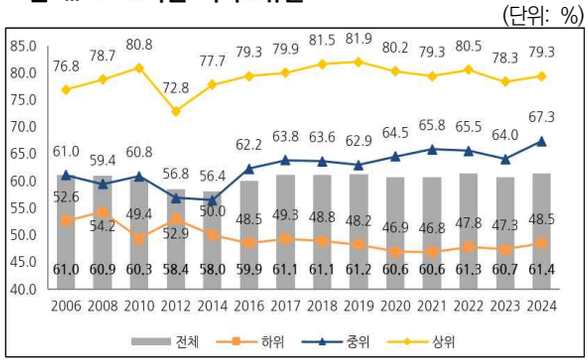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2 소득별 자가보유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4년 전국 자가점유율은 58.4%로 전년(57.4%) 대비 1%p 증가하였고, 2021년 감소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자가점유율은 도지역이 66.5%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 60.0%, 수도권 52.7%임
- 수도권은 2014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광역시 등은 2016년 이후 유사하고 도지역은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Ⅲ-3. 지역별 자가점유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55.6	54.3	53.6	56.8	57.7	57.7	58.0	57.9	57.3	57.5	57.4	58.4
수도권	50.2	46.6	45.9	48.9	49.7	49.9	50.0	49.8	51.3	51.9	51.9	52.7
광역시 등	54.8	56.6	56.5	59.9	60.3	60.2	60.4	60.1	58.6	58.7	58.9	60.0
도지역	63.8	64.2	63.8	66.7	68.1	68.3	68.8	69.2	65.9	65.6	65.4	66.5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별 자가점유율을 보면 하위 가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중·상위 가구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소득 하위 가구는 2017년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에서 2024년 증가하였으며, 중위 가구는 2016년부터 큰 등락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2024년 증가함
- 소득 상위 가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증가함

표 Ⅲ-4. 소득별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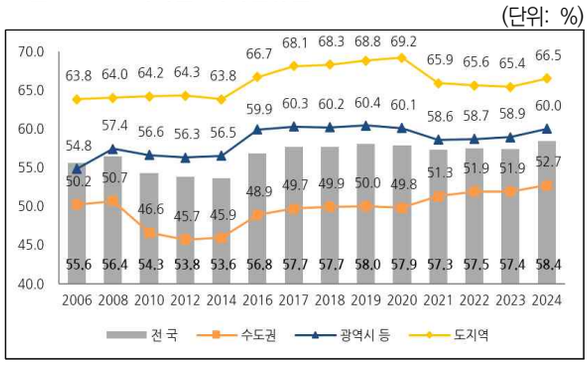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55.6	54.3	53.6	56.8	57.7	57.7	58.0	57.9	57.3	57.5	57.4	58.4
하위	49.7	46.9	47.5	46.2	47.5	47.2	46.4	45.4	44.8	45.8	45.5	46.7
중위	55.3	54.0	52.2	59.4	60.2	60.1	59.6	61.7	61.9	60.9	60.2	63.6
상위	67.0	69.5	69.5	73.6	73.5	75.2	76.1	75.3	74.6	74.2	73.7	74.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3. 지역별 자가점유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4. 소득별 자가점유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평균 거주기간

○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2024년 8.4년으로 조사 이후로 가장 긴 거주기간을 보임

-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10.4년으로 가장 길게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이 8.4년, 수도권이 7.1년임
- 수도권, 광역시 등은 조사 이후로 등락을 반복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도지역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중·상위 가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표 Ⅲ-5.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7.7	7.9	7.7	7.7	8.0	7.7	7.7	7.6	7.5	7.9	8.0	8.4
지역	수도권	5.3	6.2	6.4	6.4	6.7	6.3	6.3	6.1	6.0	6.6	6.6	7.1
	광역시 등	7.2	7.5	7.6	7.4	7.7	7.4	7.4	7.4	7.4	7.8	7.9	8.4
	도지역	11.3	10.6	10.0	9.9	10.3	10.2	10.0	10.0	9.7	10.0	10.1	10.4
소득	하위	10.3	10.3	10.1	9.3	9.7	9.6	9.5	9.1	8.8	9.3	9.3	9.3
	중위	5.8	6.6	6.5	6.6	6.8	6.5	6.5	6.6	6.6	6.9	7.1	7.7
	상위	5.5	6.2	6.4	6.7	7.0	6.7	6.8	6.4	6.6	6.9	7.3	7.6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주거환경 만족도

○ 2024년 주거환경만족도는 3.01점으로 전년(2.99점) 대비 0.02점 증가함

- 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가구가 3.13점, 중위 가구 3.04점, 하위 가구는 2.93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조사 이후로 소득 상위 가구의 점수 증가 폭이 가장 크며, 중위 가구, 하위 가구 순으로 증가함
- 점유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만족도 평가가 높으며, 전세가구가 3.04점으로 가장 높고, 자가가구 3.03점,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2.97점 순임

표 Ⅲ-6. 점유형태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2.86	2.84	2.86	2.93	2.97	2.94	2.94	2.97	2.96	2.96	2.99	3.01
소득	하위	2.83	2.78	2.78	2.86	2.88	2.86	2.86	2.90	2.89	2.89	2.91	2.93
	중위	2.86	2.84	2.87	2.94	2.99	2.96	2.96	2.97	2.97	2.98	2.99	3.04
	상위	2.93	2.98	3.00	3.05	3.09	3.06	3.07	3.10	3.09	3.07	3.10	3.13
점유형태	자가	2.91	2.92	2.91	2.97	3.00	2.97	2.97	3.00	2.99	2.99	3.01	3.03
	전세	2.81	2.78	2.83	2.90	2.96	2.93	2.95	2.98	2.97	2.96	2.98	3.04
	보증금 있는 월세	2.81 2.80	2.74 2.75	2.79 2.80	2.89 2.88	2.93 2.92	2.91 2.90	2.93 2.92	2.93 2.94	2.93 2.94	2.93 2.93	2.96 2.96	2.97 2.99
	보증금 없는 월세	2.68	2.61	2.69	2.75	2.71	2.72	2.76	2.84	2.83	2.84	2.86	2.83
	무상	2.79	2.80	2.76	2.86	2.92	2.81	2.82	2.84	2.80	2.83	2.90	2.92

주1: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주2: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기존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3.8%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세부기준별로 보면 면적기준이 2006년 8.0%에서 2022년 3% 미만 수준까지 낮아졌고, 시설기준도 2006년 9.9%에서 2024년 2.5% 미만까지 낮아짐
- 침실기준은 2006년에도 미달하는 비율이 높진 않았지만, 현재는 0.2%로 침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매우 낮은 비율임

표 Ⅲ-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6.6	10.6	5.4	5.4	5.9	5.7	5.3	4.6	4.5	3.9	3.6	3.8
면적	8.0	5.7	2.8	3.1	4.1	4.0	3.8	3.3	3.3	2.8	2.7	2.9
시설	9.9	5.6	2.9	2.6	3.3	3.1	3.0	2.8	2.7	2.6	2.3	2.4
침실	1.9	0.9	0.5	0.5	0.3	0.4	0.3	0.2	0.2	0.1	0.2	0.2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2024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6.0m^2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지역별로 2023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2m^2 감소하였으며, 광역시 등(1.1m^2)과 도지역(1.2m^2)은 증가함
-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는 41.5m^2로 전년 대비 0.4m^2 증가하였고, 중위 가구(1.1m^2)와 상위 가구(0.6m^2)는 감소함

표 Ⅲ-8.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26.2	28.5	33.5	33.2	31.2	31.7	32.9	33.9	33.9	34.8	36.0	36.0
지역	수도권	24.4	25.9	31.3	30.7	28.3	28.5	29.9	31.2	31.4	32.0	34.2	33.0
	광역시 등	24.0	28.3	34.5	33.2	32.0	32.5	33.3	34.7	33.9	35.3	35.6	36.7
	도지역	30.0	32.4	36.2	37.1	35.1	36.1	37.3	37.7	37.8	38.8	39.0	40.2
소득	하위	30.6	33.9	40.0	39.8	37.1	37.6	38.8	39.5	39.0	40.6	41.1	41.5
	중위	22.2	24.7	29.8	28.4	27.0	27.8	29.6	30.3	30.9	31.4	33.7	32.6
	상위	24.3	27.0	30.1	28.8	27.6	27.8	28.9	29.7	29.6	29.3	30.7	30.1

주: 2017년부터 공동주택 주거면적은 행정자료를 참고하여 집계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에 비해 주거면적이 작게 나타남(분양면적으로 응답 등 행정자료에 비해 응답자가 응답한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6.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2006년 4.0%에서 2024년 0.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광역시 등, 도지역에는 거의 없고 수도권에 대부분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써 지하·반지하·옥탑방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Ⅲ-9.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4.0	4.0	2.8	3.1	2.3	1.9	1.3	1.6	1.1	1.2	1.1	0.6
지역	수도권	7.5	7.3	5.6	6.3	4.6	3.9	2.7	3.1	2.3	2.4	2.2	1.3
	광역시 등	1.0	1.1	0.3	0.1	0.3	0.1	0.0	0.2	0.1	0.1	0.1	0.0
	도지역	0.8	0.8	0.1	0.2	0.2	0.1	0.0	0.1	0.1	0.0	0.1	0.0

주: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표본확보가 어려운 계층으로 실제 조사된 표본규모가 적어 통계적인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별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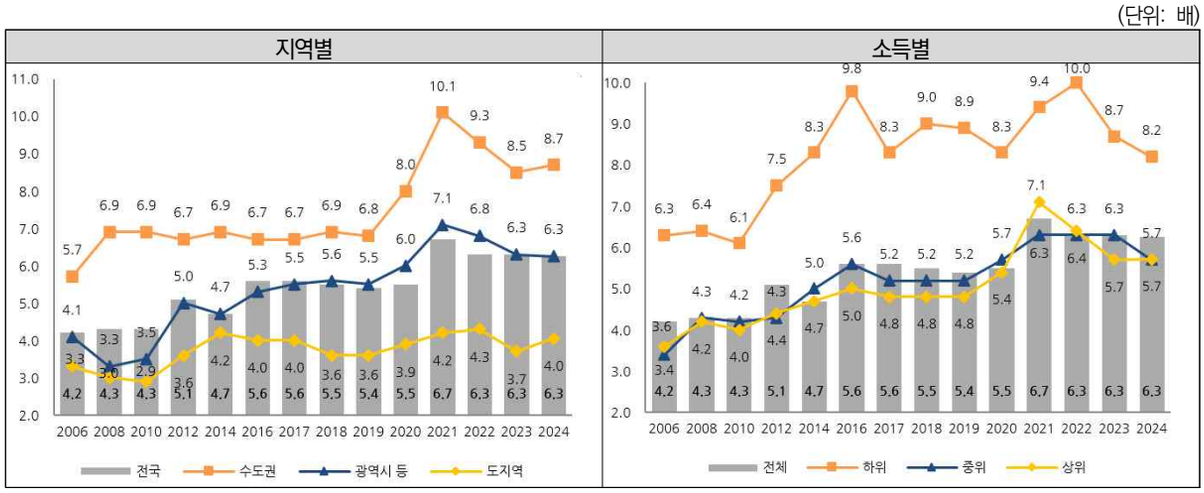
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 2024년 중위수 기준 자가가구 PIR은 6.3배로 2021년 이후 유사한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2021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지역은 약 4배 정도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는 등락을 보이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였고, 중위 가구는 증가추세 후 2024년 증가하였으며, 상위 가구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Ⅲ-5.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단위: 배)



주: PIR 산정시 현재 주택가격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조사기준 연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10.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단위: 배)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중위수	4.2	4.3	4.7	5.6	5.6	5.5	5.4	5.5	6.7	6.3	6.3	6.3
		평균	6.0	5.6	5.7	6.3	6.4	6.7	6.8	7.3	8.9	9.1	8.1	8.1
지역	수도권	중위수	5.7	6.9	6.9	6.7	6.7	6.9	6.8	8.0	10.1	9.3	8.5	8.7
		평균	8.1	7.9	7.1	7.6	7.9	8.6	9.0	9.6	11.7	12.0	10.7	10.7
	광역시 등	중위수	4.1	3.5	4.7	5.3	5.5	5.6	5.5	6.0	7.1	6.8	6.3	6.3
		평균	4.2	4.1	5.1	5.7	5.8	6.2	6.2	6.8	8.1	8.2	7.3	7.0
	도지역	중위수	3.3	2.9	4.2	4.0	4.0	3.6	3.6	3.9	4.2	4.3	3.7	4.0
		평균	3.4	3.1	4.1	4.7	4.5	4.5	4.3	4.5	5.0	5.1	4.6	4.7
소득	하위	중위수	6.3	6.1	8.3	9.8	8.3	9.0	8.9	8.3	9.4	10.0	8.7	8.2
		평균	10.9	9.2	11.2	11.6	11.1	12.0	12.3	11.7	14.1	14.9	13.2	12.2
	중위	중위수	3.4	4.2	5.0	5.6	5.2	5.2	5.2	5.7	6.3	6.3	6.3	5.7
		평균	5.4	5.7	5.8	6.2	6.2	6.4	6.5	6.7	8.4	8.6	7.7	7.6
	상위	중위수	3.6	4.0	4.7	5.0	4.8	4.8	4.8	5.4	7.1	6.4	5.7	5.7
		평균	5.3	4.7	4.5	5.0	5.3	5.7	5.8	6.6	8.1	7.9	7.2	7.3

주: PIR 산정시 현재 주택가격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조사기준 연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8.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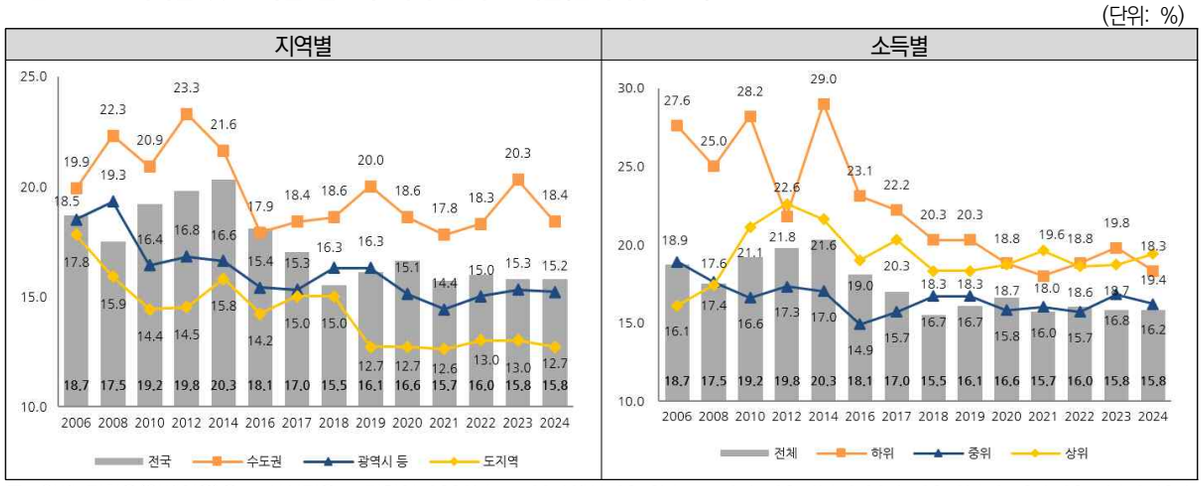
○ 중위수 기준 임차가구 RIR은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15.8%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등락을 보이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2006년 조사 이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는 큰 등락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위 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가구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Ⅲ-6. 지역별 및 소득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단위: %)



주: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 11.88%에서 2010년 11.52%,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 2020년 5.70%, 2021년 5.60%, 2022년 5.80%, 2023년 6.10%, 2024년 5.90%를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11.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중위수	18.7	19.2	20.3	18.1	17.0	15.5	16.1	16.6	15.7	16.0	15.8	15.8
		평균	22.9	23.1	24.2	21.4	21.8	21.1	21.3	20.9	21.5	21.8	22.7	21.9
지역	수도권	중위수	19.9	20.9	21.6	17.9	18.4	18.6	20.0	18.6	17.8	18.3	20.3	18.4
		평균	25.3	26.4	27.4	24.6	24.7	24.0	24.6	23.7	24.7	24.8	26.3	24.9
	광역시 등	중위수	18.5	16.4	16.6	15.4	15.3	16.3	16.3	15.1	14.4	15.0	15.3	15.2
		평균	20.1	19.4	20.5	16.9	17.5	17.6	17.7	17.9	18.0	18.7	18.9	18.3
	도지역	중위수	17.8	14.4	15.8	14.2	15.0	15.0	12.7	12.7	12.6	13.0	13.0	12.7
		평균	18.5	16.2	17.3	15.1	15.9	15.4	14.6	14.6	14.8	15.4	15.2	15.5
소득	하위	중위수	27.6	28.2	29.0	23.1	22.2	20.3	20.3	18.8	18.0	18.8	19.8	18.3
		평균	36.3	31.1	34.1	26.7	26.3	25.8	26.2	23.3	23.1	24.4	24.3	22.1
	중위	중위수	18.9	16.6	17.0	14.9	15.7	16.7	16.7	15.8	16.0	15.7	16.8	16.2
		평균	20.7	21.4	23.1	18.9	19.2	18.8	19.2	18.7	19.6	20.1	21.4	20.2
	상위	중위수	16.1	21.1	21.6	19.0	20.3	18.3	18.3	18.7	19.6	18.6	18.7	19.4
		평균	18.5	21.0	21.2	20.6	21.9	20.8	21.1	22.0	23.5	21.9	23.4	24.1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9. 주택가격 대비 주택대출금 비율(LTV)

○ 주택을 구입한 시점 당시 대출금 비율은 38%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주택 대비 대출금 비율은 가격의 증가로 낮은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의 LTV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광역시 등, 수도권 순으로 대출금 비율이 높아 도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이 LTV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잇음
- 소득별 LTV를 보면, 소득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조사 이후로 시간이 경과하며 그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현재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은 구입당시 대출금 비율과 비교하면 수도권이 광역시 등, 도지역의 차이와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12. 주택가격 대비 주택대출금 비율(LTV)

(단위: %)

구분		LTV1												LTV3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가가구 전체		36.5	38.1	37.1	37.8	38.2	37.8	38.1	37.2	36.8	37.2	37.2	37.2	27.7	27.7	28.4	28.8	28.9	29.4	30.3	28.3	24.6	24.5	26.9	27.1
지역	수도권	35.7	37.4	35.8	36.9	37.1	37.0	36.5	36.1	34.9	35.8	34.8	34.3	26.4	24.6	28.5	28.4	28.2	28.4	28.1	25.9	21.4	21.5	23.6	22.9
	광역시 등	34.5	36.8	36.3	37.9	37.5	35.8	37.6	36.2	37.1	35.9	37.7	38.2	27.0	29.4	27.4	27.9	27.4	26.4	28.7	26.5	24.2	23.6	27.4	28.9
	도지역	39.3	40.2	39.6	39.2	40.5	40.6	41.1	39.9	40.1	40.7	40.9	41.8	30.3	31.4	28.8	30.2	31.3	33.2	35.2	33.7	30.8	30.7	32.3	33.6
소득	하위	38.1	39.1	38.2	38.5	37.7	37.2	37.5	36.5	36.5	37.2	36.4	36.8	27.9	26.9	25.2	26.0	25.0	25.2	25.8	25.2	23.0	22.6	23.1	24.1
	중위	36.8	38.5	37.8	38.6	38.6	38.6	38.8	37.8	37.8	37.9	37.8	37.8	28.8	28.4	29.5	30.4	30.0	31.1	32.0	29.9	26.2	25.9	28.5	28.6
	상위	34.3	36.8	35.2	36.3	37.7	37.1	37.2	36.8	35.1	36.2	36.8	36.5	25.4	27.0	28.2	28.1	29.5	29.1	29.7	27.7	22.7	2.37	26.5	26.7

주: LTV1 = 금융기관대출액/주택 구입가격, LTV3 = 금융기관대출액/현재주택가격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10.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7.9년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0년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 등이 7.3년, 도지역이 6.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가 8.0년, 중위 가구가 7.9년, 상위 가구가 7.7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매하는 주택가격과 주택마련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Ⅲ-13. 지역별·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단위: 년)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8.1	8.5	6.9	6.7	6.8	7.1	6.9	7.7	7.7	7.4	7.7	7.9
지역	수도권	7.9	9.0	7.4	7.2	7.3	7.6	7.4	8.4	9.0	8.3	8.9	9.0
	광역시 등	8.6	8.9	7.1	7.4	7.3	7.3	7.1	8.2	7.2	7.0	7.2	7.3
	도지역	8.0	7.5	6.3	5.8	6.1	6.3	6.2	6.4	6.3	6.5	6.5	6.7
소득	하위	10.3	10.3	8.1	7.9	7.7	7.9	7.7	8.4	8.1	7.9	8.1	8.0
	중위	7.3	8.1	6.5	6.2	6.5	6.8	6.7	7.4	7.4	7.3	7.5	7.9
	상위	6.1	7.0	6.1	6.0	6.2	6.5	6.4	7.3	7.6	7.0	7.8	7.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11.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당시 가구주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소득별로 소득 하위 가구가 46.4세이며, 중위 가구 39.1세, 상위 가구 37.8세임
- 모든 소득계층에서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4년 이내에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46.4세로 전체 기간에 비해 5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하위 가구는 57.0세로 중위 가구(42.0세), 상위 가구(41.4세)와의 격차가 더 벌어져 최근들어 소득 하위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4. 소득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주 연령

(단위: 세)

구분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최근 4년 내
전체	38.4	41.8	38.9	42.5	38.8	41.9	39.1	43.0	39.4	43.3	39.1	42.8	39.9	43.7	40.2	44.2	40.3	45.0	40.4	44.8	41.3	46.4
하위	43.0	54.3	45.0	57.0	44.3	53.5	44.5	54.8	44.8	56.7	44.8	56.7	45.0	54.9	45.3	56.0	45.7	57.3	46.1	57.1	46.4	57.0
중위	36.8	39.0	36.5	38.5	36.3	37.8	36.7	38.9	37.1	39.7	37.1	39.2	38.0	40.4	37.9	40.6	38.2	41.5	38.3	41.0	39.1	42.0
상위	35.6	38.9	35.3	38.7	35.1	38.6	35.6	39.0	36.0	39.6	35.9	39.6	36.8	39.7	37.5	40.7	36.9	40.2	37.5	41.0	37.8	41.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12. 주거이동률

○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은 2024년 30.3%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어 주거이동이 줄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이동률이 가장 높고, 광역시 등, 도지역 순으로 주거이동이 낮지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이동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소득별로는 하위 가구의 주거이동률이 가장 높으며, 중위 가구, 상위 가구 순으로 주거이동률이 낮아짐
- 소득 하위 가구는 등락을 반복하며 유사한 33~35%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상위 가구는 2006년 약 40% 정도의 주거이동률에서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표 Ⅲ-15. 지역별·소득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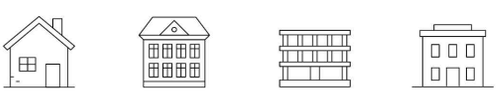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7.5	35.2	36.6	36.9	35.9	36.4	36.4	37.2	37.2	33.7	32.2	30.3
지역	수도권	44.4	40.1	40.3	40.9	40.0	40.6	40.3	41.9	41.0	36.8	35.5	33.4
	광역시 등	34.5	33.9	35.1	37.1	35.2	35.5	35.5	36.1	37.5	33.4	31.4	29.4
	도지역	29.4	28.8	32.0	30.8	30.3	30.6	30.9	30.5	31.0	28.9	27.4	26.0
소득	하위	33.4	32.3	32.6	34.8	35.7	35.2	36.6	37.6	39.5	35.4	35.1	34.3
	중위	41.8	37.6	40.7	39.7	37.5	38.6	38.2	38.1	37.4	33.8	31.7	28.5
	상위	39.4	34.9	34.3	35.9	33.5	34.0	32.0	35.0	31.6	30.0	27.2	24.6

주: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경우 주거이동이 있었다고 간주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PART Ⅳ

2024년도 특성가구 주요결과 분석

Ⅳ 2024년도 특성가구 주요결과 분석

1. 특성가구 조사의 분석범위 및 자료의 한계

1) 분석범위

○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분석의 주요결과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 소득 하위 가구로 구성하였고, 표본수를 고려하여 전국, 지역(수도권, 수도권 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이후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19세에서 만34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기본법이 제정(2020.02.04.)되면서 2020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법 상 기준으로 연령을 변경하여 기존 만20세 이상 만34세 이하에서 분석기준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청년가구주 연령기준을 변경함
-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임대 입주 및 금융지원 등의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신혼부부로 구분하였으나, 신혼부부 정책대상이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됨에 따라 본 보고서의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도 동일하게 변경하였음
  - 또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여부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구분할 수 없어 2017년 신혼부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시계열에서 제외하였음
- 고령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소득 하위 가구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4분위에 속하는 가구(10분위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표 Ⅳ-1. 특성가구 구분

구분	특성가구 구분
청년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만19세에서 만34세인 가구
신혼부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고령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소득 하위 가구	소득분위가 1~4분위인 가구

주1: 소득 하위 가구에는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이 중복 집계 되었으며, 청년가구에는 신혼부부도 연령에 따라 일부 중복 포함됨
주2: 소득 구분 시 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을 조사한 결과이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차이가 있으며, 소득 무응답 857가구(전수화 기준 348,552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함

표 Ⅳ-2. 특성가구 지역 구분

구분	지역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Ⅳ-3. 주거실태조사상 특성가구의 비율

(단위: %)

구분	청년가구	신혼부부	고령가구	소득 하위 가구
2017	13.0	-	21.0	40.9
2018	13.2	10.6	21.3	40.1
2019	14.7	11.3	20.8	37.4
2020	15.5	10.3	21.8	41.3
2021	16.2	10.1	22.0	40.0
2022	14.9	8.9	24.7	41.0
2023	16.1	8.7	24.1	38.3
2024	14.6	7.9	27.0	43.7

2) 자료의 한계

○ 주거실태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과학적인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결과에는 통계적 오차가 있음

○ 주거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표본설계와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모집단의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둠

- 따라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인구주택총조사나 유사 표본조사의 결과에서 이미 알려진 값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청년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부터 특성가구 구분 기준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 청년가구: (기존) 가구주 연령 만20세에서 만34세인 가구 → (변경) 가구주 연령 만19세에서 만34세인 가구
- 신혼부부: (기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이하인 가구 → (변경)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2. 주거 및 주거환경

1) 점유형태[8)9)]

○ 청년가구는 임차로 거주하는 비율이 82.6%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음

-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 비율이 85.9%로 매우 높음

○ 신혼부부의 경우 52.4%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43.9%가 자가로 거주함

-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임차로 거주하는 비율이 60.8%로 높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54.5%로 높게 나타남

○ 고령가구의 경우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5.9%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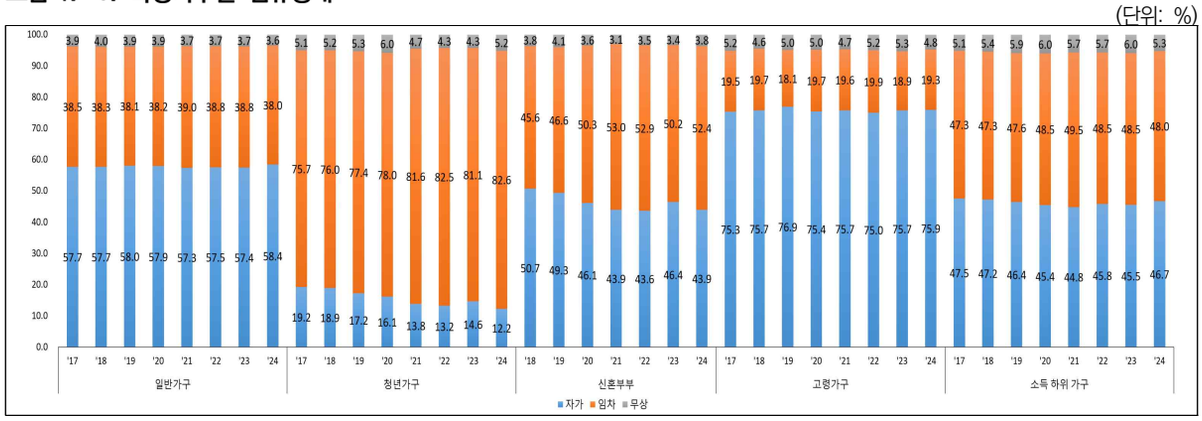
- 수도권 외 지역의 고령가구의 경우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9.6%로 매우 높음

○ 소득 하위 가구의 점유형태는 임차(48.0%), 자가(46.7%), 무상(5.3%) 순이며, 임차와 자가 비율의 차이는 1.3%로 크지 않음

- 수도권 지역 소득 하위 가구는 임차로 거주하는 비율이 57.9%로 점유형태 중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소득 하위 가구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Ⅳ-1. 특성가구별 점유형태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8) 점유형태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 정보는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5년주기)가 유일하나 5년 단위로만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 중 자가점유 외 비율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므로 2021년 이후부터는 자가, 임차, 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9) 연도별 점유형태(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단위: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계
전국	2005	55.6	41.4	3.1	100.0
	2010	54.2	43.2	2.7	100.0
	2015	56.8	39.2	4.0	100.0
	2020	57.3	39.0	3.7	100.0

표 Ⅳ-4. 특성가구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연도	자가	임차	무상	계
일반가구	2017	57.7	38.5	3.9	100.0
	2018	57.7	38.3	4.0	100.0
	2019	58.0	38.1	3.9	100.0
	2020	57.9	38.2	3.9	100.0
	2021	57.3	39.0	3.7	100.0
	2022	57.5	38.8	3.7	100.0
	2023	57.4	38.8	3.7	100.0
	2024	58.4	38.0	3.6	100.0
청년가구	2017	19.2	75.7	5.1	100.0
	2018	18.9	76.0	5.2	100.0
	2019	17.2	77.4	5.3	100.0
	2020	16.1	78.0	6.0	100.0
	2021	13.8	81.6	4.7	100.0
	2022	13.2	82.5	4.3	100.0
	2023	14.6	81.1	4.3	100.0
	2024	12.2	82.6	5.2	100.0
신혼부부	2018	50.7	45.6	3.8	100.0
	2019	49.3	46.6	4.1	100.0
	2020	46.1	50.3	3.6	100.0
	2021	43.9	53.0	3.1	100.0
	2022	43.6	52.9	3.5	100.0
	2023	46.4	50.2	3.4	100.0
	2024	43.9	52.4	3.8	100.0
고령가구	2017	75.3	19.5	5.2	100.0
	2018	75.7	19.7	4.6	100.0
	2019	76.9	18.1	5.0	100.0
	2020	75.4	19.7	5.0	100.0
	2021	75.7	19.6	4.7	100.0
	2022	75.0	19.8	5.2	100.0
	2023	75.7	18.9	5.3	100.0
	2024	75.9	19.3	4.8	100.0
소득 하위 가구	2017	47.5	47.3	5.1	100.0
	2018	47.2	47.3	5.4	100.0
	2019	46.4	47.6	5.9	100.0
	2020	45.4	48.5	6.0	100.0
	2021	44.8	49.5	5.7	100.0
	2022	45.8	48.5	5.7	100.0
	2023	45.5	48.5	6.0	100.0
	2024	46.7	48.0	5.3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주택유형

○ 일반가구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3.1%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28.4%), 다세대주택(9.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모두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53.5%, 52.7%로 높으며, 2023년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함

○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비율이 17.9%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음

- 청년가구의 12.6%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5.3%는 고시원 등 기타 유형에 거주하고 있음
-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이 21.8%이며, 16.2%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2023년 대비 주택이외의 거처 및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소폭 감소함

○ 신혼부부, 고령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청년가구 및 소득 하위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파트 거주비율은 청년가구 31.0%, 신혼부부 73.4%, 고령가구 47.2%, 소득 하위 가구 35.7%임
-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청년가구 37.0%, 신혼부부 11.3%, 고령가구 39.2%, 소득 하위 가구 42.6%임

○ 신혼부부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73.4%로 매우 높고, 수도권 외 지역의 신혼부부 아파트 거주비율은 81.4%로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음

- 아파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주택유형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세대주택(14.9%), 수도권 외 지역은 단독주택(12.1%)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임

○ 고령가구는 2021년부터 아파트 거주 비율이 단독주택 거주 비율보다 높고, 2024년에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7.2%,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3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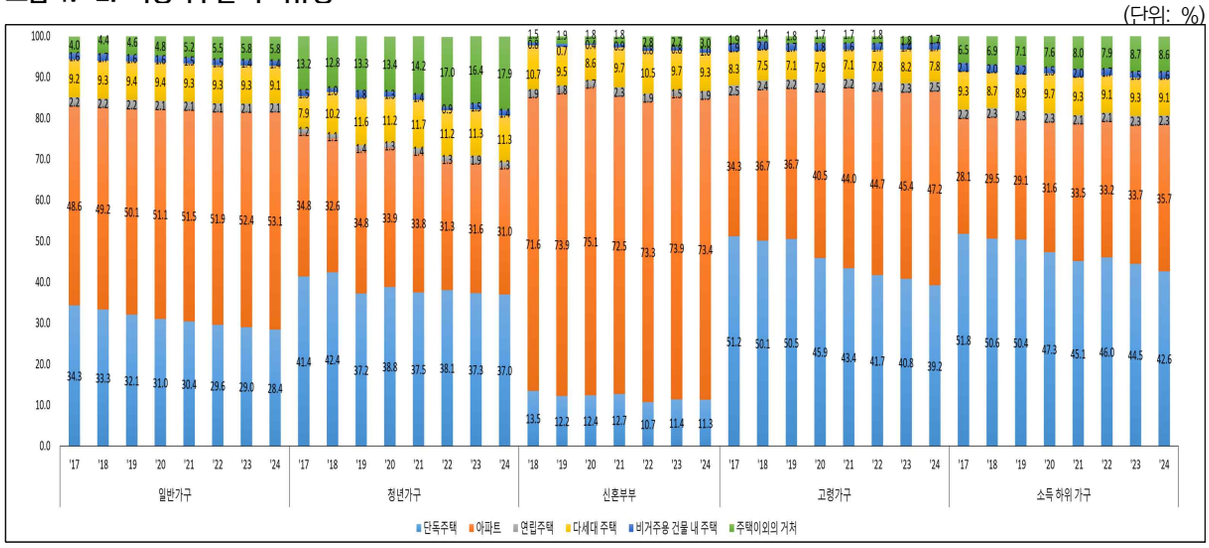
- 고령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계속 감소하나, 아파트 거주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수도권 거주 고령가구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 거주 고령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음

○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2.6%로 가장 높음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8.6%로, 기타 거주 비율과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4.3%로 동일함

그림 Ⅳ-2. 특성가구별 주택유형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Ⅳ-5. 특성가구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일반가구	2017	34.3	48.6	2.2	9.2	1.6	4.0	100.0
	2018	33.3	49.2	2.2	9.3	1.7	4.4	100.0
	2019	32.1	50.1	2.2	9.4	1.6	4.6	100.0
	2020	31.0	51.1	2.1	9.4	1.6	4.8	100.0
	2021	30.4	51.5	2.1	9.3	1.5	5.2	100.0
	2022	29.6	51.9	2.1	9.3	1.5	5.5	100.0
	2023	29.0	52.4	2.1	9.3	1.4	5.8	100.0
	2024	28.4	53.1	2.1	9.1	1.4	5.8	100.0
청년가구	2017	41.4	34.8	1.2	7.9	1.5	13.2	100.0
	2018	42.4	32.6	1.1	10.2	1.0	12.8	100.0
	2019	37.2	34.8	1.4	11.6	1.8	13.3	100.0
	2020	38.8	33.9	1.3	11.2	1.3	13.4	100.0
	2021	37.5	33.8	1.4	11.7	1.4	14.2	100.0
	2022	38.1	31.3	1.3	11.2	0.9	17.0	100.0
	2023	37.3	31.6	1.9	11.3	1.5	16.4	100.0
	2024	37.0	31.0	1.3	11.3	1.4	17.9	100.0
신혼부부	2018	13.5	71.6	1.9	10.7	0.8	1.5	100.0
	2019	12.2	73.9	1.8	9.5	0.7	1.9	100.0
	2020	12.4	75.1	1.7	8.6	0.4	1.8	100.0
	2021	12.7	72.5	2.3	9.7	0.9	1.8	100.0
	2022	10.7	73.3	1.9	10.5	0.8	2.8	100.0
	2023	11.4	73.9	1.5	9.7	0.8	2.7	100.0
	2024	11.3	73.4	1.9	9.3	1.0	3.0	100.0
고령가구	2017	51.2	34.3	2.5	8.3	1.9	1.9	100.0
	2018	50.1	36.7	2.4	7.5	2.0	1.4	100.0
	2019	50.5	36.7	2.2	7.1	1.7	1.8	100.0
	2020	45.9	40.5	2.2	7.9	1.8	1.7	100.0
	2021	43.4	44.0	2.2	7.1	1.6	1.7	100.0
	2022	41.7	44.7	2.4	7.8	1.7	1.8	100.0
	2023	40.8	45.4	2.3	8.2	1.4	1.8	100.0
	2024	39.2	47.2	2.5	7.8	1.7	1.7	100.0
소득 하위 가구	2017	51.8	28.1	2.2	9.3	2.1	6.5	100.0
	2018	50.6	29.5	2.3	8.7	2.0	6.9	100.0
	2019	50.4	29.1	2.3	8.9	2.2	7.1	100.0
	2020	47.3	31.6	2.3	9.7	1.5	7.6	100.0
	2021	45.1	33.5	2.1	9.3	2.0	8.0	100.0
	2022	46.0	33.2	2.1	9.1	1.7	7.9	100.0
	2023	44.5	33.7	2.3	9.3	1.5	8.7	100.0
	2024	42.6	35.7	2.3	9.1	1.6	8.6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현재주택 거주기간

○ 청년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이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짧음

- 평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청년가구는 1.6년, 신혼부부는 2.5년임

○ 고령가구는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14.8년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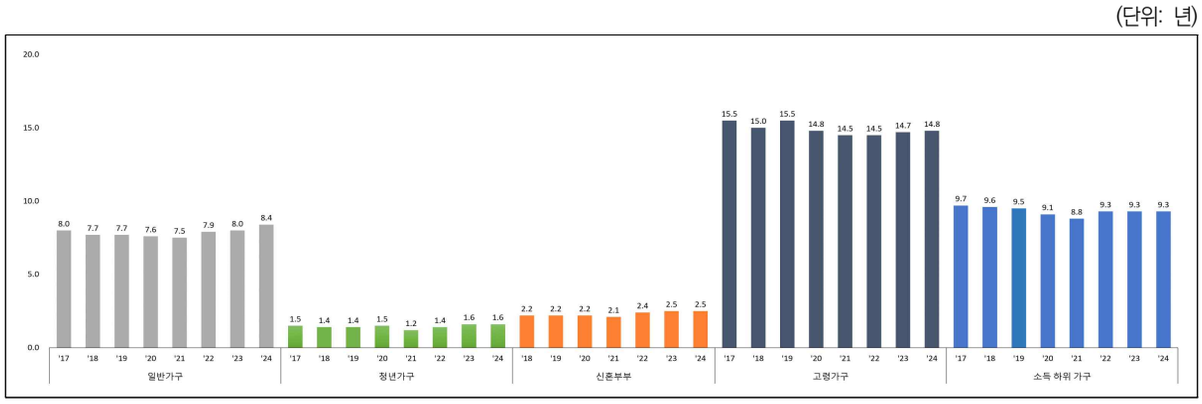
- 고령가구는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평균 25년 이상인 비율이 20.5%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수도권 외 지역의 고령가구가 현재주택 거주기간은 평균 16.6년이며, 25년 이상인 비율은 25.7%임

○ 소득 하위 가구의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9.3년이며, 수도권 외 지역(10.8년)이 수도권 지역(7.3년)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Ⅳ-3.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Ⅳ-6.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연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일반가구	2017	10.1	15.1	10.8	14.5	18.1	11.9	7.3	5.8	6.5	100.0	8.0
	2018	12.4	14.0	10.0	16.0	17.6	11.4	6.9	5.3	6.4	100.0	7.7
	2019	13.3	13.1	10.0	16.3	18.4	10.9	6.6	5.0	6.5	100.0	7.7
	2020	11.0	14.4	11.8	15.2	19.0	10.9	6.0	5.5	6.4	100.0	7.6
	2021	13.2	13.3	10.8	15.6	19.4	10.7	6.0	5.0	6.2	100.0	7.5
	2022	9.6	12.9	11.2	17.1	19.8	11.5	5.7	5.4	6.8	100.0	7.9
	2023	10.5	11.7	10.1	17.3	21.0	11.4	5.7	5.7	6.8	100.0	8.0
	2024	8.6	12.0	9.7	16.7	21.7	12.3	6.0	5.8	7.2	100.0	8.4
청년가구	2017	29.8	34.2	16.3	13.1	5.9	0.6	0.1	-	-	100.0	1.5
	2018	35.1	30.1	15.7	13.9	4.6	0.5	0.1	-	-	100.0	1.4
	2019	38.5	27.7	15.4	12.9	5.0	0.5	0.0	-	-	100.0	1.4
	2020	30.2	33.9	18.2	11.9	5.1	0.7	0.1	-	-	100.0	1.5
	2021	39.1	30.4	15.4	11.2	3.7	0.2	-	-	-	100.0	1.2
	2022	30.9	31.6	18.0	15.5	3.7	0.3	-	-	-	100.0	1.4
	2023	31.3	28.0	17.7	17.2	5.2	0.5	0.1	-	-	100.0	1.6
	2024	27.2	32.5	18.9	15.6	5.5	0.2	0.0	-	-	100.0	1.6
신혼부부	2018	19.3	27.5	18.2	22.9	11.5	0.3	0.2	0.1	-	100.0	2.2
	2019	19.6	23.2	19.0	24.9	12.8	0.2	0.2	-	-	100.0	2.2
	2020	15.8	28.6	22.2	21.1	11.7	0.3	0.2	0.0	0.1	100.0	2.2
	2021	20.0	26.3	20.3	20.3	12.7	0.4	0.0	0.0	-	100.0	2.1
	2022	14.3	25.3	20.1	26.4	13.7	0.1	0.0	0.1	0.0	100.0	2.4
	2023	16.5	22.7	19.4	25.1	15.5	0.5	0.1	0.0	0.1	100.0	2.5
	2024	13.9	24.5	19.0	26.2	15.8	0.4	0.1	0.1	-	100.0	2.5
고령가구	2017	3.3	6.3	5.2	9.3	15.0	15.2	12.2	12.1	21.4	100.0	15.5
	2018	4.2	5.9	5.1	10.2	15.7	14.9	11.9	11.4	20.7	100.0	15.0
	2019	3.8	5.2	4.8	10.1	16.3	14.4	11.9	11.4	22.2	100.0	15.5
	2020	3.9	5.1	5.6	10.9	16.8	14.2	10.1	12.3	21.0	100.0	14.8
	2021	4.4	5.4	5.2	10.3	18.0	14.2	10.7	11.6	20.2	100.0	14.5
	2022	3.2	5.2	5.4	11.3	18.2	15.1	9.6	11.5	20.5	100.0	14.5
	2023	3.3	4.4	4.7	11.1	19.1	15.2	9.3	12.3	20.7	100.0	14.7
	2024	2.6	4.4	4.6	11.9	19.3	15.7	9.0	11.9	20.5	100.0	14.8
소득 하위 가구	2017	11.9	15.0	8.8	12.2	15.3	10.9	7.8	7.1	11.1	100.0	9.7
	2018	14.1	12.3	8.8	12.7	15.6	11.0	7.5	6.8	11.2	100.0	9.6
	2019	15.8	12.6	8.2	12.8	15.3	10.2	7.0	6.5	11.6	100.0	9.5
	2020	13.0	14.7	9.9	13.1	15.4	10.4	5.9	6.9	10.7	100.0	9.1
	2021	16.8	13.3	9.5	12.1	15.4	10.0	6.2	6.4	10.3	100.0	8.8
	2022	12.5	13.2	9.7	14.3	15.9	10.8	5.8	6.5	11.3	100.0	9.3
	2023	13.6	12.4	9.1	14.1	16.7	10.5	5.5	7.1	11.1	100.0	9.3
	2024	11.0	13.5	9.7	14.7	17.2	11.0	5.2	6.8	10.8	100.0	9.3

주: 평균 거주기간은 가구주가 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년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주가 된 기간이 짧아 평균 거주기간이 다른 특성 가구에 비해 짧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평균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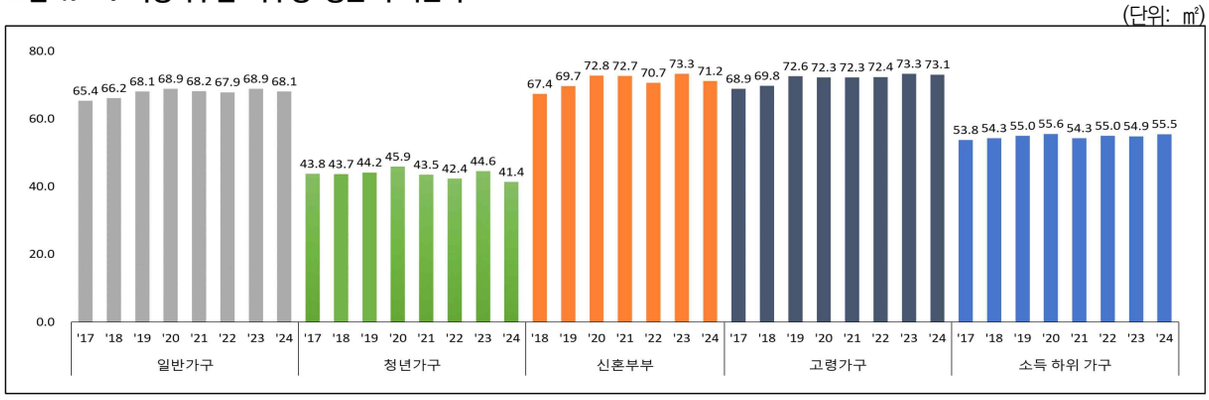
○ 청년가구의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41.4㎡,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1㎡로 전년에 비해 감소함

○ 신혼부부가구의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71.2㎡)은 일반가구에 비해 넓으나, 1인당 평균 주거면적(27.4㎡)은 좁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73.1㎡)과 1인당 평균 주거면적(46.6㎡) 모두 일반가구에 비해 넓음

그림 Ⅳ-4. 특성가구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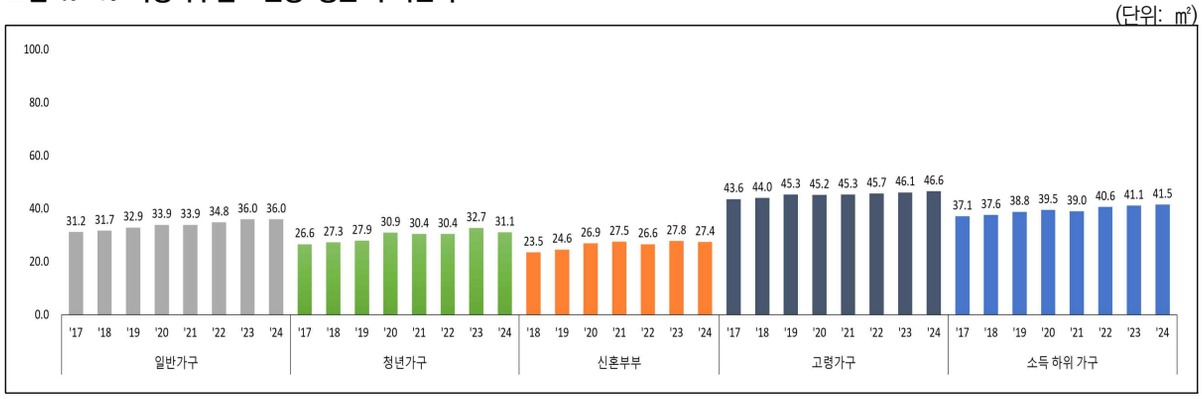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Ⅳ-5. 특성가구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Ⅳ-7. 특성가구별 평균 주거면적

(단위: ㎡)

구분	연도	평균 주거면적	
		가구당	1인당
일반가구	2017	65.4	31.2
	2018	66.2	31.7
	2019	68.1	32.9
	2020	68.9	33.9
	2021	68.2	33.9
	2022	67.9	34.8

(단위: ㎡)

구분	연도	평균 주거면적	
		가구당	1인당
	2023	68.9	36.0
	2024	68.1	36.0
청년가구	2017	43.8	26.6
	2018	43.7	27.3
	2019	44.2	27.9
	2020	45.9	30.9
	2021	43.5	30.4
	2022	42.4	30.4
	2023	44.6	32.7
	2024	41.4	31.1
신혼부부	2018	67.4	23.5
	2019	69.7	24.6
	2020	72.8	26.9
	2021	72.7	27.5
	2022	70.7	26.6
	2023	73.3	27.8
	2024	71.2	27.4
고령가구	2017	68.9	43.6
	2018	69.8	44.0
	2019	72.6	45.3
	2020	72.3	45.2
	2021	72.3	45.3
	2022	72.4	45.7
	2023	73.3	46.1
	2024	73.1	46.6
소득 하위 가구	2017	53.8	37.1
	2018	54.3	37.6
	2019	55.0	38.8
	2020	55.6	39.5
	2021	54.3	39.0
	2022	55.0	40.6
	2023	54.9	41.1
	2024	55.5	41.5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청년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각각 8.2%, 6.2%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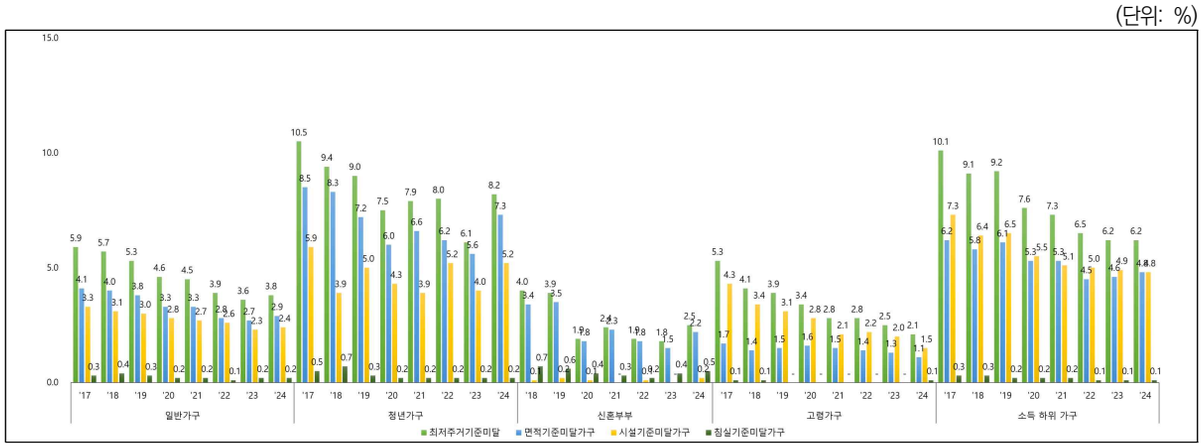
- 세부 항목별로 청년가구는 면적기준 미달가구가 7.3%, 소득 하위 가구는 면적·시설기준 미달가구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혼부부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5%, 고령가구는 2.1%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편임

- 신혼부부가구는 면적기준 미달 비율이 2.2%, 고령가구는 시설기준 미달 비율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Ⅳ-6. 특성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Ⅳ-8. 특성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시설기준 미달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
일반가구	2017	5.9	4.1	3.3	0.3
	2018	5.7	4.0	3.1	0.4
	2019	5.3	3.8	3.0	0.3
	2020	4.6	3.3	2.8	0.2
	2021	4.5	3.3	2.7	0.2
	2022	3.9	2.8	2.6	0.1
	2023	3.6	2.7	2.3	0.2
	2024	3.8	2.9	2.4	0.2
청년가구	2017	10.5	8.5	5.9	0.5
	2018	9.4	8.3	3.9	0.7
	2019	9.0	7.2	5.1	0.3
	2020	7.5	6.0	4.3	0.2
	2021	7.9	6.6	3.9	0.2
	2022	8.0	6.2	5.2	0.2
	2023	6.1	5.6	4.0	0.2
	2024	8.2	7.3	5.2	0.2
신혼부부	2018	4.0	3.4	0.1	0.7
	2019	3.9	3.6	0.2	0.5
	2020	1.9	1.8	0.1	0.4
	2021	2.4	2.3	-	0.3
	2022	1.9	1.8	0.1	0.2
	2023	1.8	1.5	0.0	0.4
	2024	2.5	2.2	0.2	0.5
고령가구	2017	5.3	1.7	4.3	0.1
	2018	4.1	1.4	3.4	0.1
	2019	3.9	1.5	3.1	0.0
	2020	3.4	1.6	2.8	0.0
	2021	2.8	1.5	2.1	0.0
	2022	2.8	1.4	2.2	0.0
	2023	2.5	1.3	2.0	0.0
	2024	2.1	1.1	1.5	0.1
소득 하위 가구	2017	10.1	6.2	7.3	0.3
	2018	9.1	5.8	6.4	0.3
	2019	9.2	6.1	6.5	0.2
	2020	7.6	5.3	5.5	0.2
	2021	7.3	5.3	5.1	0.2
	2022	6.5	4.5	5.0	0.1
	2023	6.2	4.6	4.9	0.1
	2024	6.2	4.8	4.8	0.1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평균 소요연수가 각각 1.3년, 1.9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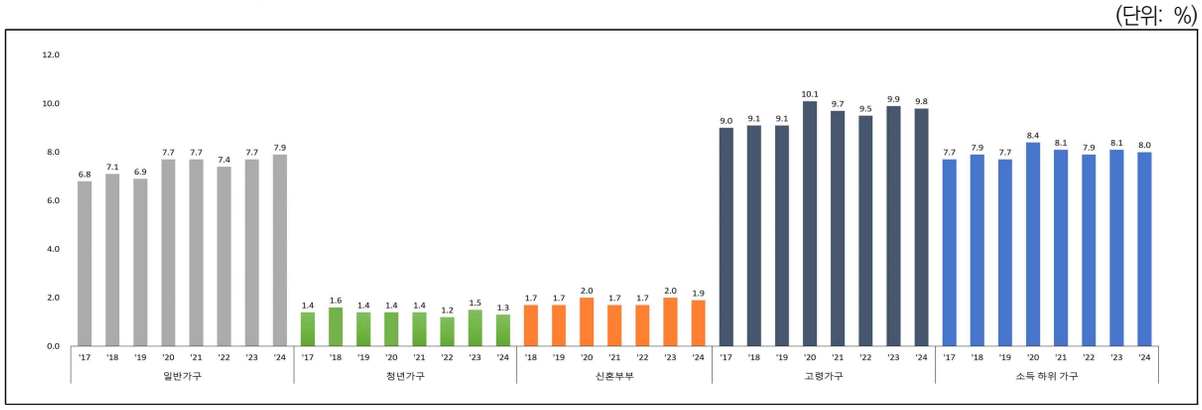
- 자가를 마련한 경험이 있는 청년가구의 81.1%, 신혼부부의 74.2%는 가구주가 된 이후 3년 내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함

○ 고령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가 각각 9.8년, 8.0년으로 일반가구(7.9년)에 비해 오래 소요됨

- 고령가구 중 가구주가 된 이후 3년 내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 비율은 수도권 외 지역 45.6%와 수도권 지역 30.8%로 다소 차이가 남

그림 Ⅳ-7. 특성가구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Ⅳ-9. 특성가구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단위: %, 년)

구분	연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소요연수
일반가구	2017	42.6	8.8	19.5	13.5	6.9	8.8	100.0	6.8
	2018	41.3	9.0	19.8	13.3	7.3	9.3	100.0	7.1
	2019	41.8	8.8	20.6	13.2	6.5	8.9	100.0	6.9
	2020	40.4	7.5	19.4	14.2	7.7	10.8	100.0	7.7
	2021	39.6	8.0	19.0	14.6	8.2	10.5	100.0	7.7
	2022	40.3	8.1	19.5	14.5	7.4	10.1	100.0	7.4
	2023	39.5	7.7	19.3	14.7	7.8	10.8	100.0	7.7
	2024	39.1	7.5	19.3	15.1	8.0	11.1	100.0	7.9
청년가구	2017	79.7	9.8	8.3	2.3	-	-	100.0	1.4
	2018	78.9	10.6	8.7	1.5	0.2	-	100.0	1.6
	2019	78.1	10.6	10.4	0.9	-	-	100.0	1.4
	2020	80.5	9.3	8.2	2.0	-	-	100.0	1.4
	2021	80.3	10.8	8.2	0.7	0.1	-	100.0	1.4
	2022	81.3	9.9	7.8	1.0	-	-	100.0	1.2
	2023	77.1	12.8	8.8	1.2	0.0	-	100.0	1.5
	2024	81.1	9.5	8.0	1.3	-	-	100.0	1.3

(단위: %, 년)

구분	연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소요연수
신혼부부	2018	74.9	14.4	9.1	1.0	0.3	0.2	100.0	1.7
	2019	74.3	13.6	10.4	0.9	0.6	0.3	100.0	1.7
	2020	72.2	14.6	10.6	1.6	0.3	0.6	100.0	2.0
	2021	76.8	13.8	7.1	1.5	0.7	0.1	100.0	1.7
	2022	75.3	12.3	10.4	1.3	0.5	0.1	100.0	1.7
	2023	72.6	13.4	10.5	2.0	1.2	0.5	100.0	2.0
	2024	74.2	13.2	9.8	1.7	0.6	0.5	100.0	1.9
고령가구	2017	44.8	4.6	12.0	12.7	7.9	17.9	100.0	9.0
	2018	43.7	4.4	12.1	13.2	8.6	18.1	100.0	9.1
	2019	43.7	4.6	12.9	13.1	8.2	17.5	100.0	9.1
	2020	40.2	3.6	12.6	14.1	9.1	20.3	100.0	10.1
	2021	40.2	3.9	13.5	14.9	9.5	18.1	100.0	9.7
	2022	40.0	4.5	13.9	15.1	9.0	17.4	100.0	9.5
	2023	38.8	4.0	14.3	15.4	8.9	18.6	100.0	9.9
	2024	39.5	3.8	13.4	15.3	9.5	18.5	100.0	9.8
소득 하위 가구	2017	49.4	4.6	12.2	12.4	7.2	14.3	100.0	7.7
	2018	48.6	4.5	12.3	12.1	7.8	14.7	100.0	7.9
	2019	49.5	4.6	12.6	11.9	7.1	14.2	100.0	7.7
	2020	47.2	4.2	12.4	12.4	8.0	15.8	100.0	8.4
	2021	47.1	4.2	13.1	13.2	8.1	14.2	100.0	8.1
	2022	48.2	4.4	12.9	13.0	7.7	13.8	100.0	7.9
	2023	48.0	4.1	13.4	12.6	7.1	14.8	100.0	8.1
	2024	48.0	4.1	12.7	13.0	7.8	14.3	100.0	8.0

주1: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주2: 청년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주가 된 기간이 짧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가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짧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 청년가구의 PIR(중위수 기준)은 6.0배로 2023년과 동일함

-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가구의 PIR은 7.7배로 전년(7.8배) 대비 소폭 감소, 수도권 외 지역 거주 청년가구는 5.4배로 전년(5.2배) 대비 증가함

○ 고령가구 및 소득 하위 가구의 PIR(중위수 기준)은 각각 9.1배, 8.2배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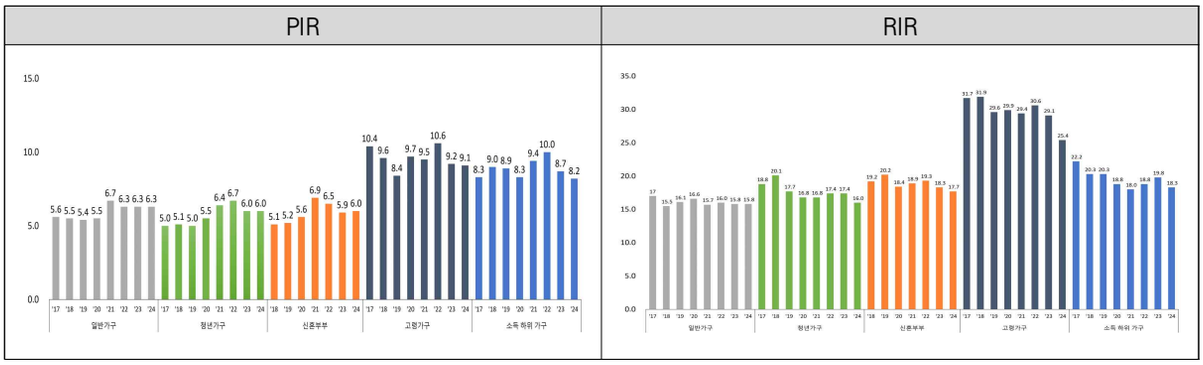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가구는 PIR(중위수 기준)이 12.9배, 소득 하위 가구는 15.6배로 매우 높음
-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PIR은(평균 기준 각 15.6배, 19.0배)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평균 기준 각 7.4배, 8.4배)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가구별 RIR(중위수 기준)은 청년가구 16.0%, 신혼부부 17.7%, 고령가구 25.4%, 소득 하위 가구 18.3%로, 일반가구의 RIR(15.8%)보다 높은 수준임

- 고령가구의 RIR(중위수 기준)은 수도권 지역 거주의 경우 27.3%%, 수도권 외 지역 거주는 24.3%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음
-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임차가구는 월소득의 약 30%를 임대료 지불에 쓰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해당함

그림 Ⅳ-8. 특성가구별 자가가구 PIR(중위수) 및 임차가구 RIR(중위수)

(단위: 배) (단위: %)



주: PIR 산정시 현재 주택가격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조사기준 연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Ⅳ-10. 특성가구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

(단위: 배, %)

구분	연도	PIR(배)		RIR(%)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일반가구	2017	5.6	6.4	17.0	21.8
	2018	5.5	6.7	15.5	21.1
	2019	5.4	6.8	16.1	21.3
	2020	5.5	7.3	16.6	20.9
	2021	6.7	8.9	15.7	21.5
	2022	6.3	9.1	16.0	21.8
	2023	6.3	8.1	15.8	22.7
	2024	6.3	8.1	15.8	21.9
청년가구	2017	5.0	5.2	18.8	21.9
	2018	5.1	5.7	20.1	20.5
	2019	5.0	5.5	17.7	21.0
	2020	5.5	6.3	16.8	20.4
	2021	6.4	7.6	16.8	20.9
	2022	6.7	7.6	17.4	21.2
	2023	6.0	6.5	17.4	21.4
	2024	6.0	6.3	16.0	20.3
신혼부부	2018	5.1	5.8	19.2	21.7
	2019	5.2	5.8	20.2	21.3
	2020	5.6	6.4	18.4	22.3
	2021	6.9	7.8	18.9	22.3
	2022	6.5	7.8	19.3	22.1
	2023	5.9	6.9	18.3	22.9
	2024	6.0	6.9	17.7	21.2
고령가구	2017	10.4	10.7	31.7	29.9
	2018	9.6	11.2	31.9	29.5
	2019	8.4	10.4	29.6	28.5
	2020	9.7	10.9	29.9	27.0
	2021	9.5	12.8	29.4	27.6
	2022	10.6	13.3	30.6	28.3
	2023	9.2	11.7	29.1	28.8
	2024	9.1	11.3	25.4	26.7
소득 하위 가구	2017	8.3	11.1	22.2	26.3
	2018	9.0	12.0	20.3	25.8
	2019	8.9	12.3	20.3	26.2
	2020	8.3	11.7	18.8	23.3
	2021	9.4	14.1	18.0	23.1
	2022	10.0	14.9	18.8	24.4
	2023	8.7	13.2	19.8	24.3
	2024	8.2	12.2	18.3	22.1

주1: PIR 산정시 현재 주택가격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조사기준 연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주2: RIR 계산 시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7년 8월 6.40%, 2018년 9월 6.20% 2019년 6.10%,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9월 5.7%, 2021년 9월 5.6%, 2022년 9월 5.8%, 2023년 9월 6.1%, 2024년 9월 5.9%를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신혼부부가구와 청년가구의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가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음(각 80.5%, 76.5%)

- 또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되는 정도는 신혼부부가구 24.7%, 청년가구 20.3%로 일반가구(17.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고령가구 중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2.1%로 일반가구(63.3%)에 비해 낮은 편임

- 그러나, 고령가구의 경우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해당 없음'의 비율이 45.4%로 다른 가구에 비해 매우 높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됨

표 Ⅳ-11. 특성가구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구분	연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일반가구	2017	24.8	41.2	12.4	2.0	19.6	100.0
	2018	25.5	45.2	10.4	1.0	17.8	100.0
	2019	19.2	45.8	15.7	1.8	17.6	100.0
	2020	19.6	44.3	15.8	1.7	18.6	100.0
	2021	17.2	44.6	16.8	1.8	19.5	100.0
	2022	18.3	46.4	14.1	1.3	19.8	100.0
	2023	18.8	46.3	13.7	1.0	20.2	100.0
	2024	17.3	46.0	15.8	1.1	19.7	100.0
청년가구	2017	29.4	51.4	15.5	2.5	1.2	100.0
	2018	29.4	54.9	12.6	1.1	1.9	100.0
	2019	23.1	53.2	19.5	2.7	1.5	100.0
	2020	22.6	52.2	21.1	3.0	1.1	100.0
	2021	21.0	54.4	21.2	2.4	1.1	100.0
	2022	21.4	58.2	16.7	2.1	1.5	100.0
	2023	22.4	57.4	17.3	1.4	1.5	100.0
	2024	20.3	56.2	21.3	1.4	0.8	100.0
신혼부부	2018	28.6	53.2	11.0	0.9	6.2	100.0
	2019	21.8	56.1	16.6	0.8	4.8	100.0
	2020	21.4	54.9	17.4	1.7	4.6	100.0
	2021	19.2	56.6	18.6	1.3	4.3	100.0
	2022	22.0	57.6	15.2	1.0	4.2	100.0
	2023	24.7	55.9	12.9	0.5	6.1	100.0
	2024	24.7	55.8	14.7	1.1	3.7	100.0
고령가구	2017	20.9	26.5	7.3	1.5	43.8	100.0
	2018	22.8	28.2	6.8	0.9	41.2	100.0
	2019	15.9	29.8	8.9	1.3	44.0	100.0
	2020	15.9	29.9	9.8	1.3	43.1	100.0
	2021	15.2	27.6	11.3	2.0	43.9	100.0
	2022	15.5	29.9	11.0	1.0	42.7	100.0
	2023	13.4	30.1	9.7	1.3	45.5	100.0
	2024	12.4	29.7	11.3	1.2	45.4	100.0
소득 하위 가구	2017	29.8	42.2	11.1	2.3	14.6	100.0
	2018	30.5	45.1	9.9	1.2	13.4	100.0
	2019	22.0	45.3	16.3	2.7	13.6	100.0
	2020	23.0	44.4	16.1	2.1	14.5	100.0
	2021	21.0	44.3	17.2	2.9	14.6	100.0
	2022	21.1	47.7	15.2	1.2	14.9	100.0
	2023	19.8	49.0	15.6	1.6	14.0	100.0
	2024	17.5	47.8	18.8	1.5	14.4	100.0

주1: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
주2: '해당없음'은 대출금이 없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없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 대출가구 기준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의 LTV1은 각각 50.3%, 45.4%로 일반가구 37.2%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고령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의 LTV1은 각각 33.3%, 36.8%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음

○ 일반가구 및 모든 특성가구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LTV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Ⅳ-12. 특성가구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

(단위: %)

구분	연도	LTV1	LTV3
		대출 받은 가구(전체 가구)	대출 받은 가구(전체 가구)
일반가구	2017	38.2(17.9)	28.9(13.6)
	2018	37.8(18.6)	29.4(14.4)
	2019	38.1(19.4)	30.3(15.4)
	2020	37.2(20.5)	28.3(15.6)
	2021	36.8(20.8)	24.6(13.9)
	2022	37.2(20.7)	24.5(13.7)
	2023	37.2(19.2)	26.9(13.9)
	2024	37.2(18.8)	27.1(13.7)
청년가구	2017	45.7(30.4)	41.7(27.7)
	2018	45.6(32.6)	41.9(29.9)
	2019	46.3(33.6)	43.3(31.5)
	2020	46.3(34.8)	40.9(30.8)
	2021	47.3(34.4)	38.4(27.9)
	2022	46.2(34.7)	38.4(28.8)
	2023	45.5(34.1)	40.3(30.2)
	2024	50.3(35.1)	45.8(31.9)
신혼부부	2018	42.6(30.9)	38.7(28.1)
	2019	43.7(31.4)	40.4(28.7)
	2020	43.6(34.0)	37.5(29.3)
	2021	43.8(32.8)	34.2(25.6)
	2022	43.0(34.2)	34.2(27.2)
	2023	43.6(33.7)	36.9(28.5)
	2024	45.4(34.3)	40.0(30.2)
고령가구	2017	34.8(9.8)	19.4(5.4)
	2018	33.9(9.8)	19.7(5.7)
	2019	33.8(10.0)	19.8(5.9)
	2020	33.0(11.2)	19.6(6.6)
	2021	32.7(11.7)	17.5(6.3)
	2022	34.3(12.3)	18.1(6.5)
	2023	33.2(10.8)	18.6(6.1)
	2024	33.3(11.1)	18.6(6.2)
소득 하위 가구	2017	37.7(11.8)	25.0(7.8)
	2018	37.2(12.1)	25.2(8.2)
	2019	37.5(11.9)	25.8(8.2)
	2020	36.5(13.1)	25.2(9.0)
	2021	36.5(13.7)	23.0(8.7)
	2022	37.2(13.3)	22.6(8.1)
	2023	36.4(11.5)	23.1(7.3)
	2024	36.8(12.3)	24.1(8.0)

주1: LTV1 = 금융기관대출액/주택 구입가격, LTV3 = 금융기관대출액/현재주택가격
주2: ( ) 안은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했을 경우의 LTV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주거이동

1) 주거이동률

➔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 청년가구의 경우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78.7%로 가장 높으며, 신혼부부가구 또한 57.4%로 두 번째로 높음

○ 고령가구의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11.7%로, 주거이동이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임

○ 소득 하위 가구의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수도권(40.0%)이 수도권 외 지역(30.1%)에 비해 주거 이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Ⅳ-13.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가구	35.9	36.4	36.4	37.2	37.2	33.7	32.2	30.3
청년가구	80.3	80.9	81.6	82.2	84.9	80.5	77.0	78.7
신혼부부	-	65.0	61.9	66.5	66.6	59.7	58.6	57.4
고령가구	14.8	15.2	13.8	14.7	15.1	13.8	12.4	11.7
소득 하위 가구	35.7	35.2	36.6	37.6	39.5	35.4	35.1	34.3

주: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경우 주거이동이 있었다고 간주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 일반가구(이사한 경험이 15년 이내인 경우)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47.2%로 가장 높고,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에'가 30.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청년가구를 제외한 모든 특성가구에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청년가구의 경우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에' 이사를 한 비율이 54.7%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40.8%,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가 33.6%로 나타남

○ 신혼부부가구는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에' 이사한 비율이 33.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 때문에' 이사한 비율(4.5%)이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 하위 가구의 이사이유 중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12.4%)'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3.6%)'가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Ⅳ-14. 특성가구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이유	일반가구	청년가구	신혼부부	고령가구	소득 하위 가구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47.2	40.8	49.7	50.4	45.0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에	30.6	54.7	33.3	18.5	27.5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5.5	33.6	21.3	24.5	26.0
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	25.2	5.4	26.4	27.9	17.1
가구상황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20.3	13.2	18.8	24.7	21.4
계약 만기로 인해서	18.1	26.6	17.7	13.4	22.5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8.3	10.0	7.3	9.0	12.4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8.1	2.4	6.2	11.6	9.2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3.7	0.9	1.1	6.5	5.0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3.3	0.3	0.8	6.0	4.9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3.0	0.7	4.5	1.0	1.0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2.9	2.2	2.5	3.1	3.6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2.5	7.5	9.8	1.6	2.4
기타	1.4	1.7	0.7	1.8	2.0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주1: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주2: 복수응답(2개 응답)으로 비율의 합계가 200%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2) 이사계획

➲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 일반가구 중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5.6%로, 그중 2년 안에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2.7%임

- 이사계획이 없는 일반가구는 84.0%로 전년(85.4%) 대비 감소함

○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는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가 각각 10.4%, 13.3%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음

-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구의 경우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 비율(15.4%)이 높음

○ 고령가구의 92.2%가 향후 이사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1.8%에 불과함

○ 일반가구 및 모든 특성가구에서 이사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높음

표 Ⅳ-15. 특성가구별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단위: %)

구분	연도	계획이 있음				계획이 없음	잘 모르겠음	계
			2년 미만	2~5년	5년 초과			
일반가구	2017	11.4	6.5	4.0	0.9	78.7	9.8	100.0
	2018	9.7	5.6	3.5	0.7	80.8	9.4	100.0
	2019	8.9	5.2	3.1	0.7	80.0	11.1	100.0
	2020	9.0	4.7	3.4	0.9	80.7	10.3	100.0
	2021	7.9	3.7	3.4	0.8	79.7	12.4	100.0
	2022	6.7	3.4	2.7	0.6	83.4	9.9	100.0
	2023	6.2	3.1	2.3	0.8	85.4	8.5	100.0
	2024	5.6	2.7	2.0	0.8	84.0	10.4	100.0
청년가구	2017	19.6	13.3	5.4	0.9	65.4	15.1	100.0
	2018	15.2	10.4	4.2	0.7	70.2	14.6	100.0
	2019	15.4	10.8	4.1	0.6	67.6	17.0	100.0
	2020	15.2	9.7	4.7	0.8	69.0	15.7	100.0
	2021	12.6	6.9	4.5	1.2	67.8	19.6	100.0
	2022	10.8	5.9	4.3	0.6	75.2	14.0	100.0
	2023	10.7	6.7	3.1	0.9	76.3	13.0	100.0
	2024	10.4	5.1	3.8	1.5	73.3	16.3	100.0
신혼부부	2018	17.4	9.6	6.4	1.4	71.8	10.8	100.0
	2019	17.5	9.9	6.4	1.2	70.1	12.4	100.0
	2020	17.3	8.2	7.1	2.0	71.2	11.5	100.0
	2021	15.1	6.2	6.8	2.1	69.9	15.0	100.0
	2022	14.7	6.6	6.7	1.5	71.9	13.4	100.0
	2023	12.9	6.2	5.1	1.6	75.9	11.1	100.0
	2024	13.3	5.4	5.4	2.5	73.3	13.3	100.0
고령가구	2017	3.5	1.8	1.4	0.4	90.1	6.3	100.0
	2018	3.1	1.8	1.0	0.2	91.3	5.7	100.0
	2019	2.5	1.4	0.9	0.2	91.3	6.2	100.0
	2020	2.7	1.5	1.0	0.2	91.0	6.3	100.0
	2021	2.6	1.4	0.9	0.2	90.5	6.9	100.0
	2022	2.3	1.3	0.8	0.2	92.5	5.2	100.0
	2023	1.9	0.9	0.7	0.2	93.4	4.8	100.0
	2024	1.8	1.0	0.6	0.2	92.2	6.0	100.0
소득 하위 가구	2017	8.3	5.4	2.4	0.5	81.6	10.0	100.0
	2018	6.5	4.3	1.8	0.4	83.9	9.7	100.0
	2019	5.9	3.9	1.6	0.3	83.1	11.0	100.0
	2020	6.4	4.0	2.1	0.3	83.2	10.5	100.0
	2021	5.5	3.2	2.0	0.3	83.4	11.0	100.0
	2022	4.9	3.2	1.4	0.3	86.8	8.3	100.0
	2023	4.4	2.9	1.1	0.3	88.1	7.5	100.0
	2024	3.7	2.4	1.0	0.4	86.5	9.8	100.0

주: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이사계획 이유

○ 청년가구의 경우 '직주근접 · 직장변동 때문에'가 3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청년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는 '계획 만기로 인해서' 이사를 계획하는 비율이 각각 25.3%, 25.2%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음

○ 신혼부부가구는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 다음으로 '내 집으로 이사(29.1%)', '가구 상황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26.9%)'의 순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음

○ 고령가구는 이사계획 이유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12.7%)'와 '귀농 · 귀촌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6.7%)'가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년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는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각각 10.6%, 5.0%로 다른 특성가구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Ⅳ-16. 특성가구별 5년 내 이사계획 이유

(단위: %)

이유	일반가구	청년가구	신혼부부	고령가구	소득 하위 가구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53.9	55.5	48.4	47.4	57.2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9.1	27.5	24.7	27.6	28.5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에	27.9	32.4	24.3	12.4	26.6
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	19.0	8.0	29.1	17.9	7.9
가구상황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17.7	17.4	26.9	21.5	14.5
계약 만기로 인해서	17.5	25.3	18.3	14.1	25.2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8.2	6.9	4.3	17.9	11.4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6.9	8.2	6.9	8.9	9.4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6.3	3.5	9.8	0.5	1.3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4.5	10.6	3.8	0.6	5.0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2.8	0.9	0.6	12.7	4.5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2.0	-	0.4	6.7	2.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1.3	0.9	1.3	3.7	1.7
기타	2.7	2.8	1.1	8.0	4.6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주1: 이사계획 있다는 응답자 중 5년 내에 이사계획이 있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주2: 복수응답(2개 응답)으로 비율의 합계가 200%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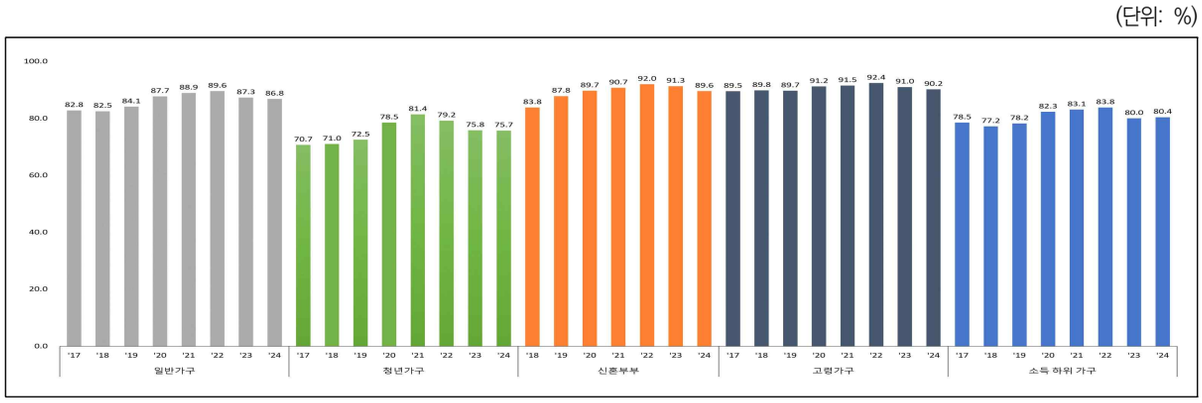
3) 주택보유의식

○ 청년가구는 다른 특성가구와 달리 주택보유의식이 수도권 지역 거주 가구 78.9%가 수도권 외 지역 거주 가구 71.8%보다 높음

○ 특성가구별 주택보유의식은 고령가구가 90.2%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가구 89.6%, 소득 하위 가구 80.4%, 청년가구 75.7% 순으로 높음

그림 Ⅳ-9. 특성가구별 주택보유의식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반가구와 특성가구 모두 '주거안정 목적'이 주택마련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가 '현재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이유가 '주거안정 목적' 86.2%, '자산증식 수단' 9.8%, '노후자금' 4.0% 순으로 나타남

-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신혼부부가구와 청년가구에서 각각 11.7%, 10.1%로 다른 특성가구보다 높음

- 모든 특성가구에서 '자산 증식 수단'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수도권 거주가구가 수도권 외 거주가구보다 높음

표 Ⅳ-17. 특성가구별 주택보유의식에 따른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연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주거안정 목적	자산증식 수단	노후자금	기타	소계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	자산증식 수단 불가	불편하지 않음	기타	소계	
일반가구	2018	82.5	88.7	7.6	3.7	0.0	100.0	17.5	54.6	11.9	33.0	0.5	100.0	100.0
	2019	84.1	89.7	7.1	3.3	0.0	100.0	15.9	56.6	11.3	31.8	0.3	100.0	100.0
	2020	87.7	86.7	8.9	4.4	0.0	100.0	12.3	57.1	13.3	29.1	0.4	100.0	100.0
	2021	88.9	86.9	9.1	4.0	0.0	100.0	11.1	63.6	14.2	22.2	0.0	100.0	100.0
	2022	89.6	86.5	9.6	3.9	-	100.0	10.4	64.2	12.0	23.6	0.2	100.0	100.0
	2023	87.3	87.7	9.2	3.2	-	100.0	12.7	56.5	16.9	26.5	0.1	100.0	100.0
	2024	86.8	86.2	9.8	4.0	-	100.0	13.2	58.1	18.4	23.4	0.1	100.0	100.0
청년가구	2018	71.0	88.8	8.7	2.5	-	100.0	29.0	58.6	11.7	29.4	0.4	100.0	100.0
	2019	72.5	89.5	8.5	1.9	-	100.0	27.5	59.7	11.9	28.2	0.2	100.0	100.0
	2020	78.5	86.9	10.4	2.8	-	100.0	21.5	57.0	12.8	29.9	0.2	100.0	100.0
	2021	81.4	86.1	11.6	2.3	-	100.0	18.6	66.6	11.6	21.8	-	100.0	100.0
	2022	79.2	88.5	9.8	1.7	-	100.0	20.8	71.0	9.5	19.5	-	100.0	100.0
	2023	75.8	88.3	10.2	1.5	-	100.0	24.2	58.9	17.0	24.1	0.1	100.0	100.0
	2024	75.7	88.2	10.1	1.7	-	100.0	24.3	59.1	16.8	24.1	0.0	100.0	100.0
신혼부부	2018	83.8	89.3	8.9	1.8	-	100.0	16.2	55.3	13.7	30.2	0.8	100.0	100.0
	2019	87.8	90.7	7.6	1.6	-	100.0	12.2	59.0	12.5	28.4	0.2	100.0	100.0
	2020	89.7	86.8	10.8	2.4	0.0	100.0	10.3	55.2	18.1	26.5	0.2	100.0	100.0
	2021	90.7	87.5	10.3	2.2	-	100.0	9.3	60.4	20.8	18.8	-	100.0	100.0
	2022	92.0	86.8	11.4	1.8	-	100.0	8.0	61.8	16.4	21.8	-	100.0	100.0
	2023	91.3	87.8	10.5	1.7	-	100.0	8.7	60.5	19.1	20.2	0.3	100.0	100.0
	2024	89.6	86.1	11.7	2.2	-	100.0	10.4	52.2	26.5	21.4	0.0	100.0	100.0
고령가구	2018	89.8	89.2	5.2	5.6	0.0	100.0	10.2	53.8	9.8	35.8	0.6	100.0	100.0
	2019	89.7	89.6	5.4	4.9	0.0	100.0	10.3	53.8	11.0	34.7	0.5	100.0	100.0
	2020	91.2	86.8	6.3	6.9	-	100.0	8.8	56.7	11.4	31.0	0.8	100.0	100.0
	2021	91.5	87.3	6.7	6.0	0.0	100.0	8.5	60.7	13.1	26.1	0.2	100.0	100.0
	2022	92.4	85.3	7.9	6.8	-	100.0	7.6	62.5	10.5	26.7	0.2	100.0	100.0
	2023	91.0	87.3	7.5	5.2	-	100.0	9.0	56.0	14.9	28.9	0.2	100.0	100.0
	2024	90.2	85.9	7.9	6.1	-	100.0	9.8	58.9	15.5	25.1	0.5	100.0	100.0
소득 하위 가구	2018	77.2	89.8	5.7	4.5	0.0	100.0	22.8	56.2	10.5	32.8	0.5	100.0	100.0
	2019	78.2	90.2	5.8	4.0	0.0	100.0	21.8	58.2	10.0	31.5	0.3	100.0	100.0
	2020	82.3	88.0	6.7	5.3	-	100.0	17.7	59.2	11.4	28.9	0.5	100.0	100.0
	2021	83.1	88.1	7.6	4.3	-	100.0	16.9	64.7	12.0	23.3	0.1	100.0	100.0
	2022	83.8	88.1	7.1	4.8	-	100.0	16.2	66.7	9.9	23.2	0.1	100.0	100.0
	2023	80.0	89.1	7.1	3.8	-	100.0	20.0	58.3	14.7	27.0	0.1	100.0	100.0
	2024	80.4	87.6	8.0	4.4	-	100.0	19.6	59.0	16.6	24.2	0.1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청년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전년(57.4%)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든 특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청년가구의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 응답 비율은 51.0%로, 두 번째로 높음

○ 고령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 응답 비율이 25.2%로 가장 낮음

○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 응답 비율은 38.4%이나, 그중 수도권 거주가구는 51.8%로 신혼부부가구와 비슷한 수준임

표 Ⅳ-18. 특성가구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일반가구	38.2	61.8	100.0
청년가구	57.5	42.5	100.0
신혼부부	51.0	49.0	100.0
고령가구	25.2	74.8	100.0
소득 하위 가구	38.4	61.6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청년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지원'(40.6%),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18.0%) 순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1순위(43.1%)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으며,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2순위(33.8%)로 높음

○ 고령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이 2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개량·개보수' 20.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5.1% 순으로, 주택 구입자금 지원 이외에 주택 수리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도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27.2%, '월세보조금 지원' 21.3%,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17.1% 순으로 높음

표 Ⅳ-19. 특성가구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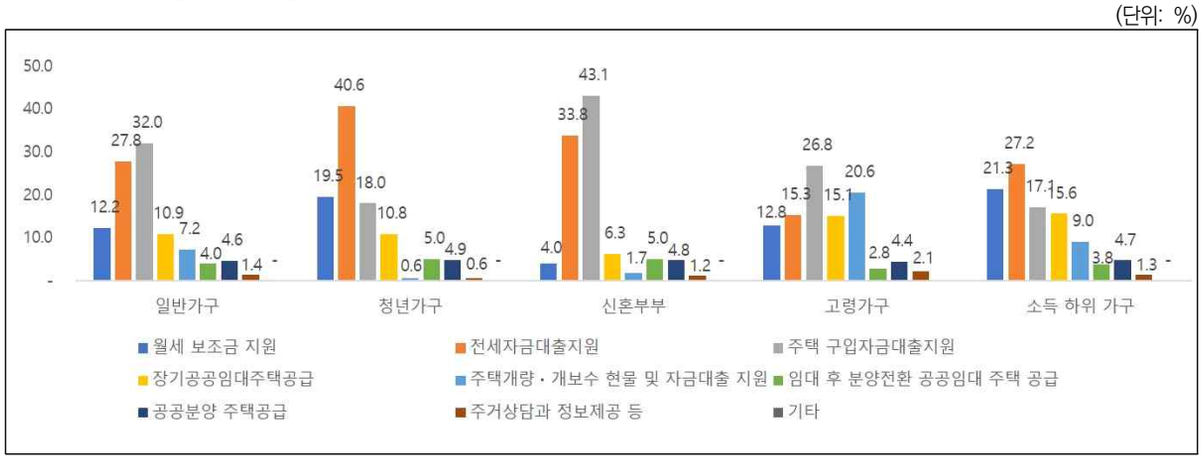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량 · 개보수 현물 및 자금대출 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	계
일반가구	12.2	27.8	32.0	10.9	7.2	4.0	4.6	1.4	100.0
청년가구	19.5	40.6	18.0	10.8	0.6	5.0	4.9	0.6	100.0
신혼부부	4.0	33.8	43.1	6.3	1.7	5.0	4.8	1.2	100.0
고령가구	12.8	15.3	26.8	15.1	20.6	2.8	4.4	2.1	100.0
소득 하위 가구	21.3	27.2	17.1	15.6	9.0	3.8	4.7	1.3	100.0

주: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그림 Ⅳ-10. 특성가구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490호. 최저주거기준.
SAS/STAT User's Guide, Version 8, SAS Publishing.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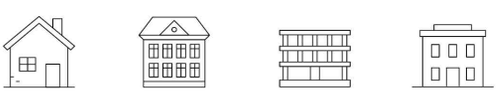
*** 참고사이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 2025.6.20.)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R-ONE. http://www.r-one.co.kr/rone/ (최종 접속일 : 2025.6.20.)

부 록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부 록 1

조사표

승인번호
제 11603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4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인 사 말 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주거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조사문의

국토교통부	KRIHS 국토연구원	HankookResearch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홈페이지 : http://www.krihs.re.kr 전 화 :	홈페이지 : http://www.hrc.co.kr 전 화 :

※ □ 아래 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		

소속(지방 사무소)	조사원	
	성 명	휴대폰 번호

I 주택 및 주거환경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여부

문 1 **귀하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이십니까?**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

- 가 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가구주가 된 연도

문 2 **귀 댁의 가구주는 몇 년도부터 가구주가 되셨습니까? (가구주 기준)**
귀 댁의 가구주는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에 가구주가 되셨습니까? (가구주 기준)

□□□□ 년도, 우리나라 나이 □□세

- 귀 댁의 가구 변동에 상관없이 현재 가구주가 처음 가구주가 된 연도를 기입

현재주택 거주 연도(가구주가 된 이후 상황)

문 3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언제부터 현재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가구주 기준)**

□□□□ 년도, 지금으로부터 □□년 전

-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이사 경험 없이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경우, 가구주가 된 시점을 살기 시작한 연도로 기입
- 재개발 후 다시 입주한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허물고 신축한 경우는 이전과는 다른 주택 개념으로 생각하고, 다시 입주한 연도와 신축 이후 거주한 연도를 현재주택 거주 연도로 기입(이 경우 이사경험 있음)

현재주택 유형

문 4 **귀 댁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단독주택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주택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⑧ 오피스텔 ⑨ 고시원 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⑪ 기타( )

현재주택 위치

문 6 **귀 댁의 거주 위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상(옥탑)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예 :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이 아닌 ① 지상으로 응답 받음

현재주택 점유형태

문 7 **귀 댁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⑦ 무상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 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 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생애최초 주택마련 경험(가구주가 된 이후 상황)

문 8 **귀 댁은 가구주께서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가주택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가구주 기준)**

① 예 →

문 8-1 **귀 댁의 가구주는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언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셨습니까?**
귀 댁의 가구주는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셨습니까?

□□□□ 년도, 우리나라 나이 □□ 세

문 8-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생애최초로 마련한 주택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8-3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자동생성)**

□□ 년 □□ 개월

문 8-4 **생애최초로 마련한 주택 면적은 얼마입니까?**

사용면적(전용면적)_____㎡

② 아니오

- 자가주택마련 : 매입, 증여 또는 상속 포함

현재주택 외 주택 보유 여부

문 9 **귀 가구는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지금 사는 곳 이외에 가구주나 가구원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세대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만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

임차 및 무상만 응답(문 7의 ②~⑦)

문 9-1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가구주가 된 (　　)년 이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 대상)

□□ 년 □□ 개월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주가 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입
- 한 사람의 가구원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주택을 판 이후의 무주택기간을 기입
- 분양은 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는 '② 없다'로 응답
- 문7 점유형태가 ① 자가인 경우 문9를 응답한 후 문10으로 가십시오.
- 문7 점유형태가 ②~⑥ 임차인 경우 문9를 응답한 후 문14로 가십시오.
- 문7 점유형태가 ⑦ 무상인 경우 문9를 응답한 후 문19로 가십시오.

자 가 **현재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응답**

문 10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현재주택을 언제 마련하셨습니까?**
(가구주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잔금을 치룬 시점으로 기입)

□□□□년, 지금으로부터 □□년 전

- 주택마련 : 매입, 증여 또는 상속 포함
- 가구주가 된 이후 시점으로 응답

문 1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① 신규주택 분양 또는 구입(재건축 포함) ② 기존주택 구입
③ 개인주택을 신축 ④ 증여나 상속 ⑤ 기타

- 주택마련방법 : 마련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
- ④ 증여나 상속으로 응답한 경우, 문12만 응답하고 문19로 이동

문 12 **2024년 6월 셋째 주 월요일 기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구 분	금 액
1) 현재 주택가격	____억____만 원
2) 분양・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	____억____만 원

- 현재 주택가격 : 현재 집을 판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 또는 현재 부동산 시세
- 분양・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 : 당시 해당지역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던 통상 가격을 응답
- 영업겸용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 소유주의 경우 건물 전체의 가격을 기입
- 문12-2) 분양・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을 모르는 경우, 문13 응답하지 않고 문19로 이동

문 1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해당 되는 곳에 모두 기입)**

구 분	금 액
1) 자기자금	____억____만원
2)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여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____억____만원
3)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	____억____만원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	____억____만원

- 문11의 ④ 증여나 상속으로 응답한 경우는 응답하지 않음
- 문12-2) 분양・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을 모르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무상이 아닌 경우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에 기입

임 차

현재 임차주택(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응답

문 14 현재 살고 계신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1) 유형	2) 세부유형
① 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 →	① 영구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⑥ 기타(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④ 기타임대주택( )	

문 1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곳에만 기입)

구 분	금 액	
1) 전 세	전세보증금 :	____억____만 원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 증 금 :	____억____만 원
	월 세 :	월 ____만 원
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월 세 :	월 ____만 원

문 15-1 최근 5년 이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재계약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재계약한 적 없는 경우 ②에 응답받음
-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이전계약 그대로 자동계약된 경우도 재계약에 해당함. ①에 응답받음

문 15-1-1 (문15-1의 ① 응답자만) 최근 5년 이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재계약하셨을 때, 보증금 및 임차료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

① 예 → **문 15-1-2** 보증금 및 임차료는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구분	계약 시점	보증금	월세
현재 계약	____년____월	____억____만 원	월____만 원
직전 계약	____년____월	____억____만 원	월____만 원

② 아니오 → **문 15-1-2** 보증금 및 임차료 변동없이 재계약한 경우, 계약 시점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계약 시점
현재 계약	____년____월
직전 계약	____년____월

-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이전계약 그대로 자동계약된 경우 ②에 응답받음

임 차 **현재 임차주택(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응답**

문 15-2 **(문7의 ②~⑥) 귀 가구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 받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① 인상수준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 **문 15-2-1** **현재 귀 가구의 임차료는 (만원) 입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 추가로 얼마까지 더 낼 수 있습니까?**
※ 현재 임차료를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십시오.

1) 전세	전세보증금 **추가** _____ 만원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추가** _____ 만원 월세 **추가** _____ 만원
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연세,일세)	월세 **추가** _____ 만원

② 인상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주택으로 옮길 것이다

문 16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연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응답, 문7의 ②,③,⑤)**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해당 되는 곳에 모두 기입)

구 분	금 액
1) 자기자금	____억_____만원
2)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여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____억_____만원
3)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	____억_____만원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	____억_____만원

- 문15 모름/무응답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문7 점유형태 ④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⑥ 일세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무상이 아닌 경우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에 기입

문 17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 전체 응답, 문7의 ②,③,④,⑤,⑥)**

다음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느끼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안함	조금 불안함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1)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2)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재계약 거부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3) 재계약 시 상승할 임대료 또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4)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문7의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만 응답)	①	②	③	④

문 17-1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 응답)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계신 방법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확정일자 발급 ② 전세권 설정
③ 보증금 보험상품 가입 ④ 기타( ) ⑤ 없음

전세권 설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함 **-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확정일자와 달리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줄 수 있음
보증금 보험	▪ 보증금 보험은 임차보증금의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함 **- 보험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음**

주택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수준

문 18 **※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일세인 경우 반드시 응답**
※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인 경우, 주택을 위한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만 반드시 응답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①	②	③	④	⑤

- 문7 점유형태가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⑥ 일세인 경우 응답
- 문7 점유형태가 ① 자가, ② 전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인 경우 주택을 위한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만 ①~④에응답
- ⑤ 해당 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만 응답
- 주택의 임차료 : 월 임차료(월세 등)
- 주택의 대출금 :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현재주택 건축연도

문 19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① 2022년 1월 이후(건축연도 3년 미만)
② 2019~2021년(건축연도 3~5년)
③ 2014~2018년(건축연도 6~10년)
④ 2009~2013년(건축연도 11~15년)
⑤ 2004~2008년(건축연도 16~20년)
⑥ 1999~2003년(건축연도 21~25년)
⑦ 1994~1998년(건축연도 26~30년)
⑧ 1993년 이전(건축연도 30년 초과)
⑨ 잘 모르겠음

현재주택 구조

문 20 **귀 댁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① 원룸형 → **문 20-1** **귀 댁의 주택은 입주당시부터 기본적인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풀옵션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② 원룸형 아님 → **문 20-2** **귀 댁의 방, 거실, 식당 수는 몇 개입니까? 각각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1) 방	개
2) 거실(대청마루)	개
3) 식당(부엌이 딸린 식당 포함)	개

- 원룸형 : 침실, 거실, 식당이 벽 또는 문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안에 전부 모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 형태(쪽방 포함)
-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거실 겸 식당은 거실에만 기입

현재주택 면적

문 21 **귀 댁이 거주하시는 곳의 주택면적은 얼마입니까?**

모두 응답	1)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
일반・다가구・영업겸용 단독주택 자가 소유자만 응답	2) 주택총면적(연면적)	㎡
	3) 대지총면적	㎡

일반・다가구・영업겸용 단독주택 거주자	▪ 일반・다가구・영업겸용 단독주택 거주자만 응답 - **주택총면적(연면적)**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 **주택사용면적** 해당 가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일부 오래된 가옥의 경우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면적에 화장실의 면적을 포함.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해당가구가 사용하는 면적을 총합하여 기입. 단, 사용면적에 마당이나 뒤뜰, 농촌의 외양간 등은 불포함 - **대지총면적** 마당, 뒤뜰, 주택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마당에 있는 텃밭은 포함 ▪ 일반단독주택의 사용면적은 실제 주거용 건물의 면적을 의미 ▪ 주택사용면적은 주택총면적보다 반드시 같거나 작아야 함
주택사용면적	▪ 실제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 ▪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현재주택 내부시설 사용 형태

문 22 귀 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시설의 내용	(1) 사용 형태	(2) 종 류
1) 부 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입 식 ② 재래식
2) 화 장 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수세식 — ① 서양식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음, ② 서양식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② 재래식
3)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온 수 ② 비온수
4) 상수도시설	① 연결되어 있음 (※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완비도 포함) ② 연결되어 있지 않음	
5) 하수시설(정화조)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난방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개별 기름보일러 ④ 개별 가스(도시가스, 프로판가스) 보일러 ⑤ 개별 전기(보일러, 패널, 태양열, 지열 등) 보일러 ⑥ 개별 연탄보일러 ⑦ 기타(연탄·장작 등 재래식 아궁이, 대형 전기히터 등)
7) 취사연료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 도시가스 ② 기름 ③ 프로판가스(LPG) ④ 전기(태양열, 지열 포함) ⑤ 연탄 ⑥ 기타(장작 등)
8) 출입구(현관문)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9-1) 소화기	① 있음 ② 없음	① 제조일 10년 초과 ② 제조일 10년 이하 ③ 잘 모르겠음
9-2) 화재경보기	① 있음 ② 없음	

서양식양변기	
난방시설	■ 난방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만 기입 - 중앙난방은 공동주택의 단지별 중앙집중식 난방 - 지역난방은 대규모의 열생산시설(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일정 지역 전체에 걸쳐 난방을 보급하는 방식
공동사용	■ 가족 간 사용이 아닌 다른 가구와의 공동사용만을 말함
출입구	■ 출입구란 문을 열었을 때 집 내부가 나오는 문을 말함
소화기	■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 내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시행됨 ■ 소화기는 주로 현관 바닥에 비치되어있음 
소화기 제조일자	■ 소화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있음 - 10년초과 (2013년 12월 이전 제조) - 10년이하 (2014년 1월 이후 제조) 
화재경보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기 중 1개라도 설치되어있으면 '있음' 으로 응답 ■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일반적으로 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곳마다 1개 이상 설치되도록 의무화가 시행됨 ■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및 1,000㎡미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음 - 점검스위치와 자체 음향장치가 있음  ■ 화재감지기 : 주로 아파트, 비주거용 및 주택 이외 거처(판잣집 등 제외)에 설치되어 있음 - 점검스위치가 없고, 음향장치가 별도로 있음  

현재주택 상태

문 23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구 분	불량	조금 불량	조금 양호	양호
1) 집의 구조물(견고, 균열 상태)	①	②	③	④
2) 방수 상태(습기가 많거나 빗물이 새는 정도)	①	②	③	④
3) 난방 및 단열상태	①	②	③	④
4)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①	②	③	④
5) 채광 상태	①	②	③	④
6-1) 주택 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	①	②	③	④
6-2) 주택 내부 소음(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7)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①	②	③	④
8) 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예방 전기시설, 화재대피시설 유무)	①	②	③	④
9) 주택 방범상태(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①	②	③	④
10) 주택 위생 상태(악취, 벌레 등)	①	②	③	④

주거환경 만족도

문 24 **귀 댁이 현재 살고 계신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상업시설 접근용이성(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①	②	③	④
2) 의료시설 접근용이성(병원・의료복지시설 등)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 접근용이성(시청・읍/면/동사무소・경찰서 등)	①	②	③	④
4)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극장・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①	②	③	④
5)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놀이터・공원・녹지・수변 등)	①	②	③	④
6) 대중교통 접근용이성(버스・지하철 등)	①	②	③	④
7)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①	②	③	④
8)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①	②	③	④
9) 교육환경(학교・학원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10)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①	②	③	④
11)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①	②	③	④
12)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①	②	③	④
13) 대기오염 정도	①	②	③	④
14)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문 25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Ⅱ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이사경험 여부

문 26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현재주택에 살기 전에 이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구주 기준)**

① 있다 → **문 26-1** **귀 댁의 가구주께서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현재주택에 거주하기까지 몇 번 이사를 하셨습니까?**

이사횟수 _____회

② 없다 → **문 33** 항으로

- 가구주 기준으로 가구주가 된 이후 이사경험을 응답
  예시) 2024년 1월에 가구주가 된 이후 2024년 4월부터 현재주택에 살게된 경우, 1월에 가구주가 되었을 때 주택이 현재주택과 다른 경우 이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야 한다.
- 이사는 주택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이사 여부를 체크
- 이전에 살던 주택을 허물고 신축한 경우는 주택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지 않더라도 이사경험으로 정의
- 같은 집이 점유형태가 바뀌었거나, 리모델링 한 경우는 이사한 것으로 포함하지 않음

직전주택 지역(이사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

문 27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현재주택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국외		

시군구, 읍면동 이름

[　　]

(코드 :　　)

※ 코드는 조사원이 기입

직전주택 유형(이사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

문 28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귀 댁이 현재주택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 주택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단독주택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주택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⑧ 오피스텔	⑨ 고시원	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⑪ 기타(　　)		

직전주택 점유형태(이사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

문 29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귀 댁이 현재주택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⑦ 무상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　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　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직전주택 위치(이사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

문 30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귀 댁이 현재주택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 거주하신 위치는 어디입니까?**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상(옥탑)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예 :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이 아닌 ① 지상으로 응답 받음

직전주택 구조(이사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

문 31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귀 댁이 현재주택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 주택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① 원룸형

② 원룸형 아님 → **문 31-1** **직전 주택의 방 수는 몇 개 였습니까?**

1) 방	개

- 원룸형 : 침실, 거실, 식당이 벽 또는 문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안에 전부 모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 형태(쪽방 포함)

직전주택 면적(이사한 지 15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

문 32 **가구주가 된 ( )년 이후, 귀 댁이 현재주택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모두 응답	1)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

주택사용면적	▪ 실제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 ▪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일반・다가구・영업겸용 단독주택 거주자	▪ **주택사용면적** 해당 가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일부 오래된 가옥의 경우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면적에 화장실의 면적을 포함.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해당가구가 사용하는 면적을 총합하여 기입. 단, 사용면적에 마당이나 뒤뜰, 농촌의 외양간 등은 불포함 ▪ 일반단독주택의 사용면적은 실제 주거용 건물의 면적을 의미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문 33 **귀 가구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응답)**

① 계획이 있음 → **문 33-1** **몇 년 안에 이사가실 계획 입니까?**

- ① 2년 미만, ② 2~5년 → **문 34**
- ③ 5년 초과 → 문 26 ①이면 **문 34-1)**, 문 26 ②이면 **문 38**

② 계획이 없음, ③ 잘 모르겠음 → 문 26 ①이면 **문 34-1)**, 문 26 ②이면 **문 38**

이사계획 이유

문 34 **귀 댁이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와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를 보기에서 각 두 개씩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문 26번 ①번 이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1)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문 33-1번 ①, ②번 응답자만 응답	2) 앞으로 이사하려는 이유	

주택마련	①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② 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내/외부요인	③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④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⑤ 계약 만기로 인해서 ⑥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⑦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⑧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거주환경	⑨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⑩ 직주근접(직장, 학교 등)·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개인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 포함) ⑪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⑫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⑬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기타	⑭ 기타( )

이사계획 중인 지역

문 35 **귀 댁은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국외

시군구, 읍면동 이름

[ ]

(코드 :)

※ 코드는 조사원이 기입

이사계획 중인 주택유형

문 36 **귀 댁은 어떤 유형의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하십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단독주택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주택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⑧ 오피스텔 ⑨ 고시원 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⑪ 기타( )

이사계획 중인 점유형태

문 37 **귀 댁은 자가로 이사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이사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⑤ 무상이나 기타

이사계획 중인 주택규모

문 37-1 **귀 댁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십니까? 더 좁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십니까?**

① 현재보다 더 넓은 곳으로 ② 현재와 동일하게 ③ 현재보다 더 좁은 곳으로

주택보유의식

문 38 **귀 가구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문 38-1 **가장 중요한 이유**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주거안정 차원에서
② 자산증식을 위해
③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④ 기타( )

② 아니다 →

문 38-2 **가장 중요한 이유**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자가마련보다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하므로
②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③ 내 집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으므로
④ 기타( )

Ⅲ 정책평가 및 정책욕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문 39 **귀 댁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래 <보기>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문 39-1** **귀 댁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② 필요하지 않다

<보 기>

① 월세보조금 지원	②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④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⑤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⑦ 공공분양주택 공급	⑧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
⑨ 기타( )	⑩ 없음

- 월세보조금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대출), 주거급여 등
- 전세자금 대출 : 저소득가구 혹은 근로자·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전세자금 등
-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등
-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및 자금대출 지원 : 주택개량 서비스 지원 전반
-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 공공분양주택 : 공공의 지원이 투입되어 저렴하게 분양된 주택
-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 :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대인 서비스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현황, 만족도

문 40 **귀 댁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래 <보기>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지 않고 있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②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③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④ 공공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공공분양주택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⑥ 민간분양 특별공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⑦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⑧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⑨ 기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현물, 자금대출 포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⑩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 이용여부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는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응답받음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
-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20년·6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형 임대주택 등이 포함
-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 마이홈,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문 40-1-1 **(문40 ④공공임대주택- 만족도 ③④ 응답자만 응답)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저렴한 임대료
②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계약만기로 인한 불안이 적어서)
③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
④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
⑤ 기타( )

문 40-1-2 **(문40 ④공공임대주택- 만족도 ①② 응답자만 응답) 공공임대주택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임대료가 비싸서
②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③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④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규모
⑤ 기타(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문 41 **귀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Ⅳ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문 46 **현재 귀 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뿐만 아니라 군대 간 자녀, 유학한 자녀 등을 포함하여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있는 다른 구성원 모두에 대해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주민등록세대원 모두)**

No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참조)	출생 연도	우리 나라 나이	성별	주민등록상 등재여부	실제 동거여부	장애정도
				① 남 ② 여	① 등재 ② 비등재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③ 비등록 장애 ④ 해당없음
1	① 가구주						
2							
3							
4							
5							
6							
7							
8							
9							
10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친인척 ⑮ 친구
⑯ 기타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상이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가구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문 46-1 **<질문 안함> TAPI로 자동 생성**

귀 댁의 가구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실제로 이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군대 간 자녀, 유학 간 자녀 등은 제외). (가구원 기준)

_____명

신혼부부 여부

문 47 **(문46 가구주와의 관계 ①과 ②가 모두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0년 미만 → **문47-1** **결혼하신 연도를 선택해주십시오.**

② 10년 이상

① 2024년 ② 2023년
③ 2022년 ④ 2021년
⑤ 2020년 ⑥ 2019년
⑦ 2018년 ⑧ 2017년
⑨ 2016년 ⑩ 2015년
⑪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관련

문 48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 수급가구입니까?**

① 예 → **문 48-1** **귀 가구는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현재 받고 계신 모든 급여에 응답해주십시오.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② 아니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경우, '① 예'로 응답함
- 주거급여란?
  - 임차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함
  -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를 지원함

가구소득

문 49-1 **귀 가구의 가구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한 경상소득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의 월평균 금액(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단, 실수령액<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제외>으로 기재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소득원	금 액
1) 근로・사업소득	월평균_____만 원
2) 재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월평균_____만 원
3) 사회보험 수혜금 (※ 사적연금 제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사회보험금 등)	월평균_____만 원
4) 정부 보조금(기초연금(구.기초노령연금), 생계비 지원금,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	월평균_____만 원
5) 사적이전소득(부모, 자녀 등)	월평균_____만 원
6) 월평균 총 경상소득[1)+2)+3)+4)+5)]	**월평균_____만 원**

근로・사업 소득	■ 근로・사업소득 : 근로나 사업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
재산 소득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등이 포함.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등이 포함됨. 다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 단,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사회 보험 수혜금	■ 사회보험 수혜금에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해당 -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 등이 포함 *보훈연금에는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군인사망보상금, 기본연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부가연금, 사망일시금, 생명조정수당 등이 포함 -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 포함 - **산재보험**에는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이 포함
정부 보조금	■ 정부 보조금 종류 1)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2)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3) 기초연금(구.기초노령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 5)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6)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7) 아동수당 8) 보육료 지원(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i-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9)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10)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11) 농어업 정부보조금 12) 기타(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등)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
사적이전 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아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말함

문 49-1-1 **(문47의 ①) 가구의 소득(문49-1-1)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맞벌이를 통해 얻은 소득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49-2 **귀 가구의 가구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한 비경상소득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소득원	금 액
비경상소득(경조소득, 퇴직금 등)	연총액_____만 원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등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경조소득, 퇴직수당, 만기이전에 사고로 보험탄 금액, 실비보험탄 금액 등)

생활비 및 사적 비소비지출

문 50 **귀 가구의 생활비 및 사적 비소비지출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의 평균 금액(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금 액
1) 월평균 총생활비	월평균_____만 원
1)-(4) 월평균 주거관리비 <질문 안함> 평균 자동 생성	-
1)-(1) 동절기 월평균 주거관리비(12월~3월)	월평균_____만 원
1)-(2) 간절기 월평균 주거관리비(4,5,10,11월)	월평균_____만 원
1)-(3) 하절기 월평균 주거관리비(6월~9월)	월평균_____만 원
2) 월평균 사적 비소비지출(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 단체로 이전 금액만 응답)	월평균_____만 원

생활비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 ▪ 생활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1)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2)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3)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갚은 금액 등 4)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주거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 특히 일반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반관리비 예시 : 공용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비 등 개별호수에서 사용한 항목이 아닌 공동관리를 위해 청구된 비용
사적 비소비지출	▪ 이자비용 : 주택에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한 이자만 해당(사업자금대출로 인한 이자 제외) ▪ 가구 간 이전지출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 단체로 이전 :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사적 비소비지출에는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을 제외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문 51 **귀 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부담됨 ② 약간 부담됨 ③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④ 전혀 부담되지 않음

자산

문 52 **귀 가구의 총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024년 6월 셋째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자 산 종 류	금 액
1) 부동산 자산	_____억 _____만 원
1-1) 주택자산	_____억 _____만 원
2) 금융 자산	_____억 _____만 원
3) 기타자산	_____억 _____만 원
4) 총 자산[1)+2)+3)]	**_____억 _____만 원**

총 자산

- 부동산자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가축, 입목자산, 분양권, 어업권
- 주택자산 : 거주 주택 자산, 비 거주 주택 자산
- 금융자산 :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현금 또는 수표,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기타자산 : 농기계(동력탈곡기,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 재고자산(재고 농·축·수산물 등과 상업용 재고자산 등이 포함되며,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번호 값,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 가구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며 해외에 있는 자산도 포함(명의가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되어있다면 자산에 포함)

부채

문 53 **현재 귀 가구는 부채가 있습니까? 2024년 6월 셋째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있다 → **문 53-1** **현재 귀 댁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 채 종 류	금 액
1) 금융기관 대출금	_____억 _____만 원
2) 비금융기관 대출금	_____억 _____만 원
3) 부동산 소유자로서 받는 임대보증금	_____억 _____만 원
4) 총 부채[1)+2)+3)]	**_____억 _____만 원**

② 없다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도 포함
- 비금융기관 대출금 : 가족·친구·친지에게 빌린 돈, 회사를 통해 빌린 돈,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돈, 한국장학재단, 각종 공제회 등을 통해 빌린 돈 등
- 전세임대주택에서 LH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한 경우는 부채에 응답하지 않음
- 부동산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임대 후 재임대를 통해 얻게 된 임대 보증금은 제외합니다. 반드시 **'자가'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임대 보증금만** 응답 받습니다.

V 배 경 문 항

가구주 학력 및 직업

배문 1 **가구주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최종 졸업 학력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 2 **가구주께서는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무보수)으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배문2-1 **지난 1주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
③ 사무업무
④ 서비스업
⑤ 판매업
⑥ 농림어업
⑦ 기능적 업무(가공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
⑩ 군인·군무원

배문2-2 **다음 중 어떤 근무형태(종사상 지위)에 해당하십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일용 근로자
③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배문2-3 **(배문2-2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배문2-3-1**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풀타임(full-time)
② 파트타임(part-time)

② 없다 →

배문2-6 **가구주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주부 ② 학생 ③ 무직 ④ 은퇴자 ⑤ 기타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번호	
	휴대폰	( ) -
	집	( ) -

신혼부부가구 추가질문 (문47의①)

※ 문47의 ①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결혼한 지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만 응답해주십시오.

무주택가구의 주택마련 예상 소요연수

문 2 **(무주택 가구인 경우) 내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의 자금과 소득 및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응답해주십시오.**

① 예 → **문 2-1** **현재의 자금과 소득 및 소비수준을 고려할 때, 내 집을 구입하는 데에 향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② 아니오

부모와의 동거의향

문 3 **귀 가구는 향후 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님과 동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 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주거비, 생활비 등) 절감을 위해서
② 육아·보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③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④ 기타( )

② 아니오

자녀 보육시설

문 4 **귀 가구는 육아를 위해 거주지 근처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① 보육시설 ② 키즈룸(육아카페) ③ 아이돌봄 서비스
④ 공동육아나눔터 ⑤ 기타( ) ⑥ 해당사항 없음

아이돌봄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지원내용1) 시간제 돌봄서비스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지원내용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공동육아 나눔터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 ▪ (지원내용)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가족계획

문 5 **귀 가구가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____ 2순위 : _____

①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의 주거문제
② 가계경제 및 고용상태
③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④ 일/가정 양립 가능성
⑤ 가족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⑥ 기타(　　)
⑦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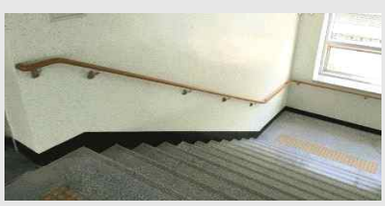
고령가구 추가질문(가구주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주택개조 경험유무 및 주택개조 필요

문 1 **귀 댁에서 노후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개조한 항목이나 설치되어 있는 항목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주시고 개조 필요성 여부도 표시해주십시오.**

구분	1) 설치 및 개조 여부		2) 개조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필요	불필요
① 복도나 계단 안전손잡이	①	②	①	②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	①	②	①	②
③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문손잡이나 욕실 문손잡이(레버형, 막대형)	①	②	①	②
④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높이차이)제거	①	②	①	②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	①	②	①	②
⑥ 휠체어가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	①	②	①	②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	①	②	①	②
⑧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	①	②	①	②
⑨ 레버형 수전(수도꼭지)	①	②	①	②
⑩ 현관에 보조의자 설치	①	②	①	②

▪ 복도나 계단 안전손잡이



▪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문손잡이 또는 욕실 문손잡이



▪ 현관에 보조의자 설치



주택개조 시 어려움

문 2 **(위의 향후 개조 필요성 여부에 하나라도 "① 필요"로 응답한 경우에) 실제 개조를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② 경제적 부담으로
③ 주택개조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몰라서
④ 주택개조 과정이 번거롭고 엄두가 안나서
⑤ 주택을 개조하면 집값이 하락할까봐 걱정되어서
⑥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⑦ 기타 (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가구 추가질문

※ 문46에서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가구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 실제로 동거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구성 현황

문 1 **귀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양부모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
② 한부모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
③ 조부모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
④ 기타 친인척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
⑤ 아동 및 청소년만(만 18세 미만)

주 보호자와의 관계

문 2 **귀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가구 내에서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보내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있다면, 보내는 기관을 제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집에 있을 때 주로 누가 돌보는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귀 가구 내 아동 및 청소년 중 가장 연령이 낮은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기타 친인척 ⑤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등(민간, 정부지원 모두 포함)
⑥ 보호자 없음 ⑦ 보호자 필요 없음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이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이 낮은 가구원 기준으로 응답

아동가구원 주거밀도

문 3 **귀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이 침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합니까?**
※ 귀 가구 내 아동 및 청소년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예 (아동 및 청소년 혼자 사용)
② 아니오 → **문 3-1** **아동 및 청소년끼리 사용합니까?** **문 3-2** **몇 명이 사용합니까?**

① 예 → **( )명**
② 아니오 → **( )명**

▪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이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이 높은 가구원 기준으로 응답

위생상태

문 4 **귀 가구는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주택 내 벌레, 곰팡이 등 위생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결혼 및 출산 관련 추가 질문

※ (문1~문7) 배우자가 없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결혼 생각 및 계획

문 1 **귀하는 결혼할 생각(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1-1**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년 이후

② 없다

결혼 시, 주거 여건

문 2 **(문1의 ①인 경우만) 응답자의 경제적 여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결혼할 때의 주거는 어떤 여건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에서 거주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부모/가족/친인척/지인 등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결혼 시, 거주하게 될 주택 유형

문 3 **(문1의 ①인 경우만) 응답자의 경제적 여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결혼할 때의 주거는 어떤 주택 유형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 단독주택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오피스텔 ⑦ 기타

결혼 시, 필요한 주거지원

문 4 **(문1의 ①인 경우만) 국가 혹은 공공이 결혼을 위한 주거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②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③ 매월 주거비 지원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
⑤ 기타(　　)

결혼 시, 주택 적정 면적

문 5 **(문1의 ①인 경우만) 결혼할 때 주택의 적정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용면적 기준)

사용면적(전용면적)_____㎡

결혼 시, 주택 적정 방수

문 6 **(문1의 ①인 경우만) 결혼할 때 주택의 방수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문 7 **(문1의 ②인 경우만) 귀하는 결혼하실 생각(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②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③ 주택 마련(보증금 포함)이 어려워서
④ 가사나 육아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⑤ 학업·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⑥ 지금 이대로의 상태 및 생활이 좋아서
⑦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⑧ 기타( )

자녀 출산 의향

문 8 자녀를 낳을 생각(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8-1** (문8의 ①인 경우만)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8의 ①인 경우만) 몇 명을 추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명

② 없다

자녀를 기를 때 주택 적정 면적

문 9 (문8의 ①인 경우만)
귀하는 자녀를 (　　)명 생각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녀를 기를 때 주택의 적정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　　)명, 계획 자녀는 (　　)명, 총 (　　)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녀를 기를 때 주택의 적정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면적(전용면적)_____㎡

자녀를 기를 때 주택 적정 방수

문 10 (문8의 ①인 경우만)
귀하는 자녀를 (　　)명 생각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녀를 기를 때 주택의 방수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　　)명, 계획 자녀는 (　　)명, 총 (　　)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녀를 기를 때 주택의 방수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

부 록 2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부록 2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일반가구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구분		추정값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가점유율(%)		58.4%	0.79%	57.5%	59.3%
자가보유율(%)		61.4%	0.74%	60.5%	62.3%
주택 만족도(4점 만점)		3.03	0.17%	3.01	3.04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3.01	0.17%	3.00	3.02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7.9	0.89%	7.7	8.0
PIR(배)		8.1	1.11%	7.9	8.3
RIR(%)		21.9%	1.27%	21.3%	22.4%
평균 거주 기간(년)	전체가구	8.4	0.83%	8.2	8.5
	자가가구	11.5	0.75%	11.4	11.7
	임차가구	3.6	1.55%	3.5	3.7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30.3%	1.31%	29.5%	3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8%	5.39%	3.4%	4.2%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0.6%	9.02%	0.5%	0.7%
1인당 주거면적(㎡)		36.0	0.45%	35.6	36.3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86.8%	0.37%	86.1%	87.4%

주: 중위수의 추정량 분산 계산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PIR, RIR은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며, 중위수 기준의 상대표준오차는 평균에 비해 약간 클 것으로 예상됨

청년가구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구분		추정값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가점유율(%)		12.2%	4.91%	11.1%	13.4%
자가보유율(%)		13.7%	5.07%	12.3%	15.0%
주택 만족도(4점 만점)		3.03	0.38%	3.01	3.05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3.01	0.42%	2.99	3.04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1.3	7.45%	1.1	1.5
PIR(배)		6.3	3.05%	5.9	6.7
RIR(%)		20.3%	1.78%	19.6%	21.0%
평균 거주 기간(년)	전체가구	1.6	1.98%	1.5	1.6
	자가가구	2.4	4.17%	2.2	2.6
	임차가구	1.4	2.23%	1.4	1.5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78.7%	0.97%	77.2%	80.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8.2%	10.76%	6.4%	9.9%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0.9%	19.59%	0.5%	1.2%
1인당 주거면적(㎡)		31.1	1.35%	30.3	31.9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75.7%	1.42%	73.6%	77.8%

주: 중위수의 추정량 분산 계산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PIR, RIR은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며, 중위수 기준의 상대표준오차는 평균에 비해 약간 클 것으로 예상됨

신혼부부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구분		추정값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가점유율(%)		43.9%	2.56%	41.7%	46.1%
자가보유율(%)		47.1%	2.41%	44.9%	49.3%
주택 만족도(4점 만점)		3.12	0.34%	3.10	3.14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3.08	0.37%	3.05	3.10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1.9	4.76%	1.7	2.0
PIR(배)		6.9	2.36%	6.6	7.2
RIR(%)		21.2%	2.22%	20.3%	22.2%
평균 거주 기간(년)	전체가구	2.5	1.73%	2.4	2.6
	자가가구	2.9	2.33%	2.8	3.1
	임차가구	2.1	2.65%	2.0	2.3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57.4%	1.76%	55.4%	59.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5%	13.65%	1.9%	3.2%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0.2%	36.75%	0.0%	0.3%
1인당 주거면적(㎡)		27.4	0.86%	27.0	27.9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89.6%	0.69%	88.4%	90.8%

주: 중위수의 추정량 분산 계산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PIR, RIR은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며, 중위수 기준의 상대표준오차는 평균에 비해 약간 클 것으로 예상됨

고령가구 주요지표 상대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구분		추정값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가점유율(%)		75.9%	0.63%	75.0%	76.8%
자가보유율(%)		78.0%	0.60%	77.1%	79.0%
주택 만족도(4점 만점)		2.95	0.23%	2.94	2.97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2.96	0.22%	2.94	2.97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9.8	1.17%	9.6	10.1
PIR(배)		11.3	1.57%	10.9	11.6
RIR(%)		26.7%	2.00%	25.6%	27.7%
평균 거주 기간(년)	전체가구	14.8	0.77%	14.6	15.1
	자가가구	17.0	0.79%	16.7	17.3
	임차가구	7.1	2.44%	6.7	7.4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11.7%	2.34%	11.1%	12.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1%	8.41%	1.8%	2.4%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1.0%	9.68%	0.8%	1.1%
1인당 주거면적(㎡)		46.6	0.51%	46.2	47.1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90.2%	0.38%	89.6%	90.9%

주: 중위수의 추정량 분산 계산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PIR, RIR은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며, 중위수 기준의 상대표준오차는 평균에 비해 약간 클 것으로 예상됨